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웨딩문화산업학전공  
노 영 미

#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연구

김 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웨딩문화산업학전공


노 영 미

# 인준서

노영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정 한 

심사위원 주 영 애 

심사위원 김 인 옥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를 연구하였고. 충남지역의 혼례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당시의 혼인제도, 혼례절차, 혼례복식, 혼례음식을 알아보았다.

혼례문화연구는 문헌 연구, 설문지 조사 연구, 면접 조사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혼례 문화의 연구에서 중요한 면접 조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혼례문화 변천 연구를 위한 면접 조사 연구 대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연령은 70~90세 정도이다. 그 연령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들이 연령이 높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수가 줄어들면서 그들이 혼인한 당시의 역사적인 혼례문화 자료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연령의 연구 대상자들이 혼인한 시기가 평균적으로 1940~1960년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1940~1960년의 혼례문화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지역은 '예학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충남지역으로 선정하여 예학이 발달한 지역에서 서구문화의 유입이 심했던 1940~1960년에 혼례문화에 있어서 서구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보았다.

충남지역 16개 시·군에서 혼인한 현재 평균연령이 70~90세인 기혼남녀 3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접 조사자가 면접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며 질문지를 통한 질문과 답을 녹취하였고 증언 자료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러한 면접 조사 연구는 혼례문화 변천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혼인제도는 일제 말기 때 가장 심하게 조혼현상이 나타나났으며 통혼권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 주로 통혼권이 짧은 도내 혼과 군내 혼이었다. 혼인유형은 모든 면접자가 중매 혼이었고 일반적으로 혼인하면 신랑과 신부가 신랑집에 들어가 사는 부거제였다.

둘째, 충남지역의 혼례절차에서는 혼례형태가 일반적으로 전통혼례였다. 모든 면접 대상자가 전통혼례로 예식을 행하였으며 예식 시간은 오전 10시와 11시가 많았다. 충남지역에서는 친영이나 반친영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당일 우귀를 행하거나 2일 우귀 후 재행을 행하였다. 친영에서는 우귀 후 신랑 집에서 예식을 행하고 재행은 없으며 반친영은 신부집에서 예식 후 재행을 행하고 우귀를 행하였다면 당시에는 신부의 집에서 예식을 행하고 당일이나 삼일 안에 우귀를 행하였다가 다시 삼일 만에 재행을 행하였다. 이처럼 혼례절차에서 예식, 우귀, 재행의 순서가 크게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혼례절차가 친영도 반친영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고조선전통혼례와 중국전통혼례의 문화접변현상의 결과라고 본다.

셋째, 충남지역의 혼례복식은 혼례복과 현구고례복으로 신랑은 남색 단령에 사모관대를 착용하였고 신부는 녹원삼과 홍원삼을 비슷한 비율로 입었으며 머리에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대부분 혼례복과 현구고례복은 개인 것이 아닌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옷을 입었다. 단 개인적인 원삼을 입은 경우는 그 원삼을 세 번 돌려 입고 수의로 입으면 좋다는 풍습 때문에 집안 어른의 수의로 쓸 원삼을 입기도 하였다. 대부분 혼수는 신부가 입을 옷만 하였고 살림이 어려워 혼수나 예단이 생략된 경우도 많았다.

넷째, 충남지역의 혼례상에는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밤, 대추, 곶감),

닭, 곡류 한 두 가지가 올려졌다. 혼례상에 올려진 곡류는 쌀, 콩, 팥, 달떡, 용떡, 국수, 시루떡 등이었다. 혼례 잔치에서 하객에 대접하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잘 살면 떡국이고 보통은 국수를 많이 대접했고 살림이 어려운 집은 콩나물국과 밥을 대접했다. 혼례 시 큰상을 받은 면접자가 적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큰상을 해주었다. 현구고례 음식은 일반적으로 닭과 술이었고 근친 때는 일반적으로 인절미와 절편 그리고 엿을 가지고 신부가 친정에 다니러갔는데 시댁의 살림이 어려우면 이바지음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 특징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서구문화의 유입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대상자 중에는 신식혼례로 예식을 행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례절차나 혼례음식 등이 간소화 되었지만 예학의 고장이며 양반의 고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통혼례문화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충남지역 혼례문화의 발달배경 .....	4
1. 충남의 지리적 환경 .....	4
2. 혼례문화의 발달 .....	6
1) 혼인제도 .....	6
2) 혼례절차 .....	9
3) 혼례복식 .....	17
4) 혼례음식 .....	22
3. 충남지역 혼례문화 선행연구 .....	27
III. 연구방법 .....	31
1. 면접도구 .....	31
2. 연구대상 선정 .....	33
IV.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 분석 .....	35
1. 면접 조사 대상자의 개괄적 분석 .....	35
2. 혼인제도의 분석과 특징 .....	39
3. 혼례절차의 분석과 특징 .....	46
4. 혼례복식의 분석과 특징 .....	89
5. 혼례음식의 분석과 특징 .....	105

V. 논의 및 결론 ..... 11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면접조사 질문지)

## 표 목차

<표 2-1> 1934년 ‘의례준칙’의 혼례절차에 관한 규정 .....	14
<표 2-2> 전반적인 전통혼례절차 선행연구 .....	17
<표 2-3> 지역에 따른 전통혼례떡 .....	27
<표 4-1>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5
<표 4-2> 혼례형태, 혼례장소, 혼인유형, 거주규정 .....	41
<표 4-3> 납채와 납폐 .....	48
<표 4-4> 예단의 범위와 품목 .....	54
<표 4-5> 초행과 예식 .....	60
<표 4-6> 우귀, 현구고례, 재행, 근친 .....	78
<표 4-7> 혼례 복식과 현구고례 복식 .....	89
<표 4-8> 보관함 뚜껑에 적힌 품목(1950년대) .....	96
<표 4-9> 함 관련 음식, 혼례상, 큰상여부 .....	105
<표 4-10> 잔치 음식, 현구고례 음식, 근친 음식 .....	111

## 그림 목차

<그림 2-1> 충청남도 지형도 .....	6
<그림 2-2> 혼인절차의변천(김득중,2007) .....	16
<그림 2-3> 충남 서산 혼례상(박혜인,1988) .....	23

## 사진 목차

<사진 2-1> 1950년대의 전통혼례와 신식혼례 .....	21
<사진 4-1>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 후손의 고택 전경 .....	37
<사진 4-2>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당과 묘소 .....	37
<사진 4-3>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의 사당과 교육장 .....	38
<사진 4-4>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 고택의 전경 .....	38
<사진 4-5> 사주와 납채서(1958년, 면접22) .....	50
<사진 4-6> 약혼사진(1956년, 면접29) .....	51
<사진 4-7> 납채서(1958년, 면접22) .....	51
<사진 4-8> 혼서지(1963년, 면접24의 매부) .....	56
<사진 4-9> 초려 이유태 선생 종손 혼서지(1958년, 면접24) .....	58
<사진 4-10> 혼서지 봉투와 근봉띠( 1958년, 면접2) .....	60
<사진 4-11> 공주 향교 홀기 1쪽 .....	68
<사진 4-12> 공주 향교 홀기 2쪽 .....	69
<사진 4-13> 공주 향교 홀기 3쪽 .....	69
<사진 4-14> 나무 오리(1950년대) .....	72
<사진 4-15> 예식 사진(1958년, 면접22) .....	73
<사진 4-16> 1940년대 추정 혼례복 .....	93
<사진 4-17> 1950년대 추정 혼례복 .....	94
<사진 4-18> 혼례복 보관함(1950년대) .....	95
<사진 4-19> 면접4가 입은 혼례복과 유사한 원삼과 단령(1940년대) ·	97
<사진 4-20> 명주솜바지(1958년, 면접25) .....	98
<사진 4-21> 초려 이유태 선생 종부의 혼수(1958년) .....	100
<사진 4-22> 옆으로 뉘어 부착된 단령의 흉배(1940~1960년) ·	102

# I. 서론

남녀의 결합과 양가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법률적으로 인정받은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것을 혼인(婚姻)이라고 한다. 혼인은 가족 구성의 최초 단위인 그 가족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세대를 이어가므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며 혼인의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혼인(婚姻)의 혼(婚)은 ‘장가들 혼’이고 인(姻)은 ‘시집갈 인’이라고 해서 혼인은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혼인의 혼은 장가들(혼인할) 혼(婚)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물 혼(昏)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조선전통혼례의 예식은 양기(陽氣)가 충만한 오시(午時,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행해졌고 중국전통혼례의 예식은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교차하는 해가 질 무렵에 행해졌다. 이에 고조선전통혼례에서는 장가들 혼(婚)자를 사용하고 중국전통혼례는 저물 혼(昏)자를 사용한다.

고려 말 송나라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들어온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사례편람(四禮便覽)』·『가례집람(家禮輯覽)』·『가례향의(家禮鄉宜)』에서는 혼인을 ‘昏姻’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婚禮’로 표기되어있고 퇴계 이황(退溪 李滉), 오휴당 안신(五休堂 安新), 노석 여구연(老石 呂九淵)도 ‘婚禮’로 표기하였다(김언희, 2003).

혼례(婚禮)란 혼인예식(婚姻禮式)의 줄임말인데 좁은 의미로 혼인예식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혼인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혼례인 혼인예식 자체는 예식이라 하고 넓은 의미로 혼인에 관련된 모든 과정과 행위를 의미

할 때는 그대로 혼례라 하겠다. 혼례와 같은 뜻을 가진 용어로 배례, 초례, 대례, 결혼이 있다.

혼례문화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또 다른 혼례문화와의 문화접변을 통해 변화하고 생성되는 문화적 속성<sup>1)</sup>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혼례문화도 두 번의 문화접변이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혼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전통혼례로 시작해서 오늘날 서양식혼례가 대부분 차지하기 까지는 조선시대에 유교의 유입과 개화기의 기독교 유입의 영향이 컸다. 유교의 유입으로 고조선전통혼례와 중국전통혼례가 문화접변현상을 거쳐 새로운 전통혼례모습을 띄게 되었고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를 말할 때는 이것을 가리킨다. 또 다시 개화기 이후에 전통혼례와 서양식혼례의 문화접변이 있었고 서서히 서양식혼례가 일반적인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서양식혼례를 신식혼례라고 하겠다.

혼례문화의 변천은 혼례문화에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혼례문화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을 주영애·이향숙(2009)은 내용 분석 연구, 설문 조사 연구, 사례 조사 연구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혼례문화의 연구방법을 과거의 혼례에 관하여 기록된 문헌자료를 통한 내용 분석 연구를 하는 문헌 연구, 현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를 하는 설문 조사 연구와 조사자와 대상자가 직접 만나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를 하는 면접 조사 연구로 나누었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 pp.496

문화는 끝없는 변화생성의 과정을 겪는다. 외부로부터 한 사회로 유입된 문화는 그 사회의 배경과의 문화접변(文化接變)을 통하여 변한다. 또한 도입되었거나 개발된 새로운 지식이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전체사회에 확산되어 혁신이 일어난다. 그런 과정에서 기능을 상실한 낡은 문화요소들은 사멸되어 간다. 문화는 이처럼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부단히 진화 또는 퇴화의 길을 밟는다. 문화인류학자들을 문화의 이러한 성격을 초유기체성(超有機體性)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들 문화의 성격의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혼례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연구는 면접 조사 연구이다. 우리 고유의 혼례문화에 대해 증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혼례문화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주영애·이향숙, 2009).

현재 혼례문화 변천 연구의 면접 조사 대상자로 가장 의미가 있는 연령은 70~90세 정도이고 이 분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분들의 연령이 높아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수가 줄어들면서 역사적인 혼례문화 기초 자료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분들이 혼인한 시기가 평균적으로 1940~1960년이므로 본 연구는 1940~1960년의 혼례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은 ‘선비의 고장’으로 성리학파 유교가 발달한 예학의 고장이다. 그리고 1940~1960년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서구문화가 급속하게 유입된 시기이다. 6.25전쟁을 계기로 서구 문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면서 서구생활양식을 수용하게 되고,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의례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김인옥, 2009). 서울 지역은 1950년대부터, 경상도 지역은 1960년대부터 신식혼례를 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이향숙, 2012) 예학의 고장인 충남지역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식혼례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 16개 시·군에서 혼인한 현재 평균연령이 70~90세인 기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연구는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Ⅱ. 충남지역 혼례문화의 발달 배경

### 1. 충남의 지리적 환경

충남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서쪽은 황해, 남쪽은 전라북도, 북쪽은 경기도와 접하고 있다. 차령산맥에 의해 동서로 구분된 동고서저의 특성을 지녔으며 전반적으로 지형이 저평해서 농경지인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되었다. 계룡산이 828m로 해발 고도 1,000m 이상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도 전체의 평균 고도가 100m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택리지(擇里志)』에서는 ‘충청도는 산천이 평평하고 예쁘며, 서울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에다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심한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 만하다.’라고 했다(이익성, 1997).

충남은 삼한시대에는 충청북도와 함께 마한의 지역이었다. 서기 전 18년 북부여에서 남하한 온조는 도의 동북부에 거점을 두고 마한의 땅을 통일하여 백제를 건국하였다. 475년(문주왕 2년)에 백제의 수도를 한성(서울)에서 웅진(공주)으로 천도한 이래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85년간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웅진도독부와 소부리주(사비주), 웅천부, 웅주 등으로 불리워졌으며, 후삼국시대에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하남도, 양광도, 충청주도, 충청도 등으로 불리워졌으며, 경기도와 합침과 분리가 반복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1396년)에 양광도를 충청도와 경기도로 분리하였고 선조 31년(1598년)에는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에 충청도의 명칭은 공청도, 충청도, 공홍도, 충홍도, 공충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칭되다가 순조 34년(1834년)에 공청도에서 충청도로 환원되었다. 고종 33년 1896년 칙령 제36호로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분리되어 비로소 충청남도가 탄생하게 되었다(황창연 외, 2009). 조선 말 까지만 해도 충청도 감영이 공주에 있었으나 충북과 충남으로 나뉘고 대전광역시가 따로 독립되어 나간 지금은 대전이 그 중심이 되었다(신정일, 2004).

충남지역은 조선초기부터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었고 흔히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이는 율곡 이이의 기호학과를 계승한 정치가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양반, 선비, 충신·열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율곡의 적통을 계승한 사계 김장생을 중심으로 한 예학(禮學)과 그의 제자인 우암 송시열의 의리학(義理學)이 발달하였다(황창연 외, 2009).

충남지역은 현재 8시 8군으로 편제되어 있다. 8시 8군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 태안군이다.



<그림 2-1> 충청남도 지형도(<http://www.chungnam.net>)

## 2. 혼례문화의 발달

우리나라 혼례문화는 시대적 영향을 받으며 소멸과 재창조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1940~1960년의 혼례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1960년까지의 혼례가 변화해온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에 고대부터 근대화되기 시작하는 1960년까지의 혼인제도, 혼례절차, 혼례복식, 혼례음식을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 1) 혼인제도

혼인제도는 혼인당사자의 개인적 조건, 가족적 배경,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포괄하는 복잡한 사회제도의 하나로써 혼인규정·혼인유형·거주규정·혼인조건·혼인형태로 나누어진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본 논문은 1940~1960년의 혼례문화를 연구하므로 세부적으로

봉사혼·매매혼으로 나누어보는 혼인조건과 일부일처제·일부다처제·다부일처제로 나누어보는 혼인형태는 시대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혼인규정·혼인유형·거주규정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혼인규정은 어떤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혼인규정은 통혼권과 관련이 크다. 통혼권은 지역적 통혼권과 사회경제적 통혼권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적 통혼권은 지역상 일정한 범위에 거주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등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범위에 초점을 맞춘다.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을 지역내혼으로 다른 마을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을 지역외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 넓게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면내혼·군내혼·도내혼·도외혼 등이 있다.

둘째, 혼인유형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혼인당사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였느냐이다. 혼인유형은 중매혼과 자유혼으로 나누어진다. 혼인당사자의 의사보다 제삼자의 의사에 의하여 혼인 이루어지는 것은 중매혼이고 혼인당사자인 신랑신부가 타인의 강요 없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처지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은 자유혼이다. 자유혼은 남녀가 자유롭게 혼인할 경우 이는 사랑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혼을 연애혼이라고도 한다.

셋째, 거주규정은 혼인한 부부가 그들의 거주지를 어디에 정하느냐 하는 것이며 모거제·부거제·신거제로 나누어진다. 모거제는 신랑신부가 혼인한 후 신부집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부거제는 혼인한 후 신랑집에서 거주하는 것이며 신거제는 신랑집과 신부집이 아닌 새 집을 장만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거주규정은 재산의 상속, 가계의

계승, 혼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거주규제가 부거제인 경우 신부는 혼인 후에 시가로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혼수품이 필요하지 않았다.

개화기 이후에 제정된 혼인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3년 조선민사령<sup>2)</sup>을 제정할 때 제11조 2항에서 ‘신고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 혹은 신고주의로 전환되었다(박혜인, 1990).

1922년 12월 개정된 민사령의 혼인 요건에는 첫째, 법정 혼인 연령은 남 17세, 여 15세, 약혼에는 연령 제한 없음, 둘째 중혼(重婚) 금지, 셋째 상간자(相姦者) 사이의 혼인 금지, 넷째 혼인 당사자끼리의 합의, 다섯째 동성동본 혼인 금지, 여섯째 부모의 허락, 일곱째 호주의 동의 등이 들어 있었다. 또한 혼인신고주의라 하여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춘 뒤에도 혼인계를 내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34년 의례준칙에서는 혼인연령을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7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강선미, 1999). 이렇게 조혼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이미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1937년 이후 전시 동원 체제 아래에서 여성의 조혼은 강제 동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더욱 조장될 수밖에 없었다(황창연 외, 2009).

장하경(1996)은 1940~1960년의 혼인유형은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가의 주혼자끼리 청혼하는 의혼의 형식을 띤 배우자선택이 71%이상이어서 중매혼이 지배적이었다고 하였고 혼인 후 살림 시작 장소는 86%가 시집으로 부거제가 일반적이었다고 하였다.

앞의 내용으로 보아 1940~1960은 혼인연령이 남자는 20세 이상이며 여자는 17세 이상이고 일제의 강제 징병과 강제 동원 그리고 6.25전쟁

---

2) 朝鮮民事令 : 1912년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7호,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때문에 조혼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혼인유형은 자유혼보다는 중매혼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거주규정에는 부거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주의였으므로 혼례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걸로 보인다.

## 2) 혼례절차

삼국시대에는 불교식의 화혼례(花婚禮)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였고 상례(喪禮)도 불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 미루어 혼례도 불교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류사회에서는 불교식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고려의 혼인은 서류부가(婿留婦家) 혹은 남귀여가(男貴女家)라 불리는 처가살이 혼인이었다. 남녀가 혼인을 하면 신랑이 여가에서 생활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본가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전통혼례의 원형은 고조선전통혼례이다. 고조선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 내려온 일반 백성들의 혼례는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르는 중국전통혼례와는 다르다.

고조선전통혼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도산전서(陶山全書)』, 『노석집이(老石集二)』, 퇴계<혼례홀>연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혼례보감(婚禮寶鑑)』 등이 있다. 이 문헌들 속에는 고조선부터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이 실제 행했던 혼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김언희, 2003). 조선시대까지 전해 내려온 고조선 전통혼례에 대한 기록이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기록물에서는 찾을 수

없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기록이 된 것이다.

고조선전통혼례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 마당에서 혼례를 행하고 신랑 방에 들어가서 점심상을 받고, 또 저녁상을 받고, 그 방에서 신부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된다. 이것을 두고 ‘신랑이 장가(丈家) 들었다(入)’라고 말하는 것이다(여중동, 2003). 고려시대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서류부가혼 혹은 남귀여가혼과 같은 혼인제도를 보아도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초에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의 전례에 따르게 하였고 이에 주자 가례에서의 혼인절차 중 친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례(家禮)』에서 나타나는 친영(親迎)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들 데리고 본가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으로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서류부가혼과 크게 다르다. 여성의 혼례를 신부가 시가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집가다’로 표현하는 것은 이 친영례가 시행되면서 생겨난 표현이다.

정도전은 자녀들이 친가보다 외가의 가풍을 계승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친영례를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서류부가혼이나 남귀여가혼으로 자녀가 외삼촌과 함께 자라고 외할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자라서 외가의 권한이 크고 부권(夫權)을 행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김인옥, 2011). 그러나 조선시대 초에 관혼상제의 의례정비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중국의 제도를 따르게 하였지만 사례(四禮) 중 혼례만은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못하였다.

세종 때 왕실과 일부 사대부에서는 중국전통혼례를 따라 친영례가 행해졌으나 일반 백성들은 친영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는 양가의 결합인 혼인에 있어서 신부집의 비중이 컸고 신랑이 신부집에서 오랜 기간을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영 의식 절차가 너무

형식적이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워 그 것을 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중종이후 본격적인 제도 개혁으로 유교적 생활규범이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 백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명종대에는 ‘반친영’의 절충안이 제안되었다. 사위가 일정기간 동안 신부집에서 머무르면서 신부집에 도움을 주었던 풍속에서 신부집에서 혼인 후 신랑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 사는 반친영례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중종대 이전의 친영론은 서류부가하는 우리나라 혼인관행과 상관없이 친영례의 실행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명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배층의 예론가들이 재래의 우리나라 혼인관행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의 혼례절차의 고유한 형태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무조건 중국식전통혼례를 시행하고자 급급했던 것이다(현택수, 1999).

선조 대에는 왕이 “혼례는 입향순속(入鄉循俗)이어서 풍속에 따르게 할 것이지 새로 만들지는 말라”고 지시하였다(고려대학교민속문화연구원, 2001). 입향순속(入鄉循俗)이란 다른 지방에 들어가서는 그 지방의 풍속을 따른다는 말이다. 왕실과 사대부들이 다방면으로 일반 백성들도 주자가례의 혼례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선조는 중종에 이어 두 번째로 국왕 친영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영례를 강요하기 보다는 풍속에 따르는 것을 용인했다. 이렇게 고대부터 서류부가혼을 따른 백성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온 중국전통혼례보다는 고대부터 시행해 오던 고조선전통혼례를 따랐다. 위에서 시작한 의례개혁이 유교적 가례의 지나친 형식성과 복잡성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의례까지 바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며 유교적 사고가 생활을 지배하면서 점차

가부장위주의 가족제도가 되었고, 현종 10년(1844)에 『사례편람(四禮便覽)』이 편찬되면서 간소화된 혼례절차가 사대부 뿐 아니라 민가에서도 크게 풍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혼례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 조선의 가부장 대가족제도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오늘날 정의되는 ‘전통혼례’는 중국의 『주가가례(朱子家禮)』를 근본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조선시대 고유의 풍속에 맞추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왔다(강선미, 1999). 반친영례의 혼례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혼례라고 할 수 있고 인습적인 고조선전통혼례와 유교적 가례를 중심으로 한 중국전통혼례가 융합이 되어서 반친영례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반친영례는 신부집 중심이었으며 친영례는 신랑집 중심이었다. 이는 혼례가 어느 곳에서 행해졌느냐와 우귀가 언제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다. 반친영례는 혼례가 신부집에서 행해졌고 친영례는 신랑집에서 행해졌다. 친영례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전안례를 드리고 신부를 본가로 데리고 가서 신랑집에서 혼례를 행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것을 우귀라고 하는데 고조선전통혼례는 신랑신부가 신부집에서 혼인하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여가에서 머물렀다가 우귀하였고 친영례는 우귀를 혼례 전에 하였고 반친영례는 신부집에서 혼례를 행한 후에 당일이나 삼일 안에 우귀를 하였다.

혼례과정에서 신랑신부가 ‘혼인할 사람’과 ‘혼인한 사람’으로 위치가 바뀐다. 친영례에서는 우귀 후에 신랑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나서 혼인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반친영례에서는 우귀 전에 신부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혼인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귀를 하는 것이다.

혼례의 여러 절차 중에서 주자의 가례에는 없는 사주(四柱), 택일

(擇日), 송복(送服)과 함 보내는 것 등은 비록 조선조의 그것과 같지는 않더라도 예로부터 행해졌을 것이다. 특히 신랑의 초행(初行), 재행(再行), 전안지례(奠雁之禮), 동상례(東床禮), 신부의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등은 그 기반이 삼국시대부터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도 대례상(大禮床)의 상차림 내용이나 합근지례(合簪之禮), 교배지례(交拜之禮)의 내용도 주자의 가례 이전, 즉 고려 이전에 이미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후기 유교적 중심의 의례가 가례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구적 교육의 영향을 받은 계층에서 불합리한 것이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보였다. 그 결과 소위 ‘신식(新式)’이 생기고 이 신식에 대하여 종래의 것을 ‘구식(舊式)’으로 불렀는데 이 신식은 혼례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렇게 신식과 구식으로 구분하는 사회적인 현상은 개화기 이후 기독교문화와 함께 들어온 합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 신식혼례의 시초는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 결혼’이며 주로 교회당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신식 결혼식은 1890년 정동교회에서 올린 여신도 박신실양과 남신도 강신성군의 결혼식으로, 그 당시 이 결혼식을 주관한 선교사들은 타인들로부터의 항거가 두려워 혼례복만은 전통의 예복을 입게 하였다(이효재, 1972).

1920년 1월 8일 영친왕의 결혼식은 당시 한국사회의 결혼식에 영향을 주는데, 영친왕의 비가 되는 이방자는 일본에서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치룬 후 1944년 4월 다시 한국에 돌아와 덕수궁에서 다시 전통혼례를 치루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로서 양국간의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식 혼례가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신식혼례를 치룬 후

서운하다고 하여 다시 전통혼례를 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강선미, 1999). 이때부터 구식혼례라고 불리던 전통혼례와 서양식 혼례인 신식혼례가 함께 보이는 과도기가 시작 되었다.

신식혼례가 교회당에서 주로 행해지다가 1930년대 서울에 신식혼례를 전문으로 행할 수 있는 전문 예식장이 생겼다. 그리고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의례준칙(儀禮準則)’을 발표하여 전통혼례를 합리화하고 간소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신식혼례가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되는데 한 몫을 하였다. 해방 이후 1956년에는 국민재건운동본부에서 의례준칙에서 더 간소화한 ‘표준의례(標準儀禮)’를 제정하였다.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의례준칙’의 혼례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1934년 ‘의례준칙’의 혼례절차에 관한 규정(강선미, 1999)

<p>●약혼(約婚): 사주(四柱-신랑·신부의 성명 및 생년월일시를 쓴 것)를 교환함.</p> <p>●연길(涓吉): 신부가(新婦家)에서 혼례의 날짜를 택하여 신랑가(新郎家)에 통지함.</p> <p>●납폐(納幣): 폐(幣)는 청홍이단(靑紅二端)으로 하며, 그것을 신부가(新婦家)에 보내면, 신부가(新婦家)에서는 신랑가(新郎家)로 회답문(回答文)을 보냄.</p> <p>●초례(醮禮)</p> <p>장소: 신랑가(新郎家), 신사(神社), 사원(寺院), 또는 교회당(教會堂)</p> <p>의식: 신부가(新婦家)에서 거행하는 때는 이에 依함: 먼저 신랑은 당일 출발 전 성장(盛裝)<sup>3)</sup>하고, 부모앞에 나아가 교혼을 받고 안부(雁夫)를 선두로 하고 친영의 도를 행한다<sup>4)</sup>. 신부집에 정각에 도착하면, 접대자가 문앞에서 영접(迎接)하고, 신랑은 별실(別室)에서 쉰다. 이 때 방 중앙에 교배석(交拜席)을 마련하고 탁상에 술·과일·합근배(合巹杯)를 놓는다. 신랑은 접대자의 선도로 전안의 예를 행하고 교배석에 나가 서쪽을 향해 선다. 신부는 당일 성장<sup>5)</sup>하고, 수모(壽姆)의 선도로 교배석에 나가 동쪽을 향</p>
--

해 선다. 그리고, 교배례와 합근례를 행한 후 신랑은 신부의 양친과 기타 존속친에게 배례한 후 별실에서 쉰다. 신부는 그 동안 양친의 앞에 나가 배례하고 교훈을 받는다. 그리고, 우귀(于歸)는 초례 당일로부터 3일이내에 행하며, 이 때 신부 존속친 중 한 사람이 따라간다. 정시에 신랑집에 도착하면 접대자의 안내에 따라 신부는 별실에 들어가 쉬었다가 정청(正廳)에 들어가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한 후 시부모로부터 교훈을 받는다. 그리고, 신부는 접대자의 선도로 신랑 각 존속친에게 현존장례(見尊長禮)를 행한다.

신사(神社), 사원(寺院), 또는 교회당(敎會堂)에서 거행하는 때는 각각 그 장소의 식에 따름.

‘의례준칙’에서 전통혼례를 구습(舊習)이라하여 그 폐해를 지적하여 대폭 간소화하였고 혼례복이나 혼수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였다(황경애, 1994).

이 의례준칙의 내용을 보면 전통혼례를 기반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식혼례가 일반화된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서는 전통혼례의 내용이 빠졌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신식혼례의 식순을 정리하여 ‘혼례식순(婚禮式順)’<sup>6)</sup>을 제정하였다. 이 신식혼례의 혼례식순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30년 사이를 두고 법이 바뀐 것을 보면 그 과도기인 1940~1960년에는 전통혼례와 신식혼례가 크게 혼재하던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0~1960년에는 전통혼례와 신식혼례가 혼재한 시기이지만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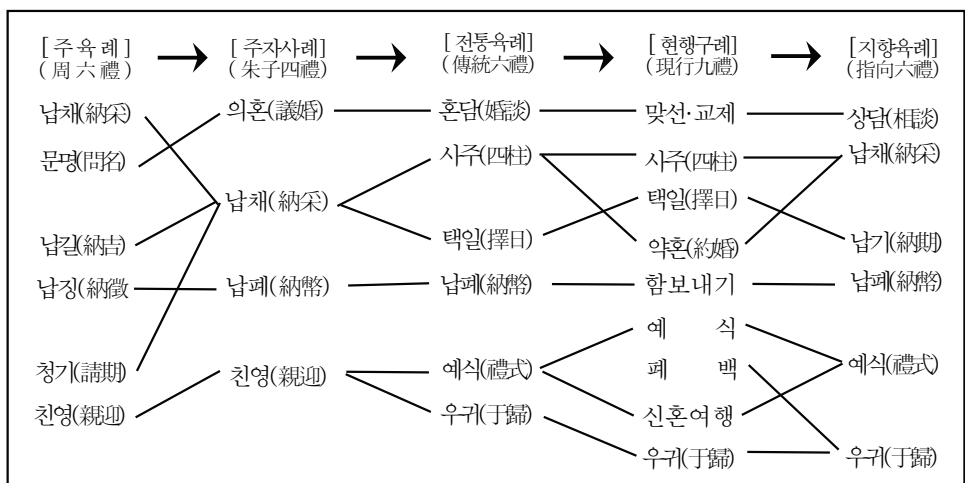
3) 조선복(朝鮮服)은 두루마기 [周衣] 이상(以上), 화복(和服)은 문쯔기 [紋附] 이상(이상), 양복(洋服)은 모오닝구 이상(以上)(강선미,1999)

4) 신랑 남계친속 중 한 사람이 따라감.(강선미,1999)

5) 조선복(朝鮮服)은 누(襦)·상이상(裳以上), 화복(和服)은 거모양문부이상(裾模様紋附以上) 그리고 양복(洋服)은 웨딩드레스이상(以上)이며,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폐하였다.(강선미,1999)

6) 혼례식순: (a)개식 (b)신랑 입장 (c)신부 입장 (d)신랑 신부 맞절 (e)신랑 신부 서약 (f)예물 증정 (g)성혼 선언문 낭독 (h)주례사 (i)양가 대표 인사 (j)신랑 신부 인사 (k)신랑 신부 퇴장 (l)폐식

가지 이유로 전통혼례가 신식혼례에 밀리기 시작하는 과도기였다. 개화기 이후 서양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화 내지 서양화의 운동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고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한 서양화가 진행되었으며 국가적으로 의례준칙이나 표준의례를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의례를 간소화시키면서 신식혼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림 2-2> 혼인절차의 변천(김득중,2007)

<그림 2-2>를 보면 주자가례의 혼인절차는 의혼, 납채, 납길, 친영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혼인을 중국전통혼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례는 지금부터 약 3천년 전의 중국 주(周)나라 때의 혼인 절차였으나 지금부터 약 8백년 전의 중국 송(宋)나라 때 학자 주희(朱熹)가 육례는 불합리하다면서 사례(四禮)로 조정했다.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전통 관습과 융합되어 전통육례가 되고 다시 전통육례와 서양식혼례가 융합되어 현행구례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김득중, 2007).

<표 2-2> 전반적인 전통혼례절차 선행연구(이향숙, 2012)

	박혜인 (1991)	황경애 (1994)	이길표·최배영 (2000)	김인옥 (2007)	안혜숙 (2010)	주영애 (2010)
선 례	의혼 사성 택일 합	의혼 청혼서/사주 허혼서/택일 합	중매로 청혼 사주/청혼서 연길/허혼서 합	혼담 사주 택일 납폐	사주 궁합 택일 합 예단 상견례 (약혼식)	의혼 납채 납폐
본 례	신랑 초행 전안 교배 합근	초행 전안 교배 합근	전안 교배 합근	혼례식	혼례식	전안 교배 합근
후 례	신랑 재행 신부 신행 폐백 사당알현 근친	초야 장인, 장모 인사 우귀 현구고례 사당폐백 근친	신랑의 관례벗김 폐백 사당폐백 신부의 관대벗김 합례 신행	우귀 현구고례	현구고례 신혼여행	우귀 현구고례

<표 2-2>는 혼례의 절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선례, 본례, 후례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1940~1960년의 혼례문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2-1>, <표 2-2>, <그림 2-2>를 바탕으로 혼례의 절차를 의혼, 납채, 납폐, 초행, 예식, 합방례, 재행, 우귀, 현구고례, 근친의 순서로 정하였다.

### 3) 혼례복식

복식의 풍속은 식생활이나 주생활과 함께 기층문화의 알맹이일 뿐만 아니라 예의와 의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조효순, 1995). 그 중 의례복식은 의례적인 특별한 날 착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입는 복식과는 다르다. 의례복식은 단순히 입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의례의 내용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정해진 복식을 따라서 착용한다. 의례복 중 혼례복은 통과의례 중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례 때 입는 옷이므로 원색과 다양한 장식물을 사용하여 의례복 중에 가장 화려하다.

민가의 전통혼례 시 신랑의 예복으로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가에서는 관복을 마련하지 못하여 세물전 등에서 빌려 입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대의(貸衣)풍속 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속으로 인하여 민가에서는 하급관리의 복색인 청단령, 녹단령을 많이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이효선, 2008).

18~19세기 문헌이나 풍속화를 보면 단령이 홍색이 많은데 당시에 홍색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자료에는 홍배 없는 홍단령 대신에 홍배가 달린 남색 단령이 새로운 형태의 혼례용 단령으로 나타난다(신혜성·홍나영, 2007). 조선 말에 홍단령을 폐지하고 흑단령으로 통일하고 홍배를 달아 품계를 표시하였는데 이 관복제도가 지금의 전통혼례복을 형성시켰다.

민가의 여자 혼례복으로는 장삼, 염의, 원삼, 활옷, 당의가 있다. 조선초기에는 장삼, 염의, 원삼 등이 혼례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조선 후기를 지나 국말에 이르러 원삼과 활옷이 민가의 혼례복으로 대중화되었다(이효선, 2008).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옛날에는 혼인에 활옷을 쓰는데, 검은 옷에 붉은 깃을 둘렀으니, 취할 만한 의미가 있다. 지금의 풍속에는 붉은 장삼을 쓰니, 심히 말 못할 일이다. 예의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활옷을 쓰는 것이 당연하니, 통속을 변화시켜 옛 것으로 돌아가는 조짐이 되었으면 한다.”고하여 신부의 혼례복으로 활옷이 쓰여야 한다고 하였다(우봉이씨대중회, 1992).

원삼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 까지 황후, 비, 빈의 소례복으로 내외 명부의 대례복으로 착용 되었으며, 황후의 황원삼, 왕비의 홍원삼, 비빈의 자적원삼, 공주와 옹주의 초록원삼 등이 있었다. 이중 초록원삼은 서민층의 혼례식에도 그 사용이 허용되었다(황경애, 1994). 그러나 조선조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만큼 공주나 옹주의 대례복인 초록원삼이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곧 공주나 옹주의 원삼에 찍혀있던 부금이나 직금이 일반인의 혼례복에는 금지되어있었고 치수 또한 궁중의 것보다 작아야 했다(조효순, 1995).

활옷은 조선시대 공주, 옹주의 대례복으로 궁중예복 가운데에서도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며 상류계급에서는 가례 때 착용하였고, 일반 서민들은 혼례 당일에만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이효선, 2008) 이처럼 일반 서민들은 평소에는 입을 수 없는 관복과 궁중예복을 혼례 때만 입을 수 있었고 혼례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서민의 신분이지만 일생에 가장 큰 의례인 혼례 때만이라도 귀한 신분이 되었다.

조선시대 혼례복이 그대로 이어져 개화기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1960년대 이후 예식장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20세기 중기까지 전통혼례가 대중적이었고 이 때 지방에 따라 차림이나 장신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을 하였고 신부는 활옷이나 원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삼은 치마와 저고리 위에 원삼을 입고 가슴에 대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으며 땡기를 앞, 뒤로 늘어뜨린다. 활옷은 치마와 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머리에는 다래를 드린 큰 낭자진 머리에 비녀를 꽂은 뒤, 족두리나 화관을 썼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혼례인 1890년 박신실양과 강신성군의 혼례에서

혼례복만은 전통의 예복을 입었다. 1915년 서울 정동교회에서 신식혼례를 행한 최활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썼다. 신문지상에 등장한 최초의 결혼식인 1920년 4월 15일 나혜석과 김우영의 서울 정동교회 신식혼례에서는 신랑이 모닝코트를 입고 신부가 면사포에 흰색 한복에 흰 버선 그리고 고무신을 신었다.

이렇게 기독교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식혼례에서는 당시 풍습과 서양문화가 절충되어 간소한 혼례복을 입었다. 일반적인 신식혼례에서 신랑은 두루마기를 입거나 양복인 프록코트를 입었다. 신부는 흰색 저고리와 치마에 베일을 쓰기도 하였으며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만을 입고 혼례를 행했다. 『신정의례편람(新訂儀禮便覽)』에서 종래의 사모관대나 원삼, 활옷 등을 혼례 시 필수예장으로 사용했었으나 그 것은 당송문관명부의 제복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의미한 것으로 오히려 치마저고리를 예복으로 착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였다(황경애, 1994). 이렇게 1935년 편찬된 신정의례편람과 1934년 제정된 의례준칙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에는 우리 고유민족문화의 말살정책 하에 혼례복의 간소화가 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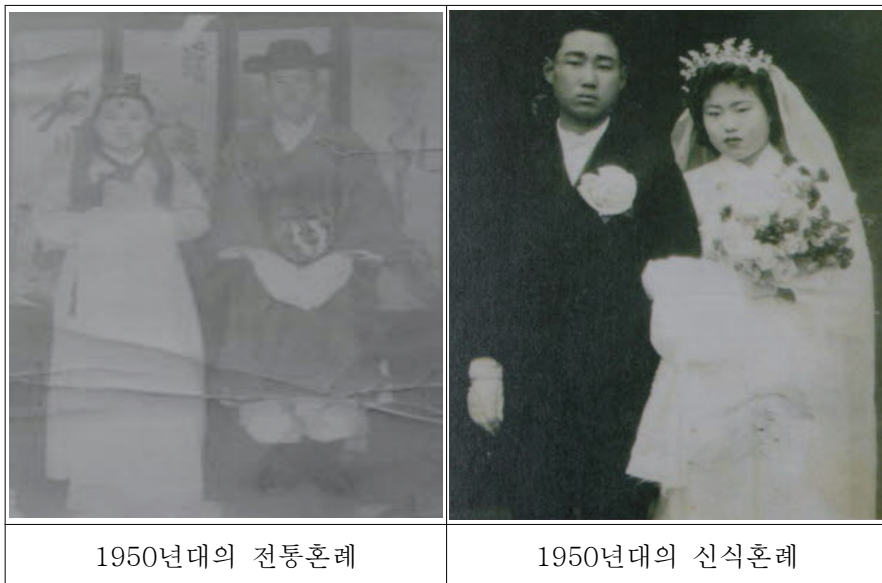
1950년대에 들어서서 퍼머넨트 머리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혼례를 올리면서 퍼머넨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앞머리만 퍼머를 하고 뒤는 쪽지는 경우도 많았다 (김진구·김순심, 1993). 퍼머넨트가 유행하면서 전통혼례복을 입는 신부도 쪽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머리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초기까지도 혼례 때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복을 입을 경우는 옛날 풍습대로 원삼과 족두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면사포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신부는 한 손에는 꽃을 드는 것이 상례였다.

신랑의 경우도 한복을 입는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었다.

1960년대 이전의 전통혼례복의 특징으로 신랑은 남색단령과 사모 아래에 복건을 착용했고 신부는 원삼에 족두리를 착용했다고 했다. 원삼 · 대대 · 앞 땡기는 대체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장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보다는 금박장식이 들어갔다(홍나영, 2000).

1940~1960년의 혼례복식은 <사진 2-1>과 같이 전통혼례를 행할 때는 신랑은 단령과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과 족두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신식혼례에서 신랑은 양복을 입고 가슴에 꽃을 꽂고 신부는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 높은 화관을 쓰고 풍성한 꽃다발을 들었다. 신부가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것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1> 1950년대의 전통혼례와 신식혼례(안혜숙·주영애·김인옥, 2002)

<사진 2-1>의 두 사진은 1950년대 전통혼례와 신식혼례사진으로 당시에 전통혼례와 신식혼례가 혼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진의 신랑신부는 현재 사돈지간이며 우측의 신식혼례사진은 6.25 전쟁 때 서울에서 살던 신랑신부가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신식혼례를 행한 것이다.

#### 4) 혼례음식

혼례음식은 혼례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의례의 의미에 맞게 차려졌고 그 음식의 대부분은 기복과 복을 나누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폐백상, 큰상인 신랑상과 신부상, 신랑 신부의 첫날 저녁상의 반상에 대해서 나온다(이길표·최배영, 2000). 폐백상에는 대추와 포가 반상에는 찹쌀밥과 미역국이 차려졌고 큰상에 차려진 음식의 종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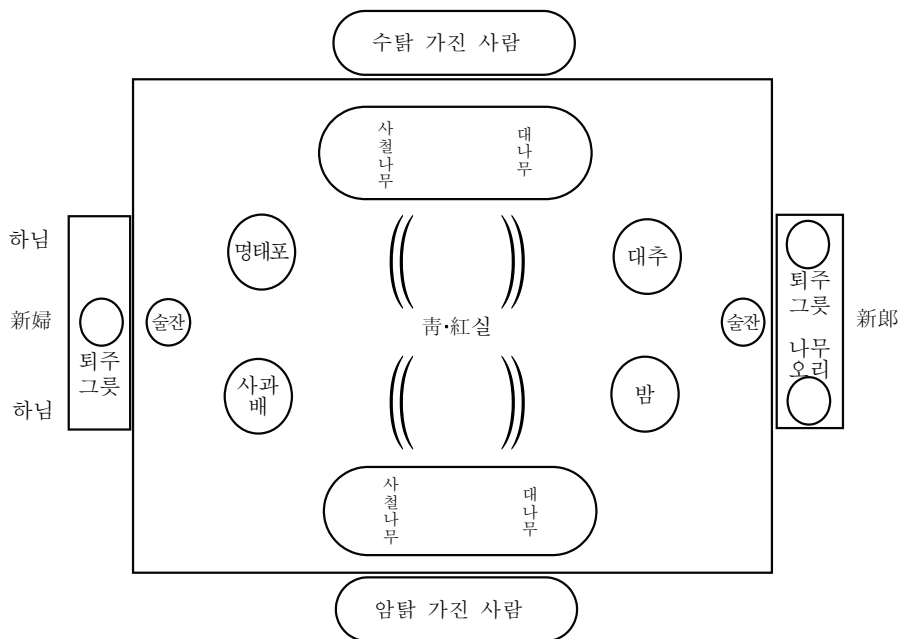
혼례음식교환은 조선시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간행된 가례서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혼례음식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날받이 떡은 납채와 납폐 사이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날받이 떡은 ‘공떡’이기 때문에 신부대의 일종이며, 정혼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속한 계층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강정원, 2010).

납폐 때에 신부집에서 함을 받기 위해 찢던 봉채떡은 신랑집에서 함을 보낼 때 함을 떡시루 위에 올려놓았다가 보낼 때도 쓰였다. 봉채떡은 봉치떡이라고도 하고 찹쌀 세 되와 팥 한 되로 두 켠을 찢고 떡 가운데에 대추와 밤을 박아서 찢는데 이 대추와 밤은 혼인 전날

신부가 먹도록 했다.

봉채떡을 찹쌀로 하는 것은 부부의 금실이 찰떡처럼 잘 화합하여 살기를 기원하는 뜻이며 붉은 팔고물은 액을 면하게 되기를 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추와 밤은 자손 번창을 상징하고 떡을 두 켤만 안치는 것은 부부 한 쌍을 뜻한다(조효순, 1995).

혼례상의 상차림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훗대두개, 소나무, 대나무 등의 사철나무와 밤, 대추 등의 차림이다. 이들 역시 풍요와 다산, 부부간의 정절을 상징하는 예물로서 이러한 특징은 농경사회 혼인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박혜인, 1988). 지방에 따라 다르나 혼례상음식에 밤과 대추 외에도 흰쌀 · 콩 · 팥 · 용떡 · 달떡을 두 그릇씩 갈라놓았다.



<그림 2-3> 충남 서산 혼례상(박혜인, 1988)

<그림 2-3>을 보면 충남 서산의 혼례상에 삼색실과, 명태포가 있다. 1890년대에 다니엘 기포드는 『조선의 풍속과 선교』라는 자신의 책에 당시에 본 어떤 혼례식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혼례상에 ‘하얀 쌀로 만든 떡 · 국수 · 김치 · 약과 · 약주 · 술 등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얀 쌀로 만든 떡은 용떡으로 추측이 된다.

상차림에서 청실홍실의 의미는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이어주듯이 신랑과 신부가 인연을 맺어 松竹 같은 절개로 변치 말고 살라는 뜻과 실처럼 명이 길어서 복을 받고 백년해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촛불은 광명의 상징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정승근, 2003).

큰상은 혼례를 마치고 신부집에서 신랑에게 차려주는 상과 우귀 후 현구고례를 행한 다음 신랑집에서 신부에게 차려주는 상이 있다. 신랑신부는 앞에 차려 놓은 입맷상의 음식만 먹고 큰상의 음식은 헐어서 사돈댁에 보내는데 이를 장반(長盤) 또는 상수(床需)라 한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돌리는 것을 ‘봉송돌린다’고 하는데 이는 복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

큰상은 생과일 · 과줄 · 떡 · 포 · 전과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색깔을 맞추어 30cm 전후의 높이로 고여 담고 상화(床花)로 아름답게 장식한다. 큰상은 높이 고인 음식을 바라만 보는 상이라 하여 망상(望床) 또는 고배상(高排床)이라고 한다. 입매상은 큰상음식을 그 자리에서 헐어 먹지 못하므로 먹을 수 있는 장국상 하나를 준비하여 신부 앞에 놓는 것을 말한다(윤서석, 2008). 이 입매상을 입맷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신부집에서의 잔치가 혼인의례의 중심을 이루었던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잔치의 중요성이 대한한 것이어서 혼례

를 치루는 집은 지금도 ‘잔치집’이라고 부르는 정도이다. 또한 혼례는 혈연은 물론 지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의식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잔치인데 일제시대 이후 피로연이라는 일본용어로 바뀐 것이다(현택수, 1999).

잔치는 경사에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해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윤서석, 2008). 우리 삶 속에서 대표적인 경사인 혼례에서 음식이 중요하다. 한국의 속담 중에 “잔치는 잘 먹은 놈 잘 치렀다 하고, 못 먹은 놈 못 치렀다 한다”는 속담이 있다. 또 “잔치에는 먹으러 가고, 장사(葬事)에는 보러 간다”는 속담도 있다. 이렇듯 잔치 중에 대표적인 잔치인 혼례에서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혼례에서 하객에 대접하는 음식으로 국수를 많이 대접했는데 국수는 길이길이 잘 살라는 뜻이 있다.

동상례는 남친연 또는 자리보기라고도 한다.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 따르면 본래 ‘남친연’은 ‘자리보기’라 하여 젊은이들이 남의 혼사를 틈타 술과 음식을 털어먹는 풍속을 이르는 말이었다(윤서석, 2008). 이런 풍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며 신랑 다루기를 하였다. 이 때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푸짐한 주안상을 내놓는데 이를 동상례라고 한다.

이바지음식의 ‘이바지’란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뜻으로 ‘이바지하다’라는 말이 어원이다(정승근, 2003). 신랑집과 신부집에서 오고가는 음식으로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을 사돈댁에 보낼 경우 이모두를 이바지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부가 신행을 행할 때 신부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신랑집에 가져갈 경우와 신부가 근친갈 때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신부집에 가져갈 경우 이것도 이바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폐백은 굵은 대추에 술을 뿌려 따뜻하게 두면 대추의 살이 부풀어 오르고 색깔이 곱게 변한다. 여기에 실백을 쫓고 다홍실에 길게 꿰어 둥근 쟁반에 소복하게 담고 근봉지로 여민다. 육포도 여러 장을 둥근 쟁반에 높이 고여 담고 근봉지로 여민다. 지방에 따라서 대추나 육포 외에 밤과 엿을 담기도 한다(윤서석, 2008). 또한 육포는 지방에 따라서 다른데 전라도는 육포 대신에 꿩폐백을 올렸고 경상도는 닭폐백을 올렸다(이춘자·김귀영·박혜원, 1997).

시아버지께는 대추폐백을, 시어머니께는 고기폐백(片脯)을 드렸다. 이 때 고기폐백에는 청·홍색의 띠를 두른다. 폐백으로 대추를 쓰는 것은 대추가 자손을 뜻하기 때문이고, 시아버지께서 대추를 던져주는 것은 아들을 낳기 바란다는 뜻이며, 시어머니께 드린 폐백을 어루만지는 것은 며느리의 흥허물을 덮는다는 뜻이다. 폐백에서 술은 사용하지 않았다(김인옥, 2008).

근친은 신부가 시집온 후 친정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인데 이 때 신부는 떡과 술을 준비해서 간다. 신부집에서는 이 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였으며 신부는 시집에 돌아올 때도 역시 같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

우리나라는 혼례라는 큰 잔치에서 떡이 빠지지 않았는데 날받이떡·봉채떡·잔치떡·근친떡 등 혼례절차에서 떡이 쓰일 때가 많았다. 지역마다 많이 쓰이는 떡이 다르지만 <표 2-3>을 살펴보면 찹쌀로 만든 인절미와 쌀로 만든 절편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3> 지역에 따른 전통혼례떡(한복려, 1999)

지역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혼 례	절편	절편	절편	절편	절편	절편	절편	절편	절편	고명떡
	송편	잔골	색떡	인절미	송편	색떡	인절미	인절미	꼬리떡	절편
	인절미	무떡	인절미	각색편	색떡	용떡		시루떡	인절미	황밀인
	약식	용떡	약식	봉치떡	꽃떡	인절미		기주떡	기주떡	절미
	각색편	인절미	각색편	기정편	용떡	약밥		우기		기주떡
	화전	작은편	찰편	주악	인절미	찰떡		경단		
	주악	화전	기주떡	화전	약밥					
	경단		경단	각색편						
			메밀전병	찰떡						
				웃지지						

혼례음식의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본 결과 혼례음식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 납폐 전의 날받이 떡, 납폐 때에 봉채떡, 혼례 때에 혼례상(대례상·동뢰상·초례상)과 큰상(신랑상),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잔치음식, 신랑신부 첫날밤인 합방례 때 주안상, 동상례 때 동상례상, 우귀(신행) 때 이바지, 현구고례 때에 폐백, 현구고례 후에 큰상(신부상), 근친 때 신부가 친정부모님께 드리는 음식 등이 있다. 혼례를 맞은 양가 집안의 여성들은 평생의례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쁜 의례인 혼례에 쓸 많은 음식을 오랜시간 정성껏 준비했다.

### 3. 충남지역 혼례문화 선행연구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중엽 충청지역의 혼례복과 혼례풍속’에 관한 연구를 한

김정자는 이 연구에서 “충청지역에서 신랑은 전통혼례 시 조선시대 백관의 평상복인 사모, 단령, 각대, 목화를 착용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상계’라 하여 동리에서 준비하여 공동으로 착용하였다. 관복의 색은 일반적으로 청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간혹 자색, 검정색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사모 밑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복건을 쓰기도 하고 단령의 받침옷은 대부분 두루마기를 입었으나 격식을 중시하는 반가에서는 도포를 입기도 했다. 신부는 모두 원삼을 갖추어 입었고 활옷이나 당의를 착용한 사람은 없었다. 극히 가난한 가정에서는 저고리·치마만 입고 혼례를 치르기도 했다. 원삼에는 대부분 죽두리를 썼는데 화관을 쓰기도 하였다. 원삼은 전통적인 초록색을 입었는데 이와 비슷한 연두색이나 옥색도 입었다. 충청지역에서는 신부가 세 번 착용한 원삼을 수의(壽衣)로 사용하면 사자(死者)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풍속이 있어 유물로 남아 있는 원삼이 적다. 신부의 머리는 대부분 제머리로 쪽을 틀고 비녀를 꽂았는데 간혹 가채를 하고 큰머리(큰낭자)를 하는 것은 당상관인 정경부인의 풍습이었다고 한다. 선행 연구된 타지역의 혼례복과 문헌 조사를 비교해 볼 때 충청지방에서는 문헌에서 보이는 화려한 수를 놓은 홍색 활옷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착용했던 당의를 착용한 예는 없었다. 전라도지방에서 보이는 청색원삼이나 경상도지역에서 저고리와 치마 위에 신랑집에서 보내 온 함속의 옷감을 어깨에 걸치거나 허리에 둘러 원삼을 대신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하였다(김정자, 20000).

20세기 중엽 충청지역의 혼례복이 사대부의 혼례복과 거의 일치하는 것은 유교적 풍습과 관직을 열망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청도가 ‘예향’인 만큼 예의 정신을 중시하고 계승하기 때문에 신랑신부가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통과의례를 치루는 지엽적 전통문

화를 이어왔다(김정자, 2000).

박혜인(1988)의 ‘대례상 차림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충북에서는 삼색실과 · 밤 · 대추 · 화병 두 개 · 용떡 · 산닭 · 산오리 · 시루떡 · 미나리뿌리를 넣은 양푼물 · 쌀 등을 놓고, 충남에서는 밤 · 대추 · 명태포 · 사과 · 배 · 수탉 · 암탉 등이 올랐다. 박혜인은 일반적으로 송죽나무가 혼례상에 올라갔는데 충남지역 혼례상에는 나무가 올라가지 않았고 타지역과 다르게 명태포가 올라갔다고 하였다.

정승근(2003)은 충청도지역의 폐백에 대해서 언급했다. 충청도에서는 폐백을 기본적인 폐백음식 외에 옛 · 갈납 · 고기산적 등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인데 3가지를 3합이라 하며, 3~7합까지를 준비하고 기수로 함이 원칙이다. 시아버지께 고기를 드리고 시어머니께 옛을 드리고 폐백에 술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본적인 폐백인 육포 · 대추 · 밤을 준비했으며, 육포 대신 닭도 많이 준비하였다. 충청지역의 이바지음식의 종류는 인절미 · 송편 · 절편 · 갈비 · 생고기 · 술 · 조과 · 산자 · 정과 · 감단자 · 전 · 과일 · 밤 · 대추 · 다식 · 건어물 · 강정 · 백김치 등이다.

이효선(2008)은 충청도 지역에서 근친을 ‘자향’과 ‘자양간다’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농촌에서 혼례일을 택할 때 농번기가 끝난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날을 잡는다. 이는 바쁜 농사철에 혼례잔치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친정에서 이제 갓 시집 간 신부가 고생할 것을 염려해서 농번기를 피한다고 한다.

이필영 외(2009)의 『한국인의 일생의례』에는 충남지역 시 · 군별 60세 이상 노인들의 일생의례에 대한 조사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분들의 혼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실려 있다. 충남지역에서 사용한 혼례에 관한 용어와 혼례절차에서 상징하는 의미들을 알 수 있는 선행

연구로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선행연구이다. 이 책에 기술된 충남지역의 혼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몇 가지 들어보면, ‘충남지역에서는 신부집에서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마당 빌려주기’라고 하였으며 초행은 ‘바향’이라 하고 재행을 ‘자양’이라 하였다. 6월과 12월은 ‘씩은 달’이라 하여 예식을 금하였고 가을걷이를 마치고 9월부터 12월 중에 좋은 날을 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함은 여러 날 전에 받기도 하지만 함을 받을 때에 작지만 잔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당일날에 받는다. 함진애비가 마당에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이 가마솔 밑의 재를 긁어서 얼굴에 바르거나 재와 함께 뿌린다. 혼례상 위의 산 닭이 앞에 놓인 곡식을 잘 먹으면 신랑신부가 부자로 백년해로하며 잘 산다고 믿었다. 쌍둥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라 하여 예전에는 함께 혼인하기도 하였다. 하객들은 부조로 실 · 두부 · 비누 · 계란 · 콩나물 등을 혼인집에 선물하였다. 혼례식을 마치고 첫날밤에 촛불을 끌 때 입으로 끄면 좋지 않다고 하여 이부자락이나 손으로 눌러서 꺾다.’와 같은 풍습이 충남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면접도구

혼례문화의 변천에 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면접 조사 연구 대상자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현재 평균 70~90세인 노인분들이다. 본 연구는 이 분들이 혼인한 시기인 1940~1960년의 혼례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인터뷰 방식의 심층면접 조사 연구를 선택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용어와 사투리를 최대한 살려 녹취하였다.

문화란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광의(廣義)의 의미로서 문화는 자연현상에 인위적 행위가 더해진 모든 것을 말한다(유태용, 1999). 그리고 문화란 의식주를 비롯하여 지식·신념·도덕·법·언어·풍습·종교·학문·예술·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 민족의 문화에는 경제문화·정치문화·종교문화·예술문화·생활문화 등의 하위문화들이 있고 이 중 생활문화에는 또 다시 그 하위문화로 의례문화가 있고 혼례문화가 이 의례문화에 속한다. 혼례문화<sup>7)</sup>란 혼례와 관련된 모든 생활양식으로 혼례에 관련된 혼례의 절차·제도·언어·복식·음식·장소·도구·미용·서식·혼수·예물 등이 혼례문화의 구성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혼례문화의 대응 중에 혼인제도, 혼례절차, 혼례복식, 혼례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조사도구인 질문지의 내용도 이를 기본으로 작성

---

7) 황경애(1994)는 혼례문화란 학습된 행동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계승되는 사회적, 역사적인 산물의 가치를 지닌 혼례행례(婚禮行禮)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였다.

면접자의 개인 · 환경적 특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혼인규정, 혼인유형, 거주규정, 혼인신고 혼인연령, 본인과 배우자의 출생지역, 중매혼인지 연애혼인지, 신혼집은 신랑집이었는지 신부집이었는지, 혼인신고는 언제 했는지를 질문하였다.

혼례의 절차를 의혼, 납채, 납폐, 초행, 예식, 합방례, 재행, 우귀, 현구고례, 근친으로 정하고 각 절차와 그에 따른 복식과 음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래서 의혼에서는 중매인은 누구인지, 간선이 있었는지, 혼사 말이 오고가고 얼마 만에 혼례를 행하였는지, 배우자를 처음 본 것은 언제인지에 대한 4문항을 질문하였다. 납채에서는 청혼서 · 사주 · 허혼서 · 연길서(택일지)는 오고 갔는지, 누가 전해주었는지, 주고받을 때 어떤 의식이나 음식이 있었는지, 혼인 날짜를 어느 댁에서 정했는지에 대해 4문항을 질문하였다. 납폐에서는 혼서지와 함은 주고받았는지, 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예단의 품목은 무엇이었는지 등 8문항을 질문하였다. 초행에서는 초례를 행하였는지,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 어떻게 갔는지, 후행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3문항을 질문하였다. 예식에서는 몇 시에 예식을 행하였는지, 흥기가 있었는지, 혼례복으로 무엇을 입었는지, 혼례상에는 무엇이 차려졌는지, 잔치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등 11문항을 질문하였다. 합방례는 기억나는 것과 신방앗보기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2문항을 질문하였다. 재행은 얼마 만에 행하였는지, 누구와 함께 행하였는지, 동상례(신랑달기)는 행하였는지에 대해 3문항을 질문하였다. 우귀는 며칠 만에 우귀를 행하였는지, 혼수가 무엇이었는지, 교통편은 어떠했는지, 큰상은 받았는지 등에 대해 5문항을 질문하였다. 현구고례는 절을 받은 분은 누구인지, 신부혼자 절을 드렸는지, 현구고례음식은 무엇인지, 의상은 무엇을 입었

는지, 조식문안은 얼마간 드렸는지 대해서 5문항을 질문하였다. 근처  
은 얼마 만에 했는지, 누가 함께 했는지, 그 때 음식은 무엇을 준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 2.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는 충남지역에서 1940~1960년에 혼인한 70~  
90세 정도의 기혼남녀이다. 조사대상으로 먼저 의례를 모범적으로 수행  
했을 종가를 찾기 위하여 충남지역의 모든 문화원과 전화 통화로 각  
지역에 종가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충남지역의 종가는 1900년대 초기  
까지는 지역사회에서 명망을 확보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일제의 억압과 1950년대의 한국전쟁 때문에 점차 종  
가의 수가 줄어들었고 1960년대의 산업화·도시화로 현재 충남지역의 대표  
할 수 있는 종가가 거의 없다. 예학의 고장인 충남지역에서 1940~1960  
년에 유교적 의례를 모범적으로 수행했을 종가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충남지역의 모든 문화원과 문화원에서 소개해준 향토사학자의 도움  
으로 조사결과 충남지역의 대표종가로 사계 김장생 종가와 초려 이  
유태 종가를 조사대상에 넣을 수 있었다. 사계 김장생과 초려 이유태는  
예학을 집대성한 스승과 제자로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이  
매우 유의하다고 본다.

총 면접대상자 30명 중에서 두 종가 외에는 충남지역의 16개 시·군  
을 나누어 지역별로 고르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문화원과 향  
토사학자의 도움으로 해당 지역의 대상자를 만나거나 각 지역의 노인  
정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만나기도 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4월 16일부터 2012년 5월 10일 까지 실시하였고  
각 면접 대상자를 1회씩 인터뷰를 하였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IV.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 분석

### 1. 면접 조사 대상자의 개괄적 분석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의 결과를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혼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면접 대상자 30명은 모두 충남지역에서 태어나고 충남지역에서 1940~1960년에 혼인을 한 남녀이다.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도 있다. 면접12과 면접13, 면접15와 면접16, 면접17과 면접18, 면접21과 면접22, 면접23과 면접24, 면접29와 면접30은 부부이다. 부부이기 때문에 혼인할 무렵 신랑이 기억하는 것과 신부가 기억하는 것이 혼례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4-1>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 번호	성별	혼인 년도	혼례 지역	출생지	배우자 출생지	출생 년도	현재 연령	혼인 연령	배우자 혼인 연령
면접1	여	1940	청양	청양	청양	1924	89세	17세	18세
면접2	여	1942	부여	부여	논산	1924	89세	19세	21세
면접3	여	1943	청양	공주	청양	1925	88세	19세	23세
면접4	여	1943	아산	아산	아산	1926	87세	18세	15세
면접5	여	1943	논산	논산	논산	1926	87세	18세	24세
면접6	여	1943	논산	논산	군산	1928	85세	16세	22세
면접7	남	1948	당진	당진	당진	1928	85세	21세	20세
면접8	여	1949	논산	부여	당진	1930	83세	20세	25세
면접9	여	1949	논산	논산	서울	1932	81세	18세	27세
면접10	남	1951	아산	예산	아산	1929	84세	23세	21세
면접11	여	1952	청양	공주	청양	1934	79세	19세	31세

면접12	여	1952	예산	아산	예산	1931	82세	22세	21세
면접13	남	1952	예산	예산	아산	1932	81세	21세	22세
면접14	남	1952	당진	당진	당진	1932	81세	21세	19세
면접15	여	1953	서천	서천	서천	1935	78세	19세	17세
면접16	남	1953	서천	서천	서천	1937	76세	17세	19세
면접17	남	1954	부여	천안	부여	1932	81세	23세	23세
면접18	여	1954	부여	부여	천안	1932	81세	23세	23세
면접19	여	1954	예산	예산	공주	1933	80세	22세	27세
면접20	여	1955	보령	보령	서천	1936	77세	20세	20세
면접21	여	1957	아산	아산	아산	1937	76세	21세	24세
면접22	여	1958	홍성	예산	홍성	1934	79세	25세	24세
면접23	여	1958	홍성	홍성	예산	1935	78세	24세	25세
면접24	남	1958	공주	공주	공주	1941	72세	18세	20세
면접25	여	1958	공주	공주	공주	1939	74세	20세	18세
면접26	남	1958	예산	서산	예산	1938	75세	21세	20세
면접27	남	1958	천안	천안	천안	1936	77세	23세	23세
면접28	여	1958	서산	서산	서산	1941	72세	18세	22세
면접29	남	1960	서천	서천	서천	1937	76세	24세	24세
면접30	여	1960	서천	서천	서천	1937	76세	24세	24세

면접2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13대 종부이다. 김장생 선생은 1548(명종3)~1631(인조9)년까지의 삶을 살았던 조선 중기 예학의 대두요, 성리학의 대가로서 학자이며 문신이였다. 김장생 선생의 13대 종부인 남양홍씨는 천정인 부여에서 혼례를 행하고 논산인 시택으로 왔다. 외갓집이 부자라서 외할아버지는 사위 7명을 모두 데리고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 말기에 일본이 패전하면서 농사지은 것을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점차 일본의 강탈이 심해졌다. 이로 천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위안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혼인을 서두르게 되었다. 혼인할 무렵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혼례도 매우 어렵게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예물과 예단도 없고 광목이 없어서 이불과 옷도 혼수로 못해올 정도였고 큰상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 후손 고택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 후손 고택의 가채  
 <사진 4-1>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 후손의 고택 전경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 사당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 묘소(上)  
 <사진4-2> 논산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당과 묘소

면접24와 면접25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제자인 초려 이유태 선생의 12대 종손과 종부이다. 초려 이유태 선생은 1607(선조40)~1684(숙종 10)년까지의 삶을 살았고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종손인 면접24와 종부인 면접25의 혼인은 신부집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 한 쪽으로 기우는 혼인이었다. 혼인할 당시 신랑의 집안 살림이 매우 어려웠고 연안이씨인 신부의 집안은 잘 사는 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혼례를 행할 때는 큰 잔치였고 신랑에게 큰상을 차려주었으며 혼수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신랑집에서는 돼지 한 마리 잡은 것도 매우 힘들게 준비한 것이고 신부의 큰상은 신랑의 큰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신부의 혼수를 시누이들이 함께 입을 정도였다.

신랑과 신부는 모두 공부에 욕심이 있었지만 신랑은 할아버지가 해방이후에도 일본식교육이 남아있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아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단다. 신부도 공부를 매우 하고 싶었지만 친구를 따라서 학교에 갔다가 오빠에게 크게 혼나 학교에 다니질 못했는데 시집오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오라버니택에게 한자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한다.

붓장사인 중매인을 통해 혼인이 성사되었고 혼례는 성리학자인 초려 이유태 선생의 종가집인 만큼 매우 유교적인 가례에 혼례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 사당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 고택 교육장

<사진 4-3>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의 사당과 교육장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 고택 외관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 고택 입구

<사진 4-4> 공주 초려 이유태 선생 고택의 전경

## 2. 혼인제도의 분석과 특징

### 1) 혼인제도의 분석

#### ① 혼인규정

면접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한 <표 4-1>을 보면 혼인 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혼인연령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조혼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이미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1937년 이후 조혼은 일본의 강제 동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더욱 심해졌다.

일제 말기인 1940년대 초에는 강제 징용과 강제 동원을 피하기 위하여 15세와 16세에도 혼인을 하였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서 했다. 이 때문에 1942년에 혼인한 면접2와 1943년에 혼인한 면접4, 6은 혼인을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 혼인은 당시 일본군의 모집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님이 정한대로 2~3개월 만에 서둘러 혼례를 행하였다.

“우리네 17세, 18세 정도에 왜놈들이 장치고 살았어. 그 시절에 보급대라고 있어. 남자고 여자고 이용했었어. 여자들 보급대라는 데를 보낸다고 허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꼴 보기 싫다고, 끌려가는 거 보기 싫지 왜놈들한테. 그렇다고 시집을 일찍 보냈어. 옛날에는 일찍도 아닌디 부부지간이는 삼년 차이였어. 바깥어른이 삼년 덜 잡혔었어. 그래도 그냥 했다고. 빨리 보내려고 나이도 따질 것 없이. 또 바깥어른 엄마가 얼른 장가들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어.”(면접4)

“그 때 일본 북해도로 끌려갔어. 일본 놈들이 모집해갔잖아. 그래서 시집간 사람은 안 데려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은 데려가니까 그래서 일찍들 결혼했지. (남편은요?) 일본놈들이 군인 끌려가려고 하니까 여기로 피난 온 거여. 모집 안 갈려고 피난 온 셈이여.”(면접6)

“왜그렇게 조혼 풍조가 있었느냐 하면은, 왜정말기에 혼인 안한 처녀들 붙잡아가고 그랬잖어.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제 짝을 채워놓으면 안테려 간다 그거여. 그래서 보통 일찍 지낸 사람은 우리 어려서 열댓살 먹어서 시집간 사람이 많아. 왜정 때 위안부니 뭐니 해서 끌려간 게 하나들이 아녀. 그런게 조혼해서 짝 맞춰줘야 할거아니여. 우리 선조도 여기와 처음살적에 조상할아버지 스물다섯에 혼인하셨어.”(면접23)

혼인할 양가에서는 혼인 상대자를 고르기 위해 먼저 양가 집안의 물리적인 거리를 살피고 다음으로는 혼인 의사가 있는 양가는 서로 상대 집안의 내력을 살핀다. 집안의 성과 본관이 무엇이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어떻고, 가풍은 어떤지 등 세세히 살핀다.

“혼인을 이루자면 우선 가품보고 그리고 인품보고 그 다음에 재산보는다. 그 때 만해도 아무데나 혼인을 안해요. 무변이나 문변같은 양반은 혼인할 성씨가 고정되어 있고 높은 집안하고 낮은 집안하고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옛날부터 통혼할 성씨가 결정되어 있어유. 그렇게 그 때도 계급이에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렇지. 신랑 신부는 권한이 없어유.”(면접7)

1948년에 혼인한 면접7은 신분과 성씨를 보고 통혼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혼인 상대자를 결정하였다.

면접조사 결과를 혼인 양가의 거리에 대한 통혼권으로 분류하면 도외 혼인 면접6, 9를 빼고는 모두 도내혼과 군내혼이었다. 면접24는 친정이 공주 상황동이고 시댁이 공주 이인면으로 군내혼이고 50리 떨어졌다. 면접3은 친정이 공주 신평면이고 시댁이 청양 정산면이어서 도내혼으로 40리 정도 떨어졌다. 1954년에 혼인한 면접17은 처가가 부여이고 본가가 천안이어서 도내혼으로는 거리가 가장 멀었고 초행을 행할 때 버스를 세 번 갈아탄 후 걸어서 갔는데 신부집에 도착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혼인의 물리적인 거리가 교통수단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혼권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때 일수록 좁고 교통수단이 발달될수록 넓어진다고 말 할 수 있다. 면접 대상자들이 혼례 때 이동수단으로 도보로 가거나 가마를 탔으며 일부는 기차, 버스, 택시, 트럭, 인력거, 자전거도 이용할 정도로 교통수단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1940~1960년의 충남지역에서는 통혼의 거리가 좁아 도내혼과 군내혼이 더 많았다고 본다.

## ② 혼인유형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혼례형태, 혼례장소, 혼인유형, 거주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통혼권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혼례형태, 혼례장소, 혼인유형, 거주규정

내용 면접	혼례형태	혼례장소	혼인유형	거주규정	비고
면접1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종부
면접3	전통	신랑집마당	중매	부거제	재혼
면접4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5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6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모거제	
면접7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8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신거제	
면접9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신거제	

면접10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1	전통	신랑집마당	중매	부거제	재혼
면접12	전통	신랑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3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4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5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6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7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8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19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신거제	
면접20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1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2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3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4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종손
면접25	전통	신부집대청	중매	부거제	중부
면접26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7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28	전통	신랑집마루	중매	부거제	
면접29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면접30	전통	신부집마당	중매	부거제	

<표 4-2>을 보면 면접 모두 중매인을 통해 혼인이 성사되었다. 중매인을 남자인 경우는 보통 ‘중신애비’라고 부르고 여자인 경우는 ‘중신애미’· ‘중신할미’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의 중매인이 남성인 ‘중신애

비'였다.

양가를 잘 아는 마을 사람이나 또는 친척 중에 양가를 오가며 중매인이 되는데 친척이 중매인인 경우가 더 많았다. 면접23의 중신아버지는 양가를 오가며 붓을 팔던 붓장사이다. 붓장사는 50리 떨어져있는 같은 학자집안을 사돈 맺게 했다. 면접1은 당고모가 중매인인데 당고모가 시댁의 조카와 친정 조카를 혼인하게 해서 당질녀를 당질부로 삼았다.

논산에서 사는 면접6은 군산에서 사는 6촌 올케의 중매로 군산에서 사는 신랑과 혼인을 하였다. 천안에서 사는 면접17은 부여에서 사는 외삼촌의 중매로 부여에서 사는 신부와 혼인을 하였다. 이렇게 양가의 거리가 먼 경우는 중매인이 집안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 ③ 거주규정

거주규정은 혼례를 행한 후에 신혼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거제, 모거제, 신거제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가 혼인을 하면 신랑 집으로 들어가 사는 부거제였다. <표 4-2>를 보면 면접8, 9는 신랑의 직장 때문에 신거제인 경우이다. 면접5, 19는 신랑의 부모가 없어서 신거제인 경우이다. 유일하게 면접6만 모거제였다. 면접6은 논산이 친정이고 시댁은 군산인데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였다. 남편의 형제는 7형제였는데 시댁에서 아들들이 일본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논산이 친정인 마을 사람(신부의 6촌 올케)을 통해 군산에서 조금 멀리 논산으로 장가를 보냈다. 친정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사위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시댁에서도 피난 보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다.

조사한 결과로 보면 1940~1960년의 충남지역의 거주규정은 혼례를

행한 후에 신부가 시부모가 계시는 신랑집으로 들어가는 부거제가 일반적이었다.

#### ④ 혼인신고

1913년 조선민사령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 혹은 신고주의였으므로 1940~1960년에는 혼례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는 혼례 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일부는 첫 아이를 낳을 때 짬 혼인신고를 하였다.

“쫓겨올까만이 1년 살고 혼인신고 하고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쫓겨가는 사람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격식을 그렇게 했지.”(면접1)

면접1은 혼례 후 일 년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면접3의 신랑은 초혼하고 일 년 만에 헤어지고 면접3과 재혼을 했다. 당시에 혼례를 행한 후 바로 혼인신고하기 보다는 일 년 짬 지나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 면접 대상자 중에는 혼인신고를 언제 하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혼인신고를 주로 남편이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혼인제도의 특징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인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혼인연령은 1940년대 중기까지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과 강제 동원을 피하기 위하여 15세와 16세에도 혼인한 조혼도 많았다. 또한 혼인할 양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통혼권은 대부분 도내혼과

군내혼이었다. 통혼권은 양가의 거리와 교통수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1940~1960년의 충남지역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고 당시에 개인 소유의 차를 가진 면접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에서는 대부분 가까운 면, 군, 이웃군에 사는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그리고 일부 면접 대상자에 의하면 혼인할 상대를 고를 때 통혼이 가능한 성과 함께 신분을 보았다고 한다. 이로 보아 당시까지도 신분차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유형은 모든 면접 대상자가 중매로 혼인을 한 중매혼이었다. 혼인은 양가를 잘 아는 친척이나 마을 사람과 같은 중매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대부분 중매혼이라서 신랑신부는 예식 때 혼례상에 앉아서 처음 보았다.

거주규정은 신랑의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나 신랑의 직장을 따라서 신거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거제였다. 혼인을 하면 신부가 신랑집에 들어가 사는 부거제라서 신부가 본인이 입을 옷 외에는 다른 혼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면접 대상자가 많았다.

혼인신고는 법률혼주의와 신고주의였기 때문에 혼례 후 바로 신고하였거나 첫 아이를 낳기 바로 전에 신고하였고 혼례 후 일 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 3. 혼례절차의 분석과 특징

#### 1) 혼례절차의 분석

##### ① 의혼

의혼은 혼인의 첫 단계로 혼인을 의논하는 일을 말하며 중매인이 양가를 왕래 하면서 양가의 의견을 알아보고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 당시에 혼인유형이 연애보다 중매가 우세하였으므로 중매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양가 집안을 잘 아는 이웃이나 친척이 중매를 해서 신랑신부자리가 정해지면 양가를 대표해서 부모나 집안 어른이 선을 보는데 이를 간선이라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선보러 간다고 하는 걸 내가 못가게 했어.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면 딸 준다고 해놓고서는 술깨면 딸 안준다고 그런 소리하면 듣기 싫어서 신랑 잘 얻고 못 얻는 것은 내 팔자니깐 못가게 하니깐 안가시대.”(면접3)

“그 때 우리네 결혼식은 부모님들 중매쟁이 통해 사주 쓰라고 하면 쓰는 거여. 그리고 그냥 얼굴도 못 보고 사진도 못 봤지요. 겨울이 중매를 해서 가서 규수 간선은 봤시요. 우리 재종고모가 가가지고. 거기 갔다왔는디, 누가 그랴. 어려서지만 웃기는 애기네. 저고리를 벗어서 뒤짚어 쓰고 자면 마누라가 뵈다나. 아 그거 안만 써도 안뵈여.”(면접23)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스물셋. 아주 옛날 노처녀였지. 그 때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그렇게 갔어요.(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늦게 시집보냈어. 골르느냐고 그랬지 뭐. 선보고 갔다오면 틀리고 선보러 갔다오면 틀리고. 계속 그래갖고. (누가 선을 봐요?) 우리 할아버지. 손자사위 필체검사까지 다하면서 선봤테요.”(면접18)

면접16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으로 이웃 마을에 사는 두 여성을 간선 본 후 파혼을 하였다. 한 여성은 얼굴이 붉어서 파혼을 하였는데 얼굴 붉은 사람은 상부하기가 쉽다는 말 때문이었다. ‘상부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부부의 인연이 짧고 남편이 일찍 죽게 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면접16과 같은 마을에 살던 이 여성의 남편이 혼인 후 바로 농약을 품다가 죽었다.

면접조사결과를 혼례 준비기간으로 정리해보면 혼인 말이 나오고 중매인이 양가를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식이 행해지는 시점까지는 일반적으로 2~3달이었지만 빠른 경우는 면접11처럼 10일 만에 예식을 행한 경우도 있는데 면접3, 11은 신랑이 재혼이라 더욱 서두른 경우이다. 면접20은 음력 3월의 혼례를 위해 전 해부터 쌀과 참쌀을 농사지어 준비하고 감을 말려서 곳감을 준비하고 밤과 대추 등을 준비하느라 혼례준비를 1년 정도 했다. 이에 혼례 준비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례 때 쓸 음식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혼례 준비기간에 상관없이 면접6, 8, 9, 14 외에는 신랑 신부가 혼례 준비기간에 얼굴 한 번 못보고 예식 날 혼례상 앞에서 살짝 엿보았다. 면접6은 혼례 전에 신랑의 사진을 보았으며 면접8, 9, 14는 예식 전에 한 차례 맞선을 보았다.

## ② 납채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납채와 납폐에 관련된 사주여부, 택일서여부, 혼서지여부, 함여부, 함 전달 시기, 함 물품(채단, 예물)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납채와 납폐

면접	내용		사주 여부	택일서 여부	혼서지 여부	함 여부	함 전달 시기	함 물품(채단,예물)
	면접	내용						
면접1	여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2	여	○	○	○	○	○	혼례전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3	여	○	×	○	×	×	×	×
면접4	여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두 벌 감, 은비녀, 은반지
면접5	여	○	○	○	○	○	혼례전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6	여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두 벌 감, 치마-저고리 한 벌
면접7	남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8	여	○	×	○	○	○	혼례전날	치마-저고리 두 벌
면접9	여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시계
면접10	남	○	△	△	○	○	혼례며칠전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11	여	○	×	×	×	×	×	×
면접12	여	○	○	○	○	○	혼례보름전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13	남	○	○	○	○	○	혼례보름전	치마-저고리 한 벌 감
면접14	남	○	○	○	○	○	혼례3일전	치마-저고리 세 벌 감, 18금 반지
면접15	여	○	○	○	○	△	△	치마-저고리 한 벌 감, 은반지
면접16	남	○	○	○	○	○	△	치마-저고리 한 벌 감, 은반지
면접17	남	○	○	○	○	○	혼례날	치마 두 벌 감, 저고리 한 벌 감, 금반지B돈
면접18	여	○	○	○	○	○	혼례날	치마 두 벌 감, 저고리 한 벌 감, 금반지B돈
면접19	여	×	×	×	×	×	×	×
면접20	여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한 벌
면접21	여	○	○	○	○	○	혼례며칠전	치마-저고리 두 벌
면접22	남	○	×	○	○	○	혼례며칠전	치마 한 벌 감
면접23	여	○	×	○	○	○	혼례며칠전	치마 한 벌 감
면접24	남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두 벌 감
면접25	여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두 벌 감
면접26	남	○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두 벌 감

면접27	남	○	○	○	○	혼례전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금반지
면접28	여	○	×	×	×	×	치마-저고리 두 벌
면접29	남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치마-저고리
면접30	여	○	○	○	○	혼례날	치마-저고리 한 벌 감, 치마-저고리

△: 기억이 안남

<표 4-3>을 보면 혼담이 오가는 양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함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주가 오가는 것은 빼놓지 않았다. 혼인하기로 양가에서 합의하면 가장 먼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보냈다. 신랑의 부모가 모두 안 계신 면접19 외에는 사주는 반드시 보냈고 함과 마찬가지로 택일서와 혼서지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의혼에서 오가던 청혼서나 허혼서가 모든 면접에서 오고가지 않았으며 이 청혼서와 허혼서라는 용어를 모르는 면접 대상자가 많았다.

“날까지 다 잡아 왔데유. 싸리나무로 집어갖고 빨간 보자기로 싸서 가져왔는데 혼서지까지 다 가져왔더라니께. (누가 들고 왔어요?) 그 때는 신랑이 왕래를 안 했잖어. 중신애비가 갖고 왔대. 아침먹고 왔다는디 햇떡 떨어지니께 들어왔데 뭘. 사주알랑 날택일알랑 다 가져왔데.”(면접3)

조사결과 많은 면접에서 면접3처럼 사주와 택일지를 양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매인이었다. 또한 면접3과 <사진 4-5>와 같이 사주를 보낼 때는 싸릿대를 반으로 갈라 사주 봉투 위에 끼우고 청실홍실을 걸었다.

<p>납채서와 사주</p>	<p>사주보자기</p>
<p>사주봉투</p>	<p>사주</p>
<p>사주</p>	<p>사주와 싸릿대</p>

<사진 4-5> 사주와 납채서(1958년, 면접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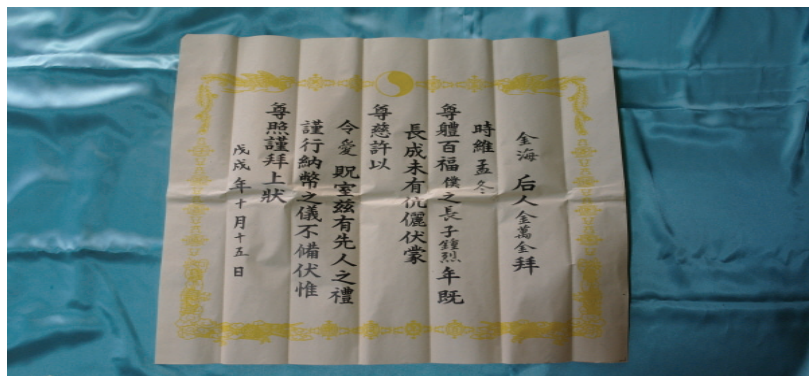
그리고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사주를 주고받을 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주를 신랑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고 중매쟁이가 전해주었고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부모가 받았기 때문에 신랑신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면접29는 신랑이 사주를 신부집에 직접 가지고 갔고 이를 기념으로

이 날 사진관에 가서 <사진 4-6>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약혼 사진이라고 하였다. 면접29는 신랑의 사주를 신부집에 전해주었을 때 신부집에서 사주를 받는 순간 혼인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양가에서 신랑의 사주를 주고 받은 절차 자체가 바로 약혼이라고 하였다.



<사진 4-6> 약혼사진(1959년, 면접29)

<사진 4-5>를 보면 사주와 납채서가 함께 있다. 사주를 보낼 때 사주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다하여 납채서를 함께 보내기도 한다. 면접21은 사주와 납채서를 한 보자기에 쌓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4-7> 납채서(1958년, 면접22)

<사진 4-7>의 납채서식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김해 ○○○ 사뢰옵나이다.  
孟冬(초겨울) 계절에  
삼가 귀댁의 만복을 비오며  
저희 장자 ○○이 나이 이미 장성하나  
아직도 배필이 없던 중  
귀댁에서 허락하시어 귀댁 ○○를  
나의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여기에 선인들의 예에 좇아 삼가 납채를 보내오니  
예를 갖추진 못하였으나 앞드려 생각하며  
귀하께 삼가 올립니다.

1958년 10월 15일

<사진 4-7>은 인쇄된 납채서에 신랑 신부의 이름과 월일을 적은 것으로 보아 1950년대 후반에 납채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 집안에서는 이렇게 인쇄된 납채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조사결과를 예식 날을 신부집에서 잡았는지 신랑집에서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면접3, 4, 6, 28, 29, 30은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였고 나머지는 신부집에서 택일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부집에서 예식 날을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만드시 신부집에서 택일 하느디. 그 여자의 생리날짜로 해서 만드시 신부어머니가 정하는 거여. 옛날 어른들은 머리가 비상했다고 봐야지. 옛날에는 귀중한 게 생산이여. 가정에서도 식구 많아야 했어.”(면접7)

면접7에 의하면 예식 날을 잡을 때 신부의 가임시기를 맞추어 신부집에서 잡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결과를 예식을 행한 달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음력9~10월에

예식을 행한 면접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음력3~4월과 음력 11~12월이 많았다. 그러나 5~8월에 예식을 행한 면접 대상자는 전혀 없었다.

“그 때는 가을 겨울에 주로 많이 했어요. 봄 결혼은 드물었어요. 대개 가을 겨울에 했어요. (요즘은 봄가을에 제일 많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봄은 그 때만해도 춘궁기라 어렵잖아요. 그런게, 가을에 하면 가을에는 곡식 다 거둬들이고 나서 그때 아무래도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면접16)

면접16에 의하면 봄의 보릿고개와 여름을 피하고 추수가 끝난 후 살림이 넉넉하고 바쁘지 않을 때 택해서 예식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납폐

함은 예식에 앞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표 4-3>을 보면 예식 3일 전에 전하기도 하지만 많은 면접 대상자가 예식 전날이나 예식 당일 아침에 함을 주고받았다.

“그 날 함들이고, 오리가 있거든. 함들일 적에는 오리를 떡시루 놓고 했지. 거기다가서는 신랑이 절을 해. 떡시루에다.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서는. 그 이튿날은 초례상 손봐 놓고서는 절하지. (전안례를 함들어올 때 해요?) 전안이라는 것은 함 들어오는 날 하는 거여. 그런게 납채라고 함 오는 날이 말하자면 초례날 보다 더 지금말로다 푸짐하다고 해야 할라나 웅장하다고 해야 할라나. 그 날 채단 받고 함 오는 날이 중요하잖아. 당일치기 하는 사람은 그 날 하고, 전날 오는 사람은 오는 날 하지. 거기에 혼서지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여 함 받는 날이. 절하는 날보다. 절하는 것은 자기네 내외 인연을 맺는 다는 식이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식이여.”(면접2)

“(함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치마저고리 감 그거여. 옛날에는 금이 없었지. 은반지, 은비녀를 받았지. 그래도 신랑이 좀 잘 살아서 받았어.(치마저고리는 얼마나 받았어요?) 한복을 해 입히고서도 함에다가 치마감 두필인가 넣었었나 봐.”(면접4)

면접2는 함을 예식 전날 받았는데 예식 날보다 더 푸짐하였다. 이로 보아 <표 4-3>과 같이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이 함을 예식 전날이나 예식 당일에 주고받은 것은 신부집에서 함을 받는 잔치와 예식 날 잔치를 따로 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접4는 함 속에 채단 외에 은반지와 은비녀가 들어있었다. <표 4-3>을 보면 함 속에 든 것이 대부분 채단으로 신부의 옷을 한 두 벌 만들 옷감이 전부인데 일부 집안형편이 좋은 신랑집에서는 채단 외에 은반지 또는 금반지를 넣기도 하였다. 당시에 이렇게 신부가 은반지나 금반지를 받으면 마을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면접30의 함 속에는 신부의 옷 한 벌 만들 옷감과 바느질이 다 된 신부의 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바느질이 된 옷은 예식 날 입으라고 함이 들어오자마자 신부에게 주었다. 면접17은 채단을 홀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치마 두 벌 감과 저고리 한 벌 감을 넣었고 면접27도 같은 이유로 치마 · 저고리 한 벌 감을 넣었다.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예단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예단의 범위와 품목

면접	내용	예단 여부	예단범위	예단품목
면접1	여	○	시부모,시할아버지	버선 3켢레
면접2	여	×	×	×

면접3	여	×	×	×
면접4	여	○	시부모,시부모형제	버선
면접5	여	×	×	×
면접6	여	×	×	×
면접7	남	○	시부모,시부모형제	버선,양말
면접8	여	○	시부모	시부모 옷 한 벌씩, 이불 한 채
면접9	여	×	×	×
면접10	남	△	△	△
면접11	여	×	×	×
면접12	여	×	×	×
면접13	남	×	×	×
면접14	남	×	×	×
면접15	여	○	시어머니,시할아버지,시부모형제	시어머니 치마·저고리, 가족 버선
면접16	남	○	시어머니,시할아버지,시부모형제	시어머니 치마·저고리, 가족 버선
면접17	남	×	×	×
면접18	여	×	×	×
면접19	여	×	×	×
면접20	여	○	시어머니	시어머니 치마·저고리
면접21	여	○	시부모	이불, 버선
면접22	남	×	×	×
면접23	여	×	×	×
면접24	남	×	×	×
면접25	여	×	×	×
면접26	남	×		×
면접27	남	△	△	△
면접28	여	×	×	×
면접29	남	○	시부모,시부모형제	시부모 옷 한 벌, 친척들 양말과 버선
면접30	여	○	시부모,시부모형제	시부모 옷 한 벌, 친척들 양말과 버선

△: 기억이 안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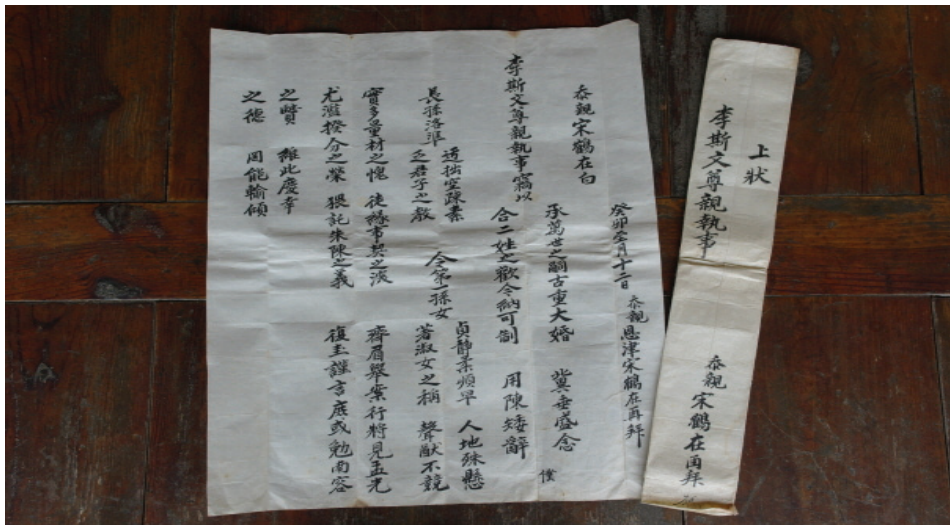
면접조사 결과 예단을 하지 않은 면접 대상자가 많았는데 면접18, 25는 친정이 잘 살아서 혼수를 많이 해왔어도 예단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 피박 버전. 옛날에는 피박 버전이라고 버전이여. 그 전에는 버전이라야 광목으로 버전지어서.”(면접4)

예단을 한 일부 면접 대상자는 예단의 범위가 주로 시부모와 시조부모 정도이고 품목은 버전이 가장 많았고 시어머니 옷 한 벌이나 이불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다.

모든 면접 대상자는 함을 주고받을 때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

함이 신부집에 들어갈 때 면접1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함 속에 혼서지를 넣었다. 면접조사 중에 면접24의 집에서 혼서지 두 개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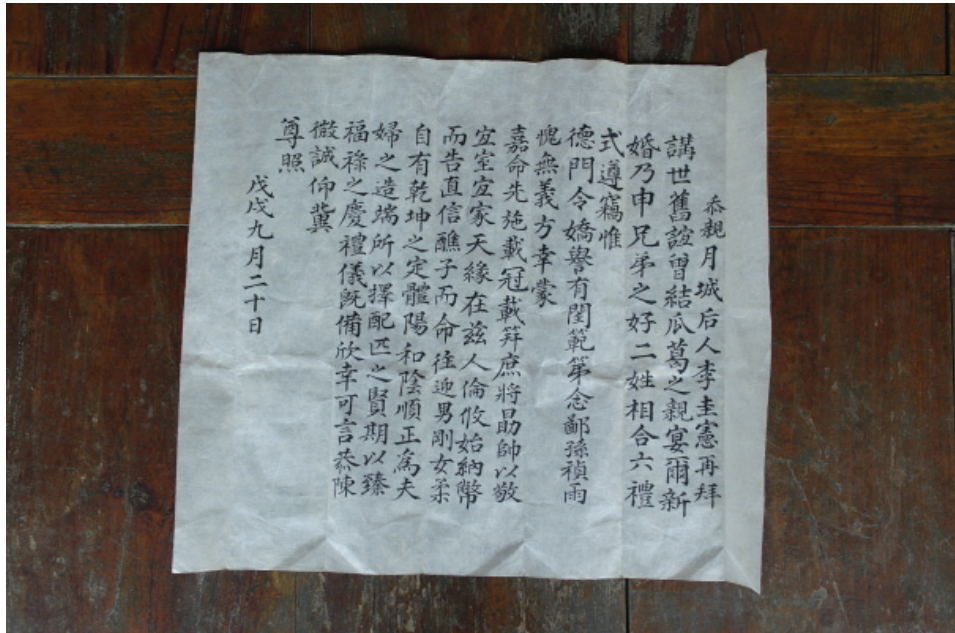
<사진 4-8> 혼서지(1963년, 면접24의 매부)

<사진 4-8>의 혼서지는 면접24의 매제 혼서지인데 초려 이유태 선생의 종손 면접24가 풀이 한 것을 다음과 같이 녹취하였다.

1963년 동짓달 12일 첩친 은진 ○○○ 거듭 절을 올립니다.  
첩친 ○○○ 사뢰옵나이다.  
이사문 존친 집사님, 생각하건데  
대를 잇게 하려면 옛 부터 혼인을 중대하게 여기므로  
성님을 받아들여  
두 성이 합치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손 ○○은  
사람이 잘 생기지 못하고 옹졸하며  
군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귀댁의 장손녀는  
곧고 고요하고 부드럽고 순하며  
일찍부터 훌륭한 규수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는 데는 비록 다르나  
훌륭하다는 명성을 들어 압니다.  
실상 많은 재목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두 집이 서로 혼인을 연줄로 이어왔으며  
계하는 것이 깊은 뒤에 인연이 되었습니다.  
외람되게 또 주진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규수는 행하는데 장차 옛날 맹광의 어짐을 볼 수 있고  
말을 삼가 고하매  
장차 손자는 옛날 남용의 덕을 힘쓸 것입니다.  
오직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은  
기울지 않고 양가의 다 좋은 일로 되었습니다.

- 至月 : 동짓달
- 忝親 : 자신을 낮추어 부를 때
- 斯文 : 상대를 높여 부를 때
- 朱陳 : 혼인

- 孟光 : 어질고 착하며 남편을 존경하고 내조를 잘 했음
- 南容 : 책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공자가 조카 사위로 삼았음



<사진 4-9> 초려 이유태 선생 종손 혼서지(1958년, 면접24)

<사진 4-9>의 혼서지는 면접24의 혼서지인데 초려 이유태 선생의 종손 면접24가 풀이 한 것을 다음과 같이 녹취하였다.

첨친 경주 후인 ○○○ 두 번 절을 올립니다.  
 대대로 양가로 두터운 관계로 교류가 있었고  
 일찍이 혼인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신혼을 다 축하하며 형제의 좋음을 다 피고  
 두 성이 서로 합하여 혼인을 치룹니다.  
 생각하건데  
 덕스러운 가문의 딸은 미리부터 규범이 있으나

우리집 비손 ○○는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돈댁의 허락이 떨어져서 혼인을 하니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다 편안해야 합니다.  
 하늘의 인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폐는 서로 신용을 지키는 것이요,  
 초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을 부어주고  
 가서 훌륭한 배필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천적으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럽고  
 부부가 화합하는 것의 처음 시작은 배필을 가리는 것입니다.  
 혼인 준비가 다 잘 되었습니다.  
 부럽고 다행한 것을 얼마나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제 미미한 정성을 베풀어서 글 몇 자를 올리니  
 비추어 한 번 받아주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1958년 9월 20일

- 月城 : 경주의 고향
- 六禮 : 혼례
- 竊惟 : 생각하건대
- 瓜葛之親 : 오이와 칩처럼 뒤엉키는 것

“혼서지에 근봉이라는 걸 세 개를 하면은 빼가지고서. 신랑이 전안하러 오면 거기  
 기러기보에다 하나는 쓰고, 하나는 신부 치마 웃고름에다 묶어요. 하나는 어따  
 쓰나 모르겠어.”(면접24)

면접24에 의하면 혼서지의 근봉 띠 세 개를 혼례에서 사용하였는데

하나를 기러기를 묶는 보자기에 쓰고 하나는 혼례 때 신부의 치마끈에 묶었고 나머지 하나는 부부 모두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부부가 기억 못하는 그 나머지 하나의 근봉 띠는 <사진 4-10>에서 보이는 것처럼 면접24의 혼서지 봉투에 근봉 띠 하나가 둘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혼례 때 쓰이지 않은 그 나머지 하나로 추정된다.



<사진 4-10> 혼서지 봉투와 근봉띠(1958년, 면접2)

④ 초행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초행과 예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초행과 예식

면접	내용		초행 후행 (신랑후행)	초행 교통편	예식 월일 (음력)	예식시간 (오전)	홀기 여부	사진 여부
	초차례 초녀례 여부							
면접1	여	×	신랑아버님	가마	10월28일	11시~12시	○	×
면접2	여	×	신랑아버지	가마	9월9일	11시	×	×
면접3	여	×	×(신랑집에서혼례)	×	11월9일	8시	×	×
면접4	여	×	신랑큰아버지	가마	9월7일	점심 전	×	×

면접5	여	×	친구들(시부모 안계집)	도보	11월18일	12시	×	×
면접6	여	×	신랑아버지	말	2월14일	11시	×	×
면접7	남	×	신랑아버지	자전거	3월20일	10시	×	×
면접8	여	×	신랑아버지	△	9월20일	점심 전	×	○
면접9	여	×	신랑아버지와작은아버지	△	4월10일	12시	×	×
면접10	남	×	×	도보	3월	점심 전	×	×
면접11	여	×	×(신랑집에서혼례)	×	3월6일	점심 전	×	×
면접12	여	×	×(신랑집에서혼례)	×	9월6일	10시	×	×
면접13	남	○	×(신랑집에서혼례)	×	9월6일	10시	×	×
면접14	남	○	신랑아버지	도보	10월18일	11시	○	
면접15	여	×	신랑할아버지	가마	11월26일	11시	×	×
면접16	남	○	신랑할아버지	가마	11월26일	11시	×	×
면접17	남	○	신랑아버지	버스	4월6일	10시	○	○
면접18	여	×	신랑아버지	버스	4월6일	10시	○	○
면접19	여	×	×	트럭	11월8일	11	×	×
면접20	여	×	신랑아버지	트럭	3월10일	10시	×	×
면접21	여	×	신랑친구들	도보	9월	11시	×	×
면접22	남	×	신랑당숙	기차	10월25일	11시	×	○
면접23	여	×	신랑당숙	기차	10월25일	11시	×	○
면접24	남	○	신랑할아버지	트럭	9월20일	점심먹고	○	×
면접25	여	×	신랑할아버지	트럭	9월20일	점심먹고	○	×
면접26	남	×	신랑아버지	트럭	9월	11시	×	×
면접27	남	×	신랑작은아버지	택시	2월	11시	×	×
면접28	여	×	×(신랑집에서혼례)	×	2월12일	10시	×	×
면접29	남	○	신랑아버지	도보	9월14일	10시	×	×
면접30	여	×	신랑아버지	도보	9월14일	10시	×	×

△: 기억이 안남

“나는 결혼하기 전에... 에구 그런게 주술적이지. 마당에다가 집을 띄놓고서 물을 한동이 떠 놓고서 절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고서. 결혼하려 나갈 때 할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고 절하고서 다녀왔지요.”(면접16)

“(초차례를 하셨어요?) 하지유. (언제했어요?) 가는 날. 절하는디도 순서가 있어유.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 날은 어머니 아버지부담 해유. (부모님 가르침이 있었어요?) 순서를 교육시키지유. 전안드리는 것도..., 목안 기러기 있잖유. 목안 보에다 싸서 머리가 좌측으로 닿게 하고선 절은 보통절이 아니고 큰절이니께. 그 절 두 번하는 것. 그런 것 가르치지유. 절하는 것도 큰절은 그냥 허리 꾸부리는게 아니고 읍하고 앉아서 절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냥 보통절하고는 틀리니까. (그 날 아침예요?) 전날해야지유. 그런 건. 그날 아침에는 바쁘니까.”(면접24)

신랑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부집에 가는 것을 초행이라고 하고 신랑과 신부는 예식을 행하기 전 초례를 행한다. 면접12, 13, 16, 17, 24, 30은 초례를 행하였고 일반적으로는 초례를 행하지 않았다.

신랑이 초행을 행할 때 동행하는 사람을 후행이라고 하는데 주혼자가 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16, 20은 후행을 ‘바향(陪行)’이라고 하였고 면접24는 ‘주혼’이라고 하였고 면접29, 30은 ‘배행’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후행이 한 사람이었으며 신랑의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후행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초행 시 후행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부집에서 행하는 혼례잔치에 신랑집 하객은 그 후행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후행은 신랑과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면 혼례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처나 신부집 사랑방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며 머무르다가 혼례가 끝나면 그 날로 돌아갔다. 또 신부가 우귀를 행하면 신랑집에서 또 한 번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때 신부집에서 온 후행도 식사대접만 받고 그 날로

돌아갔다. 이에 혼례는 온전히 신부집 잔치로 사돈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다.

“(하객은요?) 부모님이 후행을 가는 거지. 나는 우리할아버지가 후행했지. 지금 처럼 예식장에서 하니께 양가 사돈들 보지. 그 때는 후행이라고 부모나 할아버지나 하나만 따라가지. 여럿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녀. 그러니까 장가가는 날은 그 집 혼인이고 여기는 신부 들어오는 날은 일가친척들 100명, 200명은 모였겠지. (할아버지가 후행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혼 아녀.”(면접24)

신랑이 초행을 행할 때, 신랑집이 신부집에서 멀 경우에는 신랑이 사처에 혼례 전 날 도착해서 하루 묵을 수도 있는데 신랑이 당일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가까운 거리는 가마를 타거나 걸어가고 조금 먼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아주 먼 거리는 트럭이나 택시를 타고 초행을 행하였다. 그리고 면접7, 16에 의하면 당시에 잘 사는 집의 혼례에서는 말을 이용하였다.

면접1이 우귀를 행할 때 가마 안에 요강과 아숫가리 기름 두 병이 있었고 면접3은 혼례를 행하기 위해서 신랑집까지 하루종일 가마를 타고 가면서 멀미를 많이 했다.

“(가마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요강, 기름병. 안에다가 기름병하고 요강하고 들여놔. 가마 안에다가 달아주잖아 기름병. 두 개. 머릿기름. 아숫가리 기름. 가서 그놈 발르고 사르라고. 요강에는 여물 넣어. 오줌 누우면 소리나니께.”(면접1)

“우리 아버지가 그러데. 이렇게 높은데 올라가면 뒤로 자치고 앞은데 내려가걸 랑은 앞으로 숙이라고하데 그러면 멀미 안한다고. 그래도 멀미해서 죽을뻔 했어 나.”(면접3)

“그 때 우리집하고 처가 하고는 아래 윗집이었유. 대계 가차웠유. 산지기가 둘

이 와가지구 나 태고 가고 신부 태고 오고 그랬유. 그 때는 돈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녔유.”(면접16)

“신랑이 가마타고는 왔어. 장가들러 올 때 신랑이 가마타데. 신부는 신부동네 그 동네 것 타고 쌍가마탔지. 각시 신랑 따로 따로 타니까 그렇지. 조군꾼들이 앞에 하나, 뒤 하나. 조군꾼이라고 했지. (조군꾼이 어떤사람들이예요?) 그냥 이런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여. 동네사람들이지 뭐.(산지기가 아니고요?) 산지기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의 진작을 사용해 쓰느라고 산지기 노릇을 했지. 우리네는 그런이 없었어.”(면접4)

면접7은 함진애비를 먼저 출발 시키고 후행인 아버지와 빌린 자전거를 타고 30리 거리인 신부집까지 갔다. 전안시가 오전 10시였는데 신부집에는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했다. 자전거가 귀해서 빌려서 타고 갔는데 신부가 우기를 행할 때는 군소재지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인력거를 신부를 위해 세를 냈고 신랑은 자전거를 타고 신부는 인력거를 타고 왔다.

1952년에 혼인한 면접14는 군내 결혼을 하였고 도보로 신부집에 갔으며 면접1의 남편과 면접16은 초행을 행할 때 가마를 타고 신부집에 갔다. 가마를 타고 가는 경우는 신랑측 마을에서 빌려오므로 초행할 때는 신랑이 타고 우기할 때는 신부가 타고 돌아온다. 이 때 가마꾼은 신랑측 마을의 산지기들인데 평소에는 하대를 받았지만 이 때는 대접을 잘 받았다. 면접10은 초행을 행할 때는 도보로 가고 우기를 행할 때는 마차를 타고 왔다. 면접22는 초행을 행할 때는 기차로 가고 우기를 행할 때는 트럭을 타고 왔다. 면접4는 우기를 행할 때 신랑과 신부가 각각 가마를 타서 쌍가마를 탔다.

1950년대 후반에 혼인한 면접24, 26은 트럭을 타고 초행을 행하였고 우기를 행할 때도 트럭을 타고 오면서 혼수를 싣고 왔다. 이처럼 신랑의

초행을 행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신부의 우귀를 행하는 교통수단도 차이가 있었다.

초행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표 4-5>를 보면 1940년대는 도보, 가마, 자전거, 말로 초행을 행하였고 1950년대는 기차, 버스, 트럭, 택시로 초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랑이 초행을 행할 때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신랑인 남성 면접 대상자들은 잘 기억하였지만 신부인 여성 면접 대상자 중에는 보지 못해서 모른다는 경우도 있었다.

“뭔가 타고서 들어오더라구. 뭐 탔는지 나는 잘 몰라. 말 탔는지 뭐 탔는지 모르지만. 뭐타고 들어오더라구 인력거일거여 아파.”(면접9)

“신부집에 대례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갈 적에 짚불을 놓아서 그것을 밟고 대문을 들어가야 악귀가 못 쫓아온다는 거. 내가 밟은 기억이 나.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못 땡긴 귀신이 시기심이 나가지구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거여. 그리고 저기도 해요. 쿵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신 신랑에게 냅다 던졌어.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 친구들하고 가서 보면은말야 아주 그냥 못 된 장난을 하는 분들은 재를 찢어서 가지고선말야 아주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악풍이여 그건. 아이, 신랑이 잔뜩 챙겨서 입었는데말야 가서 벗고 세수 할 수도 없고말야. 더럽게 해놓고. 아주 괴팍한 친구들은 그런 것을 한다고.”(면접17)

면접17은 신부집에 들어갈 때 짚불을 밟고 들어갔는데 면접17의 아내는 바가지도 누군가가 깨트리는데 보았다. 짚불을 신랑이 밟고 바가지는 함진애비가 깨트린 것으로 추정된다. 면접20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설 때 바가지를 깨트린 것으로 기억하였다. 여기에서도 혼례절차에서 신랑이 기억하는 것과 신부가 기억

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접17은 천안에서는 신랑에게 재를 뿌리는 풍습도 있어 친구 예식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잘 차려입은 신랑에게 좋지 않은 풍습이라고 하였다.

“(하객은요?) 부모님이 후행을 가는 거지. 나는 우리할아버지가 후행했지. 지금처럼 예식장에서 하니깐 양가 사돈들 보지. 그 때는 후행이라고 부모나 할아버지나 하나만 따라가지. 여럿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녀. 그러니까 장가가는 날은 그 집 혼인이고 여기는 신부 들어오는 날은 일가친척들 100명, 200명은 모였겠지. (할아버지가 후행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혼 아녀.”(면접24)

신랑 일행이 신부집 가까이 이르면 신부집에서 안내자가 나와서 일행을 맞아 신부집을 지나지 않는 곳에 일단 머무르게 하는데 이 방을 ‘사처방’이라고 한다. 면접1은 이 방을 ‘사채방’이라고 표현 하였고 면접16은 ‘산청’이라고 표현 하였다.

“신랑하고 후행하고는 옆에 집 방하나 얻어 사랑. 거기서 신랑이 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사채방. 가마타고 와서 금방 어디로 썼어 그러니까는 옆에다 방하나 해가지구 후행하고 거기서 신랑 들어 가면은 한 상 차려다가 의안하고 술을 조금 먹는데, 먹는 척 하겠지.”(면접1)

“바르지 않은 방향에 산청집을 잡지요. 거기서 신랑이 혼인차비를 하고 신부덕에 가지요. 바향이라고 하는 상객은 그 집에 묵어 있고 신랑하고 안내자(하인)만 가서 혼례를 치루지요. 상객은 바향을 말해요. 신랑바향, 각시바향이 있지요. 산청은 삼살방이 아니고 바르지 않은 방향 집의 사랑방을 잡아요.”(면접16)

면접20은 신랑이 사처방에서 혼례준비를 끝내면 신랑이 땅을 밟지 않게 하려고 마을 청년들이 신랑을 업고 혼례청까지 들어갔다. 이유는 신랑이 신은 흑화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⑤ 예식

혼례는 넓은 의미로 혼인의 모든 절차를 말하지만 작은 의미로 혼인 예식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작은 의미의 혼례를 예식이라 하는데 신부집에서 행해지는 잔치라고 할 수 있다. 전통혼례나 신식혼례나 하는 혼례형태로 구분해서 보면 <표 4-2> 같이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면접 대상자 모두 전통혼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면접 대상자들은 이 전통혼례를 ‘구혼식’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일반적인 혼례장소가 신부집과 신랑집 마당이었으므로 혼례를 ‘마당빌려주기’라고도 표현하였다. 그리고 많은 면접 대상자들이 혼례를 ‘초례’라고 하였고 ‘초례’, ‘초례청’, ‘초례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남편이 재혼인 경우인 면접3, 11, 친정부모가 안 계신 면접12, 친정부모가 혼인을 반대한 면접28만 신랑집 마당에서 예식을 행하였다. 친정이 잘 살았던 면접25는 신부집 대청마루에서 예식을 행하였는데 당시에 잘 사는 집만 대청이 있었고 보통의 집에는 대청마루가 없었다. 면접25 외에는 모두 마당에서 예식을 행하였다.

예식의 시작 시간을 면접24는 ‘전안시’라고 하였다. 예식의 시작은 전안례부터이고 전안이 시작되는 시간이 예식의 시작이므로 예식시간을 ‘전안시’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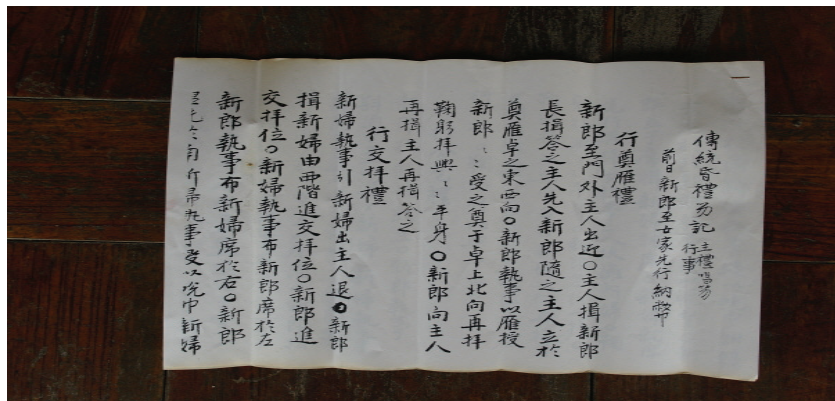
“그 때는 장난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기러기를 상에다 놓으면... 갖다놓고서 절하고 일어나기 전에 기러기를 몰래 가져가버렸어. 아 그러면 뒤에서 기러기 없어졌다고 신랑 어떻게 하나고 그랬었지.”(면접16)

면접16에 의하면 전안을 할 때 혼례에 참석한 하객들이 신랑에게 장난을 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식을 행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 4-5>를 보면 모든 면접 대상자가 오전에 예식을 행하였다고 답했다. 대부분 오전 10시와 12시 사이에 했는데 오전 11시가 가장 많았고 면접3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예식을 행하였다. 혼례의 ‘혼(婚)’자에 저녁 ‘昏’자가 들어가서 해질 무렵에 예식을 행하였으리라 추정하였는데 면접 대상자 모두 오전에 행하였다. 우리나라 전통혼례의 예식 시간이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교차하는 해가 질 무렵에 행하는 중국전통혼례의 예식 시간과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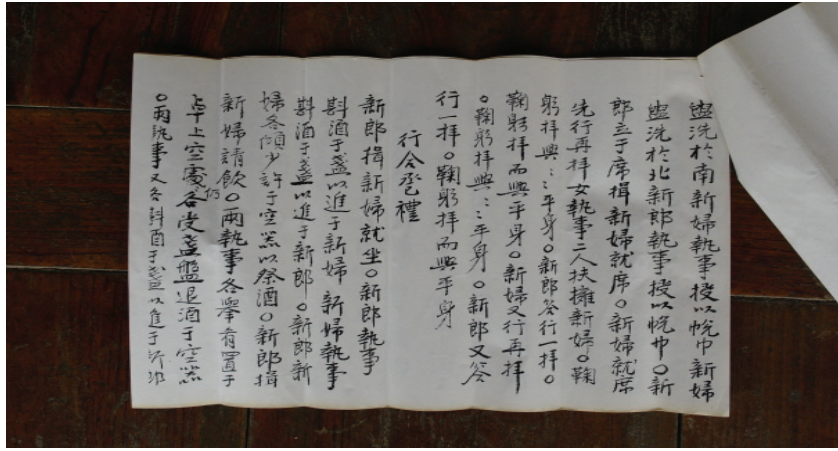
이렇게 예식시간이 오전이었기 때문에 신랑들은 예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부집과 거리가 먼 경우는 초행을 전날 행해서 사처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가까운 거리인 경우는 아침 일찍 행하였다.

예식을 행할 때 집례가 예식의 순서가 적힌 홀기를 보고 낭독을 하면 하님들이 신부를 부축하며 그대로 따라 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가 홀기 없는 예식을 행하였다. 예식순서를 잘 아는 집안 어른이 집사가 되어 순서를 말로 하면 그대로 따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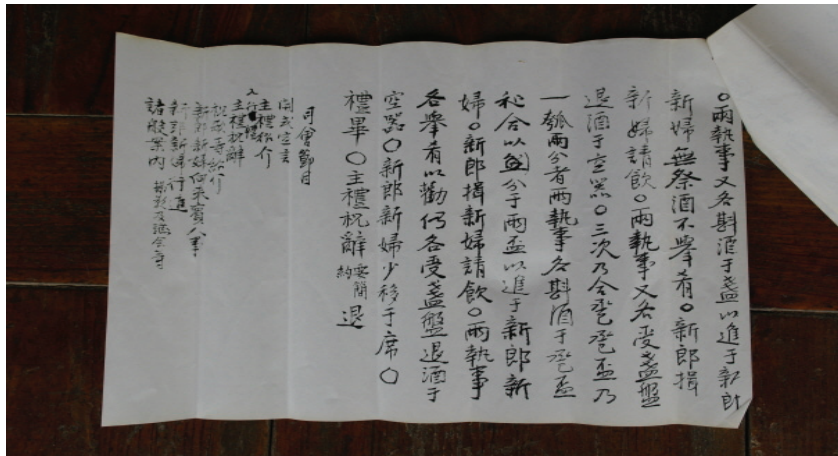


<사진 4-11> 공주 향교 홀기 1쪽

(1958년 혼인한 면접24의 혼례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



<사진 4-12> 공주 향교 홀기 2쪽



<사진 4-13> 공주 향교 홀기 3쪽

“집례 없었유. 집례하자면 홀기 읽고 그러야 하는데. 보통 집에서는 집례 잘 안 써유. 쓸 수가 없어. 그런 유식한 사람이 있간. 홀기 읽자면 유식도 하고 배워야 하고. 집안 어른이 명령 시키는대로 행사했어유. 집례가 창을 해가매 결혼식하는 집은 드물었어유. 우선 집례가 뭔지 홀기가 뭔지 몰라유. 시골에는 그런 인제가 없어유.”(면접7)

“그전에는 혼인을 한다하면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교육받은 집은 홀기를

읽고, 읽어가며 순서를 예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알으니까 맞절하라  
일어나라 경례하라 술 따르라 그렇게 구두로 했지.”(면접13)

“집례는 누가 봤는지 생각이 안나요. 그 때는 누구나 다 했어요.”(면접16)

예식을 행할 때 집례가 홀기를 읽으며 했다는 면접2, 17, 18, 24, 25  
는 집안이 잘 살았거나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학자 집안이었다. 홀기  
를 읽으며 예식을 행한 경우 신부집 집안에 학문을 한 어른이 있었  
다.

신부가 절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집안의 혼인한 젊은 여성들이  
거나 산지기 아내들이었으며 이 사람들을 ‘하님’이라고 불렀다. 산지  
기는 마을에서 권력과 경제적 여유가 나온 집의 산을 지키는 사람으  
로서 마을의 굶은일을 모두 맡아서 하였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산지기들은 마을에서 상이 나거나 혼례가 있으면 심부름을 해서 먹  
을 것과 약간의 수고비를 받았다. 상이 나면 상여를 들고 혼례가 있  
으면 가마를 들거나 함을 지고 가거나 산지기 아내들은 음식 만드는  
것을 돕거나 신부가 절하는 것을 도왔다. 대부분 면접 대상자들의 가  
마꾼과 절을 돕는 사람들은 산지기와 산지기 아내들이었다.

면접13에 의하면 1950년대 넘어서면서 산지기들의 삶이 나아졌다.  
마을에서 5~6호가 산지기집이었고 상여를 땄 때 적어도 6명은 필요  
한데 산지기로만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하니  
저절로 산지기들에게도 수고비가 더 주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동안 굶을 일을 산지기들의 일로 여기면서 신분차별을 하던 것이  
1960년대 넘으면서 차츰 마을 일을 품앗이로 해결해 가면서 일반 사  
람과 산지기를 차별하는 것도 사라졌다.

예식에서 쓰이는 주요 물품들은 차일 · 병풍 · 혼례상 · 나무오리 ·

명석 · 돛자리 등이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혼례복 처럼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을 빌려서 썼다. 면접 16, 17, 20, 24, 29에 의하면 차일(遮日)을 ‘채일’ 또는 ‘채알’이라고 표현하였다. ‘진새’라는 새가 혼례상에 똥이나 비늘을 떨어트리면 그 독기 때문에 상에 있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혼례를 치를 때 초례청이나 하객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는 차일을 반드시 쳤다. 면접24에 의하면 일꾼들이 들밥 먹을 때 말고는 큰일만 있으면 손님들이 식사하는 장소에도 차일을 쳐서 노지에서 먹게 하지 않았다. 또한 큰 차일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삼베로 가볍게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 삼베차일은 비는 가리지 못했다.

“채알도 치고. 하늘을 못 보게 하느라고 채알은 치는 거여. 하느님한테 고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하늘을 그냥 정면으로 못 보게 한다고 치는 거. 그런데 그 채알 밑에 들어가는 방비가 있어. 잘 못 거시기 하면 거기서 병도 얻을 수가 있고. 옛날에는 그래서 채알 밑에가 신랑 들어올 때하고 신부 들어올 때 나갈 때하고 그 모든 것을 방비를 보아서 들어오고 나가게 해야 허. 혼인에 간 사람들이. 잘 못하면 병들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 그래서 채알 치는 것이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여. 뭍쓸 악귀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여. 그리로 들어가기 괜찮은 시간이고 괜찮은 날이면 들어가고, 못 들어 갈 시간이면 못 들어가고 나중엔 그 시각 비켜야지 들어갔어.”(면접2)

면접2, 18에 의하면 차일은 예식을 하늘이 보지 못하게 쳤다. 이는 하늘을 경외하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리고 면접2에 의하면 신랑 신부가 차일 아래에 들어가고 나갈 때 시간을 봤다. 이는 차일에 주술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혼례상은 접이식 다리로 만들어져서 접으면 일반 교자상으로 이용하고 다리를 피면 길어져서 일반 상보다 높은 혼례상으로 이용되었다.

전안례에 쓰이는 나무오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혼례가 있으면 다른 물품처럼 빌려서 사용하였다.



<사진 4-14> 나무 오리(1950년대)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혼례복 보관함에 보관)

면접24는 예식을 신부집의 대청마루에서 하였는데 예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신랑 신부만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피해주었다. 이것을 ‘함문례’라고 하였고 이는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예식에서 만났을 때 제대로 얼굴도 못 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라는 의미에서 잠시 이 의식을 갖았다. 예식을 대청마루에서 하면 함문례를 위해 문을 닫아주고 마당에서 하면 병풍을 둘러주었다. 면접14는 이와 같이 했고 이를 ‘관대벋김’이라고 하였다.

“초례 지내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관대벋김을 했지. 신랑만 초례청에서 입은 옷 벗는 거여. 신부가 먼저 들어가 있고 신랑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신부도 맥여주고 신부는 신랑에게 맥여주는거 없고. 내 기억에는 그러.”(면접14)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에서 부조는 일반적으로 축의금이 아닌 물건으로 하였다. 신부에게 선물이 될 버선, 비누, 가루 분 등을

받았고 그 외는 대부분 음식을 부조로 받았다. 부조로 국수, 콩나물, 두부, 묵, 고기, 계란, 떡 등을 잔치에 쓸 수 있도록 선물해주었고 혼주는 부조를 받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상대의 집에 잔치가 있을 때 같은 것을 부조하였다. 1953년에 혼인한 면접16, 17은 부조로 음식 재료를 받기도 했지만 축의금으로 오백원 정도 받았으며 1958년에 혼인한 사례22, 23은 축의금으로 이천원에서 삼천원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일부 면접 대상자는 축의금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식 재료를 부조로 주고받았다.

예식에 대한 내용 중에 예식 날에 사진을 찍었느냐는 질문에 <표 4-5>를 보면 면접8, 17, 18, 22, 23만 사진을 찍었고 대부분 예식사진을 찍지 못했다. 면접8은 사진을 찍었지만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갈 때 종이에 싸서 땅에 묻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서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사진 4-15> 예식 사진(1958년, 면접22)

면접17, 18은 예식 사진과 현구고례 사진, 그리고 큰상을 받을 때 사진을 찍었으나 이사하면서 창고에 모두 넣어서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면접22, 23은 예식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4-15>는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예식 사진이었다.

#### ⑥ 합방례

예식 날 저녁에 신방을 꾸미고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것을 합방례 또는 합궁례라고 하는데 면접 대상자 대부분 합방례와 합궁례라는 말 보다는 ‘첫날밤’이라는 말을 더 쉽게 알아들었다. 첫날밤은 주로 신부집 안방에서 차려졌는데 면접23은 신부할아버지가 계셔서 안방이 아닌 웃방에 차려졌다.

합방례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합방례에서는 다른 혼례절차에 비해 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족두리와 비녀를 벗길 때 땅에 떨어트리면 부부생활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 불을 끌 때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달아난다는 것, 귀신이 신방을 엿보지 않도록 사람들이 신방을 엿보아야 좋다는 상징성이 담겨있다.

“확실헌거는 모르지만은 그 여자의 애인이 숨어있다가 신랑을 죽이는 예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 뚫고서 들여다보고 그랬다는 게지. 그리고 또 신랑 신부 이런 사람들이 그 때는 어려서 장가를 드니까 어떻게 하나 다들 관심있게 보너라고 그랬을 것 같어.”(면접14)

“(신방엿보기도 있었어요?) 아이고, 밤새도록. 옛날에는 아래웃방 이 칸 방으로 해서 가운데 장지를 달았잖어. 장지를 달었는데 장지문을 다 찢어놓고했지.”(면접18)

면접7, 16에 의하면 신방엿보기는 신부를 좋아하던 남자가 신랑을 찾아와 죽일 수도 있으므로 신랑신부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신랑신부의 엿보기를 하는 것은 악귀, 귀신들이 시기심으로 와서 본다는 거지. 아무도 안 보면 귀신들이 와서 본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대청이 있으면 대청에서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서 골방 같은데서 지켜줬다는 거여. 다 지켜주는 거지.”(면접17)

면접1, 17, 20, 21에 의하면 신방엿보기는 신방을 귀신이 보지 않도록 사람이 봄으로써 신랑신부를 지켜주는 것이었다.

첫날밤 신랑이 신부의 혼례복을 벗겨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지역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면접13은 누나가, 면접14는 친구들이, 면접17은 삼촌들이, 면접26은 할머니가 첫날밤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신부 옷 벗기는 순서와 방법 그리고 촛불 끄는 법을 미리 가르쳐주었다.

“(신부 옷 벗기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총각 때 한 사람이 먼저 장가가잖여. 그러면 이렇게 하는거라 너도 가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줘서 대게 알고 있었지 그것은. (순서가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이, 족두리 쓰고 있잖여. 이것이 굉장히 무겁데요. 족두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뺏겨라 이런 얘기더만그려. 그런데 그것 뺏기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다 장냥을 치느냐고 이것을 많이 묶어 매놔어. 줄로다가. 그래서 그거 뺏기는게 제일 땀 흘렸지. 그 때는 전기도 없었잖요. 그러니까 촛불에서 했는디 잘 뵈지는 않지 그거가 풀기가 굉장히 어렵잖요. 또 이게 막 잡아당기면 신서방이 머리를 잡아당겨서 막아프다고 할꺼아녀. 그리고 족두리가 뺏기다가 떨어지면은 대게 앞으로 부부생활이 벼랑 좋지가 않다 그런 예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열추 풀러지면 앞에 손 대고서 풀러놓고. 족두리 다음은 치마끈 풀러주고 적삼 옷고름 풀러줄 때는 불을 끄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끄고 했지. (불은 어떻게 껐어요?) 입으로 훅 불어서 끄면 안된다고 해서 손으로 껐지. 그러고선 제일 끄트먼으로 가서 버션. 버션은 딱 한 짝만 빼서. 장가갈래도요 그런 것 다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지. 먼저 결혼한 사람들한테.”(면접14)

면접14, 20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의 비녀를 뽑을 때 족두리가 땅에 떨어지면 부부생활이 좋지 않거나 신부가 일찍 죽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비녀를 뽑을 때 족두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족두리를 잘 잡고 다른 손으로는 비녀를 뽑았다.

면접17, 18은 부부이다. 이 부부의 첫날밤에 대한 기억을 녹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부 옷을 벗기는 방법을 배웠나요?) 나같은 경우는 삼촌들이 계셨기 때문에 삼촌들이 제일 침에 뭐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것 같어.(남편)

잊어버렸지. 그럼. 족두리부터 벗겨주고, 원삼 벗겨주고, 버선 벗겨주고.(아내)

(버선도 한 짝만 벗겨준다면서요?) 응 한 짝만 벗겨줬지.(아내)

한 짝만 벗겼어? 나는 두 짝 다 벗긴 것 같은디.(남편)

나 몰라. 잊어버려서.(아내)

그러고 버선은 앞에서 벗기지만 원삼 이런 것 벗길 때는 반드시 뒤에서 들어가 지고서.(남편)

이렇게 뒤에서 껴안는 식으로 묶을 것을 끌려서.(아내)

그러고 그 거 하기 전에도 첫잔은 아마 신부가 신랑한테 술을 따라서 줬을꺼. 잔이 두 개니까.(남편)

(이불을 펴 놓을 때는 신랑 이불 신부 이불 따로 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녀 하나로 폼.(남편)

우리는 친정아버지가 폼났어. 친정아버지가 폼놓는다고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요 깔아놓고 이불 펴 놓고 신랑들어 오라고 했지.(아내)

지금은 그 베게 내 버렸지? 기다란 베게.(남편)

있어. 긴베게. 이렇게 둘이 베는 것. 그것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길어서 나쁘잖아. 짧르면 나쁘다고 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은 생각이 있어서 속이 자꾸 비니께 딱 딱하지 않아서 가운데를 꿰매놔서 있어.(아내)

그 당시에는 기다란 긴 베게를 놓고서 그 놈을 둘이 신랑신부가 함께 뻗지.(남편)

그 때 여물 쓸어서 넣은 것 여태 있어. 신랑 들어올 적에 그거 베게 속 넣어. 신랑 들어올 적에 여물 쓸어 놓았다가 막 우겨놓는다고.(아내)

그 만하면 1미터는 다 안 될꺼.(남편)

첫 날밤 베고 여태 안 뻐트니까 빨도 얇고 안 쓰고 여태 있어.(아내)”(면접17, 18)

“처음에 옷고름부터 풀어줘야만 가슴을 환히 열어주고 산다고 그 때 그런 말이 있었어. 머리로다가 손이 먼저 가면 끄맹이를 잘 잡는다고 싸움을 잘한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와서 살고보니깐 환히 열리지지도 않더라고.”(면접2)

면접조사 결과, 당시 예식 첫날밤에 지켜야 할 것은 족두리를 벗길 때 떨어트리지 않고 벗기기, 옷 벗기는 순서를 지키기, 촛불은 입으로 끄지 않는 것들이었다.

면접18은 첫날 밤 이불을 친정아버지가 깔아주었고 신랑 신부가 긴 베개를 함께 베었다. 이 베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사를 할 때 창고 깊이 넣어두어서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면접2는 이불을 신랑 신부 각각 따로 펴고 잤다.

#### ⑦ 재행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를 우귀, 현구고례, 재행, 근친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우귀, 현구고례, 재행, 근친

면접	내용	우귀 시기	우귀 후행	우귀 교통편	현구고례 부부가 함께	조석 문안 인사 기간	재행 부부가 함께	근친은 얼마 만에
면접1	여	당일우귀	신부시촌오빠	가마	신부	2일	신랑	1년
면접2	여	2일우귀	신부아버지	차→가마	신부	3일	신랑	×
면접3	여	×	×	가마	×	×	신랑	1년
면접4	여	3일우귀	신부작은아버지	가마	함께	머칠	신랑	1년
면접5	여	×	×	×	×(시부모안계심)		×	×
면접6	여	3일우귀 (모거제)	신부아버지	기차	함께	×	×	×
면접7	남	2일우귀	×	인력거	신부	일주일	신랑	6개월
면접8	여	3일우귀	신부오빠	차→가마	함께	3일	함께	5일
면접9	여	2일우귀	×	기차	함께	1일	신랑	1개월
면접10	남	당일우귀	×	역미차	함께	한 달	신랑	△
면접11	여	×	신부아버지	도보	함께	×	신랑	△
면접12	여	×	오빠내외	도보	함께	×	함께	1일
면접13	남	×	오빠내외	도보	함께	×	함께	1일
면접14	남	2일우귀	신부오빠	트럭	함께	한 달	함께	1년
면접15	여	당일우귀	신부아버지	가마	함께	3일	함께	3일
면접16	남	당일우귀	신부아버지	가마	함께	3일	함께	3일
면접17	남	일주일우귀	신부당숙	트럭	신부	3일	함께	1년
면접18	여	일주일우귀	신부당숙	트럭	신부	3일	함께	1년
면접19	여	3일우귀	×	트럭	×(시부모안계심)		함께	1년
면접20	여	당일우귀	친정오빠	트럭	함께	1일	함께	1년
면접21	여	2일우귀	친척	트럭	함께	×	함께	3일

면접22	남	2일우귀	신부당숙	트럭	함께	×	함께	2일
면접23	여	2일우귀	신부당숙	트럭	함께	×	함께	2일
면접24	남	9일우귀	신부아버지	트럭	신부	3일	신랑	1년
면접25	여	9일우귀	신부아버지	트럭	신부	3일	신랑	1년
면접26	남	3일우귀	신부사촌오빠	트럭	함께	일주일	함께	3일
면접27	남	2일우귀	신부아버지	택시	함께	2일	함께	3일
면접28	여	×	×	×	함께	×	×	3년
면접29	남	당일우귀	사촌오빠	도보	신부	일주일	함께	×
면접30	여	당일우귀	사촌오빠	도보	신부	일주일	함께	×

△: 기억이 안남

면접 대상자의 대부분은 재행을 ‘자양’이라고 발음했다. 재행은 신랑이 예식 후 신부집에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신부와 우귀한 후 삼일 째 되는 날에 행하였다. 초려 이유태 선생 종손인 면접24만 예식 후 신랑 혼자 본가에 왔다가 9일 만에 재행을 하였다. 그 외 대부분 예식 다음날 우귀를 하고 삼일 후 재행을 하였으므로 반친영제의 혼례절차인 초행, 재행, 우귀 순서가 초행, 우귀, 재행으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의 반친영의 혼례에서 재행이 우귀 전이었는데 이 당시 일반적으로 신부가 혼례 다음날 바로 우귀를 하고 신랑의 재행이 행해져서 혼례의 절차가 이전과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재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랑신부가 함께 감으로써 근친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랑만 혼자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행을 위해 신부집에서 신랑을 데리러 집안 어른이나 처남이 신랑집으로 오거나 중간까지 마중을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1, 4, 14, 21은 신부의 남자형제가 신랑을 데리러 왔다.

면접7은 초행 때는 장인·장모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재행을 가

서 처음 신부측 친인척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재행이 신부의 우귀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신랑 혼자만이라도 행한 것을 보면 신랑이 신부측 가족이나 친척들과 친분을 쌓기 위한 필수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동상례인 신랑달기였다. 면접 대상자들은 동상례라는 용어는 처음 듣는다고 하였고 신랑달기를 ‘신랑다룬다’ 또는 ‘신랑단다’라고 하였다.

“(재행가서 무엇을 했어요?) 동네사람들 청년들한테 혼난 것뿐이지 뭐. 신랑을 다루는데, 나는 모든 걸 식 다 이상한 예기 같은 걸 전부 다 외갓고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갔으니까. 암만해도 안되니까 ‘신랑자식 똑똑하네’ 그러더니 무조건 단다고 하더라구. 내가 그랬지. ‘달게 뭐있느냐. 너희가 필요헌 거를 얘기하면은 내가 술 산다는지, 내가 못사면 처갓집보고 술값을 내라는지 할텐데 왜다려’하니께. ‘아니어 그래도 다루어야혀.’ 조금 달더라구유. 그러니까 처제가 우리 형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막 들어와서 허니까 그냥 말더라구. 동네사람이 업어다가 산꼭대기에다 그냥 놔두더라구유. 그러니까 처제가 또 신 갖다줘서 신고서 내려와니께 너 술이나 사라고 그래서 그 술집에 가서 밤새 술 사고 왔어.(음력으로 10월 28일 밤 12시쯤 서리도 내릴 때, 산에 데려다 놓고 가서 발 시려웠는데 처제가 신을 갖다주어서 내려왔다고 한다.)”(면접14)

“(신랑다루기는 했어요?) 그거는 혼인 때 일주일간 묵는데 그 당시 했지. 그래가지고선 여나무시 덤벼들어서니. 아 이놈들이 전부 나는 체격도 적고 힘도 없는데 장정들이 덤비니까, 장모님이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말이야. 2칸 사랑방에다가 가득 차렸는데, 20여명이 가득 모여 있는데. 여 그러지 말고 술 한 잔씩 먹고 신랑을 다루든지 말든지 허자고 말이야. 내가 제안을 그렇게 해서 허는데. 그러디 이 놈들은 멋도 모르고 말이야. 신랑부터 술을 한 잔 먼저 허고서 허자 해서. 아 그거 좋단 말이야. 제일 독한 술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대접 위에 젓가락을 놔요. 술이 젓가락에 닿도록 따라요. 아이구 그놈을 한 사발을 먹고 옆에 사람에게 돌리니까, 한 잔씩 돌려가면서 주욱 먹는 바람에 술을 못 먹는 사람 실겅

이하는 놈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은게 전부 술취했지뵤. 술로 이겼어. 그래서 못 다뤘다고.”(면접17)

면접14는 이 신랑달기가 신부측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신랑을 팔아 먹는 거라고 하였다. 술을 매우 좋아하는 면접17은 신랑다루기를 버르던 마을 장정들을 술로 이겨서 신랑다루기를 면했다. 면접26은 혼례날도 신랑다루기를 당했는데 재행 때도 신랑다루기를 해서 유일하게 신랑다루기를 두 번 당했다.

“그 때 다는 건 난 몰라. 자기가 삼일 만에 혼자 처갓집에 왔으니께 누가 달아 먹었는지 몰라. 모르지 달아먹었는지.”(면접9)

재행은 신랑 신부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랑만 혼자 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면접9와 같은 여성 면접 대상자는 재행 시 신랑다루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 ⑧ 우귀

우귀를 일부 면접대상자들은 ‘우례’라고도 하였다. 우귀를 인덕일은 피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면접4, 8은 예식 다음날이 인덕일이라고 해서 하루 더 묵고 3일 우귀를 행하였다. 면접27은 예식 당일에 우귀하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서 우귀를 행하라고 해서 시택이 버스로 꼬박 하루를 가야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주일우귀를 행하였다. 면접24는 혼례 후 신랑이 본가에서 일주일 지내고 와서 9일만에 우귀를 행하였다.

우귀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표 4-6>을 보면 1940~1960년에는 인덕일을 피해 우귀가 늦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식 당일에 우귀를 행하는 당일 우귀, 혼례 다음날 우귀를 행하는 2일 우귀,

혼례 후 사흘 째 되는 날 우귀를 행하는 3일 우귀가 많았다.

우귀 행할 때 신랑신부와 신부집의 후행이 함께 간다. 신랑의 후행 처럼 신부의 후행도 신부의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당숙, 오빠 등이었고 한 사람이 후행을 하였다. 면접14는 신부의 후행을 ‘우유’라고 표현하였다.

“(우귀 할 때 누가 함께 갔어요?) 우귀 할 적에는 신부의 오빠나 일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그건 우유라고 그러거든요. 데려다 주는 사람이고. 신랑과 같이 가는 사람은 후행이고 거기서 오는 것은 우유 이렇게 얘기하죠. 우유라는 것은 신부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면접14)

면접3은 ‘딸 팔아 먹는다’는 말 듣는다고 신부의 아버지가 후행을 하지 않았다.

### ⑨ 현구고례

우귀 후에 신부는 처음 뵈는 시부모나 시댁 친척어른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데 이 현구고례를 드릴 때 시조부모가 계실 경우 드리는 순서가 달랐다. 면접7, 16, 17의 경우 시조부모가 계셔도 부모에게 먼저 현구고례를 행하였고 면접1, 24는 부모보다 시조부모에게 먼저 현구고례 행하였다. 초려 이유태 선생 종손인 면접24는 한 집에 시조부모가 함께 계시면 부모보다 어른이므로 신부가 시조부모에게 먼저 절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나는 시할아버지 계시기 때미 시할아버지 먼저 드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고 친척들.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할아버지가 어른이니께.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양반이 당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원칙은 아버지부터 받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뭐 아는 양반은 먼저 안받는다. 아들 난 아버지가 제일이잖여.”(면접1)

“(폐백은 신랑 신부가 함께 드려요?) 아냐, 같이 안 해요. 신부만. 시부모한테 하는디. 시조부모가 계시면 우리네는 시조부모를 먼저 봐요. (보통은 시부모부터 하는데요?) 그게 예가 아냐. 부모를 제켜놓고 제가 본다고. 그게 문자를 오해해서 그래요. 현구고라고 했던말여. 현구고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디. 조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어. 그러면 예문에 현조부모 현구고 하겠어. 현구곤디. 그걸 가지고 인저 우리 어렸을 적이 어른들 학자님들이 논란을 많이 하는디 당연히 부모부터 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따라서 대전 송씨들이고 뭐이고 조부모부터 보는 집이 많어. 그 예가 아냐. 제대로 할라면은 대청이나 넓은 곳에서 현구고를 받으면은 조부모는 정좌해 앉히고 부모는 못꺀어서 앉는겨. 양쪽으로. 이제 부모하고 똑같이 나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은겨. 가령 부모가 있어도 각거를 해서 마을이 틀리고 몇 십리 바깥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한 집에 부모를 뵈시고 사는데 부모를 제켜놓고 지가 먼저 절을 받아.”(면접23)

현구고례의 순서가 신랑의 부모부터인지 조부모부터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가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을 낳은 아버지 · 어머니가 먼저 받아야한다와 시조부모가 더 어른이니까 먼저 받아야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부모가 먼저 받고 시조부모가 받았지만 한 집에 시조부모와 시부모가 함께 살면 집안의 어른인 시조부모에게 먼저 현구고례를 한 면접 대상자도 있다.

“신랑은 그냥 섰고 신부만 폐백드리는 것이지. 그 때는 폐백이라고 안하고 현구고라고 했어. 말하자면 신랑은 어른 됐다고 절을 하는 건데. 갖다와서 그냥 절은 하잖어. 신부는 자고 나서도 현구고례를 해야만 그 이튿날도 절을 하는겨. 현구고를 해야 문안을 드릴 수 있는겨.”(면접2)

“그 때는 신랑은 들어오지도 않았지. 옛날 우리네 결혼할 때만 해도 많이 가렸거든. 뭐든지.”(면접1)

현구고례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 4-6>을 보면, 현구고

례를 신부 혼자 드리는 경우와 신랑과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신랑 신부가 함께 현구고례를 드렸지만 면접1, 2, 7, 24, 25, 30은 신부 혼자만 현구고례를 드렸다. 신부 혼자만 현구고례를 드렸던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이 집안이 학자집안인 경우이므로 유교적인 혼례에서 신부만 혼자 현구고례를 행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조석문안 인사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 4-6>을 보면, 면접10, 14의 경우 가장 길게 한 달간 드렸고 대부분 2~3일만 하면 시부모가 그만 두게 하였다. 면접2에 의하면 조석문안을 드릴 때 시부모도 준비를 해야 하므로 살림 때문에 바쁜 시부모가 길게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바로 안했어. 두 번 밖에 안했어.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 받을래도 받기도 힘들어. 일하다 돌아다니다가 예전에는 노복들이 식솔들이 다 멍기며 했지만 그때는 일정말년에 손수 멍기며 해야 되는데 아침해야 되고 머느리한테 문안 받으야하고. 문안 받으려면 그냥 받가디. 신부마냥 세수하고 머리빗고 싸악 사부집 저기 마냥 하고 앉아서 활란게 힘들어. 바빠서. 밥하다말고 어떻게 절을 받아.”  
(면접2)

사계 김장생 선생의 13대 종손인 면접2에 의하면 현구고례를 행해야만 시부모에게 문안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면접2, 18에 의하면 혼례를 다 행한 후에 친정아버지가 시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은 사돈서를 보냈다.

#### ⑩ 근친

신부가 예식 후에 시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친정을 처음 방문하는 것을 근친이라고 한다. 근친에 대한 내용으로 근친을 갈 때 누구와

갔는지와 얼마 만에 갔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표 4-6>을 보면 근친은 많은 면접 대상자들이 1년 만에 갔으며 3일 만에 간 경우는 신랑의 재행과 근친을 함께 행한 경우이다.

근친을 행할 때 면접1은 시어머니가 동행하고, 면접2는 혼자 근친을 행하였고, 면접4는 시큰어머니가 동행하였고, 면접24는 시아버지가 동행을 하였으며 이 외에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동행하였다.

“1년살고. (보통 1년 만에 가나봐요?) 1년 3년 살지 그 땐.”(쫓겨올까만이 1년 살고 혼인신고 하고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쫓겨가는 사람이 많어잖어. 그러니까 격식을 그렇게 했지.”(면접1)

“혼자갔지뵤. 신랑도 안 가고. 그 때는 부부간이 어디 멍기들 았았잖유. 친정에 가면 혼자갔지뵤.”(면접3)

“친정에 간다고 하면 시아버님이 꼭 쫓아멩겼어요. (얼마동안 계셨어요?) 근친 가면 그 때는 한달도 있는다고 했는디 나는 한 열흘보름 있었나.”(면접24)

## 2) 혼례절차의 특징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절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1940~1960년의 충남지역의 혼례형태는 신식혼례가 아닌 전통혼례가 일반적이었음을 면접 대상자 모두 구혼식이라는 전통혼례로 예식을 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혼례형태도 모두 전통혼례이고 전반적인 절차가 일부 간소화된 것도 외에는 전통혼례 절차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당시에 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혼례절차를 의혼, 납채, 납폐, 초행, 예식, 합방례, 우귀, 현구고례, 재행, 근친의 순서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가 이 혼례절차를 따랐음을 알 수 있었다.

의혼은 면접 대상자 모두 중매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중매인이 양가를 오가기 시작해서 예식을 행하는 날을 혼인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조사한 결과 대부분 3개월에서 1년이 걸렸고 빠르면 10~2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신랑 신부는 상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부모가 대신 간선을 보았다.

납채는 당시에 혼례절차에서 간소화된 절차이다. 청혼서나 허혼서는 모든 면접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한 면접 대상자 외 모든 면접 대상자가 신랑의 사주를 주고받았으며 택일서는 일부 생략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택일서를 주고받았다. 택일은 대부분 신부집에서 했고 일부 면접 대상자만 신랑집에서 하였다. 예식을 행한 달을 조사한 결과 9~10월에 가장 많았고 5~8월에는 전혀 없었다. 이는 농촌에서 추수가 끝난 후에 혼례 잔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혼서지는 일반적으로 주고받았으며 대부분 혼서지를 함과 함께 신부집에 전했다.

납폐에서 함의 전달 시기는 신부집에서 함을 받을 때도 잔치를 하기 때문에 예식 잔치와 같이 하기 위하여 주로 예식 전날이나 예식 당일이었다. 사주가 들어갈 때 납채서를 함께 보내기도 하였는데 1950년대에 인쇄 납채서식에 이름과 날짜만 기록하여 사용기도 하였다. 함 속에는 혼서지와 채단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채단은 신부의 치마와 저고리 한 벌 감이었다. 더러는 함 속에 예물을 함께 넣은 경우도 있었는데 1940년대는 은비녀와 은반지를 넣었고 1950년대는 금반지를 넣은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종부에 의하면 함 들어오는 날이 예식 날보다 더 푸짐했다고 한다.

예단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1940~1960년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예단을 하지 않았다. 예단을 한 경우 그 범위는 대부분 시부모나 시조부모였고 예단의 품목은 버선이 가장 많았고 일부 면접에서는 옷과 이불을 한 경우도 있다.

초행에서 초자례와 초녀례가 일부 면접에서만 나타났고 초행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예식 당일에 하였다. 신랑이 초행을 행할 때 후행이 한 명 따르는데 주로 주혼인 신랑의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후행이었고, 후행을 ‘바향’이라고 하였다. 초행을 행할 때 교통수단은 1940년대는 도보, 가마, 자전거, 말로 초행을 행하였고 1950년대는 기차, 버스, 트럭, 택시로 초례를 행하였다.

예식에서 예식은 신부집의 잔치였기 때문에 신랑집에서 온 하객은 후행만 있고 이 후행도 예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려 이 유태 선생의 종손은 예식의 시작 시간을 ‘전안시’라고 말하였다. 예식의 시간은 모든 면접에서 오전이었으며 오전 11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의 기운이 충만한 오시(午時,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예식을 많이 행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통혼례의 예식 시간이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교차하는 해가 질 무렵에 행하는 중국전통혼례의 예식 시간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홀기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1940~1960년에 전통혼례에서 홀기가 있는 경우는 학자집안이나 잘 사는 집안이고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는 예식 순서를 아는 어른이 집사가 되어 순서를 말로 하면 그대로 따라 했다. 혼례청에 반드시 차일을 쳤는데 차일을 ‘채일’ 또는 ‘채알’이라고 하였고 성스러운 혼례상에 ‘진새’의 비늘이나 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거나 하늘을 정면으로 못 보게 하려고 쳤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식 성스럽게 여기고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의 예식 때 사진을 찍는 것은 매우 드물었고 조사결과 예식 사진은 유일하게 하나만 볼 수 있었다.

합방례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신랑이 족두리와 비너를 벗길 때 땅에 떨어트리면 부부생활에 좋지 않으므로 떨어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였고 불을 끌 때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달아나므로 손으로 꺾고 사람이 신방을 엿보지 않으면 귀신이 보기 때문에 신방을 엿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신방엿보기는 모든 면접에서 나타났다.

재행은 ‘자양’이라고도 하였고 모든 면접에서 우귀 전이 우귀를 한 후 삼일 만에 재행을 행하였다. 반친영의 혼례에서 재행이 우귀 전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우귀 후에 재행을 행한 것이므로 이전의 반친영의 절차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신랑이 재행을 행하면 신부집에서 ‘신랑다루기’를 하였고 재행은 신랑혼자 할 때도 있지만 신부와 함께 근친을 겸해서 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신랑의 재행을 위해 신부집에서 처남이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귀는 ‘우례’라고 하였고 우귀를 당일 우귀, 2일 우귀, 3일 우귀를 많이 했고 인덕일을 피해 일주일 우귀, 9일 우귀도 있었다. 우귀를 행할 때 신랑 신부가 후행인 신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당숙, 오빠 등 중에서 한 사람과 함께 하였다.

현구고례는 일반적으로 시조부모가 계셔도 시부모에게 먼저 절을 드렸고 일부 사례에서는 시부모보다 시조부모에게 먼저 절을 드렸다. 또한 대부분 신랑 신부가 함께 절을 드렸지만 유교적 가례를 따라 신부만 드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 4. 혼례복식의 분석과 특징

##### 1) 혼례복식의 분석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예식 때 입은 혼례복과 현구고례 때 입은 현구고례 복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혼례 복식과 현구고례 복식

내용 면접		혼례 복식				현구고례 복식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종류 및 색깔	소유	종류 및 색깔	소유	종류 및 색깔	소유	종류 및 색깔	소유
면접1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녹원삼	가족	남색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가족
면접2	여	(△)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신랑 마을	(△)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신랑 마을
면접3	여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	×	×	×
면접4	여	자색단령	신부 마을	녹원삼	신부 마을	두루마기	본인	빨강치마·연두저고리	본인
면접5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	×	×	×
면접6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7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8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원삼	신부 마을	두루마기	본인	치마·저고리	본인
면접9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10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두루마기	본인	치마·저고리	본인
면접11	여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12	여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13	남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14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두루마기	본인	치마·사주 저고리	본인
면접15	여	남색단령	같은 마을	(△)원삼	같은 마을	남색단령	같은 마을	(△)원삼	같은 마을
면접16	남	남색단령	같은 마을	(△)원삼	같은 마을	남색단령	같은 마을	(△)원삼	같은 마을
면접17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녹원삼	신부 마을	×	×	(△)원삼	신랑 마을
면접18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녹원삼	신부 마을	×	×	(△)원삼	신랑 마을
면접19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	×	×	×
면접20	여	남색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신부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신랑 마을
면접21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두루마기	본인	빨강치마· 노랑저고리	본인
면접22	남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두루마기	본인	치마· 저고리	본인
면접23	여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두루마기	본인	치마· 저고리	본인
면접24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녹원삼	가족	남색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가족
면접25	여	남색단령	신부 마을	녹원삼	가족	남색단령	신랑 마을	녹원삼	가족
면접26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홍원삼	신부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홍원삼	신랑 마을
면접27	남	남색단령	신부 마을	(△)원삼	신부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원삼	신랑 마을
면접28	여	남색단령	신랑 마을	(△)원삼	신랑 마을	남색단령	신랑 마을	(△)원삼	신랑 마을
면접29	남	남색단령	신랑 문중	녹원삼	신부 문중	남색단령	신랑 문중	녹원삼	신랑 문중
면접30	여	남색단령	신랑 문중	녹원삼	신부 문중	남색단령	신랑 문중	녹원삼	신랑 문중

△: 기억이 안남

혼례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예식 때 입는 혼례복과 현구고례 때 입는 현구고례복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혼례에 관련된 옷은 신랑이 함에 넣는 채단과 신부가 혼수로 해가는 신부의 옷이다.

면접1은 예식을 위해 원삼과 족두리를 챙겨 입는 것을 ‘진단장한다’라고 표현하였다. 면접14, 20은 사주를 보낼 때 신부의 저고리를 만들 옷감을 보냈는데 이 옷감으로 신부가 저고리 하나를 만들었다. 이 저고리를 사주저고리라고 하였고 신부가 이 옷을 입고 현구고례를 드렸다.

일반적으로 혼례복을 개인이 소유하기 힘든 가정이 많아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혼례복을 준비하였거나, 혹은 문중에서 자손들이 쓸 수 있는 혼례복을 마련해 두었다. 혼례복을 보관할 장소를 공동으로 마련해 보관하거나 돌아가면서 보관하기도 하였다.

“동네마다 있지. 동네서 쓸 때는 동네 것 쓰지. 동네에서 혼인 있으면 어디서 보관했다가 빌려서 썼지. 원삼은 까치저고리마냥 두루마기마냥 맨들어서 입어. 시골에서도 맨들어. (색깔은 기억나세요?) 연두색에다 소매는 색동무늬로. 신랑은 진한 자주색으로 두루마기마냥 입었어.”(면접4)

홍성에서 1958년 혼인한 면접20은 마을 어른들이 천안에서 구입해 온 혼례복을 처음 입게 되었고 그 옷을 예식 때 신부집으로 가져가서도 입고 현구고례 때도 입었다. 당시 큰 도시에 혼례복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구입한 혼례복을 마을에서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1950년대 충남지역의 혼례복식은 마을에서 어떤 것을 구입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본다.

충남지역에서는 신부가 입는 혼례복을 혼례복으로 세 번 입고 수의로

쓰면 사자(死者)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풍속이 있어서 1940~1960년에 사용한 개인이 소유한 혼례복이 적다.

“우리 할머니원삼을 내가 입었거든. 원삼을 해서 세 번 입으면 좋다데. 돌아가실 때 입고 갈 원삼을 허면은. 옛날에는 늙으면 자식들이 수의를 다 해놓잖어. 있는 사람들은 원삼까지 남자는 도포. 명지에다 물들여서 빨강노랑. 우리 언니들이 있었으니까 나까지 세 번.”(면접1)

“우리 외할머니 원삼을 우리집에서 해드렸는디. 세 번을 입고 수의로 가져가야 좋다고해서 명지로 곱게 물들여서 그렇게 해서 원삼을 맹글어드렸는디. 그놈을 우리 오라버니 장가갈 때 입고 형님 시집갈 때 입고 나 입고 세 번을 입었네벼. 그렇게 해서 입고 가셨는가벼. 세 번을 입고서 외할머니 원삼을 맹글었어. 그렇게 하면 저승길이 밝다나.”(면접3)

혼례복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한 <표 4-7>을 보면, 예식 때 면접 모두 신랑은 단령과 사모관대를 착용하였고 신부는 원삼과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형태가 일반적으로 구혼식이라고 하는 전통혼례였기 때문에 혼례복도 단령과 원삼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신랑들의 단령 색깔은 면접4만 자색 단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색 단령을 입었다고 답했다. 신부들의 원삼은 녹원삼과 홍원삼을 함께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신혼식이라는 신식혼례로 행할 만한 시기인데도 모든 면접 대상자가 전통혼례를 행하여 원삼 외에는 한복만 입고 면사포를 쓰거나 드레스를 입은 경우가 전혀 없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의 마을회관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혼례복이 있다. 마을의 60대 이장에 의하면 이 혼례복들은 본인 어렸을 때 마을에서 행한 예식 때 신랑 신부가 입은 마을 공동의 혼례복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서 보관하는 혼례복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사용된 혼례복으로 추정된다.



<사진 4-16> 1940년대 추정 혼례복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마을회관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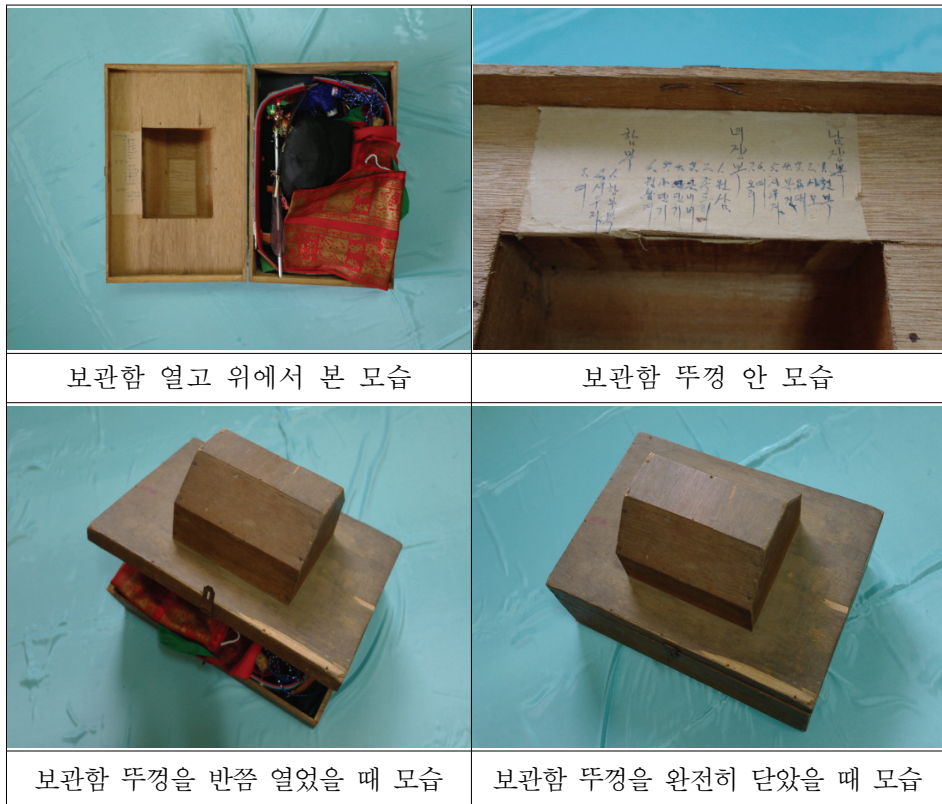
<사진 4-16>은 1940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부의 것으로 녹원삼, 죽두리, 비녀가 있었다. 신랑의 것으로는 자색 단령, 사모와 복건, 각대, 단령 술, 흑화 두 켤레가 있었다. 이 혼례복은 보관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여자 혼례복		남자 혼례복	
			
녹원삼 앞면	녹원삼 뒷면	자색 단령 앞면	자색 단령 뒷면
			
대대	앞댕기	사모	복건
			
뒷댕기	죽두리	각대	흑화
			
비녀	달비	술	
나무오리와 보자기		함부복	
			
나무 오리	나무오리 보자기	함부복 앞면	함부복 뒷면

<사진 4-17> 1950년대 추정 혼례복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마을회관 보관)

<사진 4-17>은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마을회관에서 보관하는 1950년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혼례복이다. 1940년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혼례복보다 매우 보관상태가 양호했으며 지금도 지역 문화행사 때 가끔 사용된다고 한다.

신부의 것으로는 녹원삼, 대대, 앞댕기, 뒷댕기, 족두리, 비녀, 달비가 있었고 신랑의 것으로는 남색 단령, 사모, 복건, 각대, 흑화, 술이 있었다. 또한 함진애비가 입었던 함부복과 나무 오리와 오리를 썬은 보자기도 있었다.



<사진 4-18> 혼례복 보관함(1950년대)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마을회관 보관)

<사진 4-18>은 위 <사진 4-17>에 있는 혼례복 일체를 보관해 놓는 보관함이다. 이 보관함 때문에 1950년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혼례복인데도 상태가 매우 양호할 수 있었다고 본다.

<표 4-8> 보관함 뚜껑에 적힌 품목(1950년대)

함 부								녀 장 복					남 장 복			
3.	2.	1.	6.	5.	4.	3.	2.	1.	7.	6.	5.	4.	3.	2.	1.	
띠	시 우 자	함 부 복	원 삼 띠	小 단 기	큰 단 기	큰 비 녀	족 두 리	원 삼	오 리	띠	시 우 자	복 건	요 대	사 모	전 복	

<표 4-8>은 <사진 4-18>의 혼례복 보관함 뚜껑 안쪽에 적혀 있는 목록이다. 보관함에 들어있던 신랑복, 신부복, 함부복의 소품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목록에서 나타난 혼례복에 관한 용어를 <사진 4-18>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신랑의 단령은 전복, 각대는 요대, 술은 띠, 흑화는 시우자, 신부의 뒷댕기(큰댕기)는 큰단기, 앞댕기(소댕기)는 소단기, 대대는 원삼띠, 함진애비가 입은 상의는 함부복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큰단기와 소단기에서 ‘단기’는 댕기의 충남지역 사투리로 보이며 또한 ‘시우자’도 사전에 없는 것으로 보아 충남지역의 사투리로 흑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면접 대상자에게 시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면접16은 당시에 신랑이 수혜자를 신었다고 하였다. 수혜자(水鞋子)는 비 올 때 신는 무관의 장화를 뜻하고 ‘수화자’ 또는 ‘쇄자’라고도 하므로(한글학회, 1991) 예산군 오가면에서는 수혜자를 시우자라고 표현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우자’는 흑화

또는 목화를 뜻하며 수혜자의 충남지역 사투리로 보인다.

면접3은 원삼을 입기 전에 시집에서 해 놓은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는데 시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연분홍치마와 옥색저고리를 입었다.

“신랑집에 가니께 치마저고리를 해놓았다러나니께. 시아버니 없다고 연분홍치마 옥색저고리 그거 주더라니께. 그거 입고 결혼했다니께. 그게 채단이던게버. 지금 생각허니께.”(면접3)



<사진 4-19> 면접4가 입은 혼례복과 유사한 원삼과 단령(1940년대)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마을회관 보관)

1943년 아산에서 혼인한 면접4에 의하면 자신의 혼례 때 신부는 연두색 원삼과 신랑은 자주색 관복을 입었다.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에서 보관중인 옛 혼례복 두 세트 중에 오래된 위 <사진 4-16>의 혼례복이 연두원삼과 자주단령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혼례복이 사용된 시기와 면접4의 혼례시기가 같기 때문에 1940년대의 혼례복이 위 사진과 같다고 본다.

면접3, 19, 23은 원삼을 입을 때 속옷으로 명주솜바지를 입었다. 면접3은 11월에 예식을 행하였지만 면접19는 4월에 면접23은 9월에 예

식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주솜바지를 입었다. 면접23에 의하면 신부가 혼인해서 잘 살라고 솜바지를 예식 때 입었다고 하였다.



<사진 4-20> 명주솜바지(1958년, 면접25)

여성 면접 대상자 대부분은 쪽머리로 비녀를 꽂았지만 일부는 퍼머먼트머리라서 비녀를 꽂기 위해 짧은 머리를 묶거나 달비를 사용하였다. 1950년대에는 퍼머먼트머리가 유행하였고 이 때 면접12, 19, 21, 23은 퍼머먼트머리라서 달비를 이용하였거나 짧은 머리를 묶었다. 면접8은 달비를 ‘다루’라고 표현했다.

면접21의 예식 사진인 <사진 4-15>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4-16>과 <사진 4-17>에서 신랑의 사모와 복건을 볼 수 있듯이 당시에 복건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면접1, 22, 23만 신랑이 복건을 쓰고 사모를 썼다고 기억했고 나머지 모든 면접에서는 복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복건 쓰고서 사모 쓰는 것 아니죠. 복건은 총각이 쓰는 거. 사모 쓰면 무슨 복건이 있어. 총각 애들 제사 지내려면 복건 만들어서 썼지.”(면접23)

면접23에 의하면 복건은 총각이 쓰는 것으로 예식을 행하는 신랑은 복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표 4-7>을 보면 혼례복은 일반적으로 단령과 원삼을 입었는데 현구고례복은 단령과 원삼을 입은 면접 대상자도 많지만 두루마기와 치마 · 저고리를 입는 경우도 많다. 혼례복과 현구고례복으로 모두 단령과 원삼을 입은 면접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례복은 신부집에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입고 현구고례복은 신랑집에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입었다. 그러므로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복과 현구고례복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단령과 원삼이었다.

면접25는 혼수로 해 온 옷을 다 입지 못하고 다락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옷이 오랫동안 부엌 위에 있는 다락에 있었기 때문에 연기에 그을려서 누렇게 변했다고 아쉬워했다. 혼수로 석죽이상 해 온 옷을 시누이들과 함께 입어서 많이 없어졌지만 한 번 입고 빨면 손이 많이 가는 옷이라서 한 번 입고 더 이상 안 입은 것도 입고 한 번도 못 입은 옷도 있었다. 혼수 옷은 평생 사계절 입을 수 있게 준비해오는 경우가 많아 삼베 · 모시 저고리와 광목 · 견 · 솜으로 만든 저고리 등 다양하였다.

“농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 때는 그릇 같은 것은 없고, 전부 옷이지. 저 입을 옷을 열 벌이면 그거 한 죽이라고 굉장히 잘 해가지고 가는겨. 겨울 옷 열 벌, 봄가을 열 벌, 여름옷 열 벌. 열 벌씩 해오면은 잘 해온다고 했지. 굉장히 잘 해온겨. 석 죽은 해 왔어. 그래서 혼수는 많이 해왔다고 했지. 시누가 큰 시누이가 16살이고 둘째 시누는 13살인가 되거든디 등치가 좋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 옷들 같이 입었어요. 그래도 많이 입었어도 아직 안 입은 것이 있어요.”(면접24)

옷을 셀 때의 단위는 ‘죽’인데 한 죽은 열 개를 말한다. 저고리 한 죽은 저고리 열 개이며 치마 한 죽도 치마 열 개이고 버선 한 죽도 버선 열 켤레를 의미한다. 면접25는 혼수로 저고리 석 죽, 버선 한 죽, 앞치마 한 죽 등을 해왔고 이것을 시누이들과 함께 입었으며 면 접3도 혼수로 해 온 옷을 시어머니와 함께 입었다.

			
광목고쟁이	광목옥색치마	명주치마저고리	인조숨바지
			
본견양단저고리	본견양단저고리	본견저고리	삼베적삼
			
삼베적삼	옥양목적삼	인견저고리	인조숨저고리
			
인조숨저고리	인조적삼	버선	버선수(八十)

<사진 4-21> 초려 이유태 선생 중부의 혼수(1958년)

초려 이유태 선생 종부인 면접25의 혼수에 대한 구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조솜바지-혼례 때 한 번 입었다.
- 광목고쟁이-하나만 만들어 왔으나 입기 불편해서 한 번도 입지 않았다.
- 광목옥색치마-어른들(시조부모) 계시니 복입으라고 ‘옥색’으로 물들인 옷이고 한 번도 안 입었다. 상제는 하얗게 입고 손녀나 손부는 옥색으로 입었다.
- 옥양목적삼 두 벌-봄과 가을에 입는 저고리이다.
- 베적삼-한 번도 안 입었고 모시적삼 열 개는 다 입었다.
- 명주치마와 저고리-한 벌만 해 왔고 제사 때 입었는데 생활에 바빠 세탁과 바느질이 힘들어 그 후 전혀 입지 않았다.
- 인조적삼-옷고름이 없는데 당시에 브로치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 버선-버선에 있는 팔십이란 한자는 팔십까지 살라는 뜻에서 수를 놓았다.

면접18은 혼수를 많이 해왔는데 치마 세 개만 남았고 예식 후 시댁에서 마을 사람들이 새댁구경을 오면 장롱에 있는 이 옷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면접30은 혼수로 이불과 농 그리고 치마 한 죽과 저고리 한 죽을 해왔다. 신부집이 넉넉한 살림이면 이렇게 혼수로 농과 많은 옷을 해왔지만 대부분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고리와 치마를 두 세 벌 씩 해왔거나 아무것도 없이 해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귀 후) 삼일 날 저녁에 버선 기라고 내놓네. 그게 첫 일이며, 새아씨 솜씨 보느냐고. 버선은 잘 기어야 되거든. 그러게 버선 기라고 내놓더라구.”(면접1)

1940~1960년대에는 버선이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예단으로 많이 쓰였다. 또한 면접1에 의하면 버선 기는 것으로 신부의 바느질 솜씨를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22> 옆으로 뉘어 부착된 단령의 흉배(1940~1960년)

(예산군 오가면 원천3리 마을회관 보관)

<사진 4-22>를 보면 한 마을에서 1940~1960년에 사용된 신랑 단령 두 벌 모두 쌍학흉배로 옆으로 뉘어 부착되어 있다. 사용시기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며 단령의 색깔이 다른데도 쌍학의 흉배는 똑같이 옆으로 뉘어 부착되어 있다. 김정자<sup>8)</sup>는 충남지역의 혼례복에서 쌍학흉배가 옆으로 뉘어 부착한 예를 보고 다른 유품이나 조사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초려 이유태 선생의 종손인 면접<sup>24</sup>는 이에 대해서 실제 관복의 흉

8) 김정자(2000). 20세기 중엽 충청지역의 혼례복과 혼례풍속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한국민속학회 50(3). pp.105-116.

배에는 쌍학이 위·아래로 있지만 혼례복으로 쓰는 관복은 부부가 평등하게 옆으로 서로 마주 보는 것을 상징하여 옆으로 뉘어 부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랑의 혼례복인 단령에 부착된 흉배의 쌍학이 옆으로 마주보고 있는 정확한 뜻은 밝히기 어려우나 본 연구자도 면접24의 견해와 같고 이러한 현상이 충남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본다.

## 2) 혼례복식의 특징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복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혼례복과 현구고례복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단령과 원삼을 빌려 입었다. 일부 신부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원삼을 입는 경우는 가족의 수의로 쓰기 위하여 세 번을 돌려 입는 경우였다. 혼례복은 모든 면접에서 단령과 원삼을 입었으며 현구고례복은 단령과 원삼을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간편하게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만 입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신부집에서 행하는 예식 때의 단령과 원삼은 신부집 마을의 것이고 신랑집에서 행하는 현구고례 때의 단령과 원삼은 신랑집 마을의 것인 경우가 많았다. 신랑은 일반적으로 남색단령에 사모관대를 착용하였으며 신부는 홍원삼 또는 녹원삼에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면접 대상자 중에 예식 때 속옷으로 4월과 9월 예식인데도 명주솜바지를 입었는데 이는 신부가 잘 살기 바라는 기복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면접 대상자 중에는 신식혼례를 행한 경우가 없어 한복만 입고 면사포를 쓰거나 드레스를 입은 경우도 전혀 없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퍼머먼트의 영향으로

1950년대에 혼인한 일부 여성 면접 대상자는 퍼머먼트를 해서 쪽머리를 안하고 달비를 사용해 비녀를 꽂았고 일부 신랑은 사모를 쓸 때 그 안에 복건을 쓴 경우도 있다. 또한 신랑 단령의 쌍학흉배가 옆으로 누어 부착되어 쌍학이 옆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평등하게 옆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충남지역의 특징으로 보인다.

일부 면접 대상자는 혼수로 살림살이 보다 본인이 사계절 입을 옷만 해왔고 친정이 잘 살 경우 혼수로 저고리를 석 죽이나 해 온 면접 대상자도 있다. 봄·가을에 입을 적삼저고리 한 죽, 여름에 입을 모시와 삼베저고리 한 죽, 겨울에 입을 솜저고리 한 죽을 해왔고 시댁의 살림이 어려운 경우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나누어 입었다.

## 5. 혼례음식의 분석과 특징

### 1) 혼례음식의 분석

1940~1960년에 충남지역에서 혼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함 상, 혼례상, 큰상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함 상, 혼례상, 큰상여부

면접	내용		혼례상	큰상 여부
	면접	함 상		
면접1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용떡,잡은 닭	×
면접2	여	봉채떡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쌀,팥,산 닭(묶어서)	×
면접3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산 닭(잡고 있음)	×
면접4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봉채시루	○
면접5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쌀,산 닭(묶어서)	×
면접6	여	찬물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쌀,산 닭(묶어서)	×
면접7	남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진,산 닭(잡고 있음)	×
면접8	여	×	소나무,대나무,산 닭(잡고 있음)	○
면접9	여	찬물	△	×
면접10	남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시루떡	○
면접11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	×
면접12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산 닭(잡고 있음)	×
면접13	남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산 닭(잡고 있음)	×
면접14	남	봉채떡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술안주, 산 닭(잡고 있음)	○
면접15	여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곡물, 산 닭(잡고 있음)	○
면접16	남	×	소나무,대나무,청실홍실,초,삼색실과,곡물, 산 닭(잡고 있음)	○

면접17	남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쌀, 잡은 닭	○
면접18	여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쌀, 잡은 닭	○
면접19	여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국수, 잡은 닭	×
면접20	여	붕채떡	들쭉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약밥, 쌀, 진, 흰떡, 잡은 닭	
면접21	여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잡은 닭	×
면접22	남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사과, 배, 국수, 잡은 닭	×
면접23	여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사과, 배, 국수, 잡은 닭	×
면접24	남	붕채떡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달떡, 명태포, 잡은 닭	○
면접25	여	붕채떡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달떡, 명태포, 잡은 닭	○
면접26	남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
면접27	남	붕채떡	△	○
면접28	여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국수, 잡은 닭	×
면접29	남	△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찹쌀, 팥, 진, 떡, 산 닭(잡고 있음)	×
면접30	여	붕채떡	소나무,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 찹쌀, 팥, 진, 떡, 산 닭(잡고 있음)	×

△: 기억이 안남

대부분의 남성 사례는 혼례에 쓰인 음식 중에서 혼례상과 잔치음식에 대해서는 잘 답했지만 붕채떡 · 큰상 · 폐백음식 등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었다.

“(함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시루떡 한 채 해놓고서 거기다가 함 받아서 올려놓고. 장모가 받아서 올려놓는 거.(시루떡을 뭐라고 해요?) 붕채시루라고 하지.”(면접23)

면접25는 함을 받아서 붕채시루 위에 올려 놓았다. <표 4-9>를 보면 일반적으로 함을 주고받는 의식에서 많이 쓰이는 붕채떡이 본 면접조사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았다. 일부 면접 대상자는 붕채떡 대신

에 찬물을 상에 올려놓고 함을 받았다.

면접20에 의하면 전안상에도 시루떡을 놓았고 면접30에 의하면 초례를 행할 때 조상에게 절을 올릴 때도 시루떡을 놓았다. 면접4에 의하면 혼례상에도 시루떡을 놓았다. 시루떡이 전안례, 초례, 혼례 등의 제사의 의미를 가진 여러 혼례 절차에서 자주 쓰인 것으로 보인다.

혼례상은 기본적으로 소나무와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밤, 대추, 꽃감), 닭이며 이 외에는 면접 대상자마다 조금씩 달랐다.

“삼색실과 다 놔. 밤 대추는 언제든지 안빠지는 거니까. 꽃감, 닭 두 마리. 그때는 산 닭 안 썼어. 지금들이 산 닭 쓰지 그 때는 잡았어. 용떡. 대나무하고 소나무.”(면접1)

“대나무 꺾어다 놓고 청실홍실 걸어놓고 원앙오리 암놈 하나 수놈 하나 놓고. 밤대추, 초는 양쪽에다 다 켜놓았어요.”(면접3)

“(혼례상에는 음식으로 무엇을 올려놓았나요?) 촛불 켜놓고 양쪽. 밤대추 놓고 과일 놓고 봉채시루 놓고. 대사 지낼 때 쓰는 쪼그만 시루 쪼 놓고.”(면접4)

“사철나무하고 대나무. 장닭하고 그리고 곡물은 뭐뭐 썼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나요.”(면접16)

“혼인상에는 달떡이라고 하얀 쌀로 달떡을 둥글둥글하게 땡글어서 5개 맨들어서 놓고. 납작스럼하게 둥그랗게 달떡이라고 맨들어 놓고. 그리고 삼색실과 하고 거기에 아마 명태포간 뭐 있을꺼. 솔잎하고 대나무하고 놓고 실로 늘어뜨려서...”(면접25)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것이 그릇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서 놓지. 옛날에 부자가 되라고서 식량으로 놓았다는 건데. 그리고 닭이 올라가고.”(면접18)

“우리는 잡아가지고 양쪽에다 놔. 어려운 사람들은 닭을 산 놈을 했다가 끌러놓

고 했다는 거여. 내가 알아 입에다가 대추 물어준 것 생각나”.(면접17)

혼례상은 <표 4-9>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나무와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밤, 대추, 꽃감), 닭만 놓은 경우도 있고 이 외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쌀, 콩, 팥, 달떡, 용떡, 국수, 시루떡, 명태포가 놓인 경우도 있다. 혼례상의 면접 조사 결과 특징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 외에 올라가는 쌀, 곡류, 달떡, 용떡, 국수는 모두 쌀 · 밀가루 · 콩 · 팥 등의 곡류인데 모든 면접에서 이 곡류 중에 한 두 가지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쌀과 국수가 올려진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상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밤, 대추, 꽃감), 닭, 곡류를 올렸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면접20은 혼례상 위의 사철나무를 꽃은 화병에 들어있던 팥을 시집을 때 가지고 왔고 면접30은 혼례상 위에 놓였던 팥과 찹쌀을 시집을 때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밥을 해주었다.

대부분 혼례상에는 산 닭을 쓰며 다리를 묶어 상위에 놓거나 상 양쪽에서 사람이 안고 있었다. 하지만 면접1, 18, 20은 잡은 닭을 상위에 올려놓았는데 면접20에 의하면 신랑측 닭의 부리에는 밤을 물리고 신부측 닭의 부리에는 대추를 물려주었다. 면접18에 의하면 살림이 어려운 집일 경우 산 닭을 찢다가 다시 풀어주었고 있는 집은 잡은 닭을 찢다. 또한 면접6은 어른들이 산 닭을 혼례상에 올려놓고 닭 앞에 쌀을 놓았을 때 닭이 쌀을 많이 쪼아 먹을수록 복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이 자식 낳아 키울 때 고만치 탄 만치 그게 애태우며 키웠다고 촛불은 켜다테. 그 초가 타잖유 그렇게 애타가매 키웠다고 결혼할 때 그것을 켜다테요. 그

것도 다 의미가 있네.”(면접3)

모든 면접에서 혼례상에 초를 놓았는데 면접3은 혼례상에 초를 놓고 태우는 것은 초가 타는 만큼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예식이 술을 따르며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사를 지낼 때와 같이 혼례상에도 초를 켜 놓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혼인집들은 예식 날 신부집에서 신랑을 위해 신랑 큰상을 차려주고 우귀 후 신랑집에서 신부를 위해 신부 큰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살림이 어려워져서 큰상을 받지 못하였다. 면접25는 본인은 큰상을 대신해서 떡국이 있는 작은상을 받았지만 신랑은 다양한 음식을 고임한 큰상을 받았다. 반대로 면접4는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랑 큰상을 못해주었는데 본인은 시집에서 며느리상을 받았다.

“우리는 신랑상, 후행상, 진상해서 큰상을 세 개를 차렸어. 진상은 친정어른신네가 계셨으니까 이만큼씩은 다 꺾어서 큰상을 했어요.”(면접24)

“그 때 우리는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었어. 상이고 뭐이고 그런거 생각을 못했는디.(남편)

그런디 처가집에서 받은 상은 생각해요?(아내)

아 그것도 모르지.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남편)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해 그래. (신랑상에 뭐해줘요?) 아 신랑상에 몇 가지 과일이란 과일은 상에다 놓고 뭐이고 다 있는 대로 골고루 해서 교자상에 놓고.(아내)

먹지 못하고 쳐다가 보는 거지.(남편)

쳐다만 보는 거지 먹지는 못해. 앞에는 술안주하고 떡국하고 해주고서는. 글썽상 그렇게 한 것은 난 다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오라버니맥 들쩍에는 큰상을 해준다고 참 큰상에다 돼지다리 하나 를 놓고 막 그냥 떡도 이만큼씩 고이고 그냥

큰상은 많이씩 고이고. 주물상이라는 것은 보통 쪼그만한 접시에다 이만큼씩 고여서 주물상이라고 했지. (주물상에 있는 것을 먹나요?) 앞이다 떡국도 있고 안주도 있고 술잔도 있으니께 그 것을 먹지. 나는 시집으로 오니께, 요거만한 혼자 옛날상 요거만한 거 있잖아. 거기다가 접시에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혼자 먹을 것을 담아서 떡국하고 갖다주는데 속으로 괜장히 그런 것을 안보다 보니께 웃기더라구..(아내)

아 그때 우리가 글썄 일년농사 지은게 벼 일곱섬인가 할 때여. 뭐이가 있어.(남편)”(면접24와 면접25)

“(큰상 받았어요?) 상 받았지. 앉아서 술 한잔 따라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했지. (작은상이 있었나요?) 쪼그만거 있지. 주안상처럼 생긴거, 주안상이라고 하던가.”(면접14)

“큰상 받았어 나. 대청마루 있었어. 거기에 차려놓고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구. (그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색씨집으로 보내드라구. (신랑도 받았어요?) 신랑도 해줘야 하는데 색씨집에서 여유가 없으니께 나만 받았지. 시집와서 시댁에서 며느리상만 해줬지. 저기한 집은 서로가 해준다는디 그러지 못했지.”(면접4)

면접14, 25는 신랑 큰상을 받았다. 면접24는 입땃상을 ‘주물상’이라고 표현하였고 주물상에 떡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면접14는 큰상 앞에 놓인 입땃상을 ‘주안상’이라고 하였고 안주와 술이 주로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그리고 면접14는 관대뱃김을 하였고 그 때 또 주안상을 받았는데 국수에다 떡국을 조금 섞은 음식이 있었다.

“관대뱃김하는데다 국수하고 과일도 조금 놓고 떡도 놓고 상을 차려놓았더라구. 국수에다 떡국을 조금 넣은 것 같더라구.”(면접14)

잔치 음식, 현구고례 음식, 근친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잔치 음식, 현구고례 음식, 근친 음식

내용 면접		잔치 음식	현구고례 음식	근친 음식
면접1	여	국수,콩나물국,녹두묵, 메밀묵	닭(대추,밤),술-두 동굴이	인절미,절편, 고기산적,조청
면접2	여	국수,녹두묵,메밀묵	닭(대추,밤),소고기적,술	×
면접3	여	밥	×	×
면접4	여	국수	닭(대추,밤)	인절미
면접5	여	국수,메밀묵,밀가루전	×	×
면접6	여	국수,밀가루전	닭,술	떡,닭,술
면접7	남	국수,콩나물국	△	떡,고기
면접8	여	국수	닭,고기,다식,대추,밤	△
면접9	여	△	닭,술	×
면접10	남	국수	닭(대추,밤)	△
면접11	여	국수	×	×
면접12	여	국수,메밀묵,도토리묵	시댁에서 간단히 준비해서	떡,엿
면접13	남	국수,메밀묵,도토리묵	시댁에서 간단히 준비해서	떡,엿
면접14	남	떡국	닭(대추,밤)	인절미,생고기,닭
면접15	여	국수,떡(인절미,절편), 묵	△	떡,닭
면접16	남	국수,떡(인절미,절편), 묵	△	떡,닭
면접17	남	국수,녹두묵	닭(대추,밤),인절미,절편	떡,고기
면접18	여	국수,녹두묵	닭(대추,밤),인절미,절편	떡,고기
면접19	여	국수,수수전	×	×
면접20	여	국수,묵,녹두나물	닭,대추,밤	인절미,엿
면접21	여	국수	닭,술	×
면접22	남	국수	닭(대추,밤),술	절편
면접23	여	국수	닭(대추,밤),술	절편
면접24	남	국수,떡국,	닭,대추,밤	인절미,엿
면접25	여	국수,떡국	닭,대추,밤	인절미,엿
면접26	남	국수	닭(대추,밤)	떡
면접27	남	국수	닭(대추,밤)	△

면접28	여	국수	×	×
면접29	남	국수,묵	△	×
면접30	여	국수,묵	△	×

△: 기억이 안남

혼례잔치는 일생의례 중에 가장 푸짐한 잔치이다. 혼례는 양가의 잔치인데 예식 날 잔치는 신부집 잔치이고 신부가 우거를 행하고 신랑 집에 왔을 때는 신랑집 잔치이다.

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음식이다. 잔치 음식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하객에게 대접하는 주음식은 국수, 떡국, 콩나물국과 밥이 대표적이었다. 국수가 명이 길으라고 쓰는 음식이기 때문에 잔치에서 많이 쓰였지만 면접조사에 의하면 가정 형편에 따라 국수, 떡국, 콩나물국과 밥을 대접하였다. 잘 사는 집에서는 떡국을 대접하고 보통은 국수를 많이 대접하며 살림이 어려운 집은 콩나물국과 밥을 대접하였다. <표 4-14>를 보면 국수를 대접한 면접 대상자가 가장 많다. 면접1은 국수와 콩나물국 두 가지를 준비해서 어른들에게는 국수를 대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콩나물국을 대접하였다. 면접례24는 떡국과 국수 두 가지를 준비해서 손님들에게는 떡국을 대접하고 집안사람들에게는 국수를 대접하였다. 또 일부 면접 대상자는 떡국도 국수도 귀해서 떡국에 국수를 넣어서 내놓기도 하였다. 이해보아 혼례 잔치 주음식을 떡국, 국수, 콩나물국 순서로 알아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축의금을 받은 면접 대상자는 면접17, 18, 21, 22일 뿐이고 나머지 면접 대상자들은 축의금 대신에 부조로 국수, 콩나물, 두부, 묵, 고기, 계란, 떡 등을 받았다. 품앗이처럼 받은 이 부조 음식은 잔치에 중요한 재료로 쓰였으며 혼례는 미리 날을 잡기 때문에 이웃에서 어떤 부조를 한 것인지 잔칫집에 미리 말을 해주기도 하였다.

“나 어렸을 때 옛날 어른들이 잔칫집에 가면 묵부터 먹어야 한다고 그러시데. 그걸 먹어야 악귀가 물러간다. 그런게 메밀묵이나 녹두묵을 그래서 쓴다. 옛날 어른들 얘기 들으면 그러시데.”(면접1)

“잔치하는 집 가면은 찻짜 묵이라고. 묵부터 먹는다이거죠. 저런디 다니며 주서다서 상수리 도토리 따다서나 그냥 하고 메밀..메밀묵도 하죠. 도토리묵 메밀묵 두 개 나오죠.”(면접16)

“속담에 잔치가 안 될라면 묵부터 원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찻짜 묵이거든. 아무나 쭈는게 아니여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지.”(면접29)

잔치 음식으로 묵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묵이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다. 녹두묵(청포묵), 메밀묵, 도토리묵, 상수리묵, 돈부묵 등 잔치하는 집에서 묵을 준비해서 하객에게 대접을 하였다. 이는 잔칫집에 온 손님에게 묵을 가장 먼저 먹게 하여 악귀를 쫓아낸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담겨있다.

혼례에서 혼례상 음식, 잔치 음식과 같이 중요한 것은 현구고례를 행할 때 쓰이는 음식이다. 현구고례를 ‘폐백’ 또는 ‘피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현구고례 때 신부는 신부집에서 준비해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표 4-10>을 보면, 현구고례 음식은 대부분 닭과 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닭을 실에 꿰 밤과 대추로 장식해서 한 동굴이에 넣어서 시택에 가지고 왔다.

“폐백동글이 해가잖어. 술하고 대추. 대추하고 닭하고 술 한 잔. 시아버지께 시할아버지께 따로. 동글이가 두 개였지.(친척들은요?) 친척들은 안했지.”(면접1)

“옛날에는 닭한마리에다 양념해서 폐백닭이라고 했지. 거기다 밤대추를 감았지. 그러면 절히고 나면 어른들이 그 대추 빼서 신랑신부에게 던져주더라우.”(면접4)

면접1, 25는 시조부모가 계셔서 닭을 두 동굴이를 준비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 시조부모와 시부모의 음식을 따로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혼례절차에 따른 마지막 혼례음식은 근친을 행할 때 신부가 친정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근친 음식이다. <표 4-10>을 보면, 근친 음식으로 인절미와 절편, 고기, 엿이 가장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친정이 갈 때 해가고 또 거에서 해오고. 인절미, 조청, 고기산적, 혼떡, (혼떡이 뭐예요?) 가래떡. 살떡. 살박아서 그 때는 떡살이 따로 있었거든. (이바지음식이 오고 갔네요?) 그래서 ‘사돈음식은 똥보다덤 더럽다’.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사돈네서 가지고 온 음식은 별로 안좋아.”(면접1)

“신랑집에서 이바지를 많이 보내면은 빈그릇을 보낼 때 거기다 팔도 넣고 콩도 넣고 쌀도 넣고 그렇게 보냈지. 신부집에서 빈그릇 안 보낼려고.”(면접16)

“제돌 만에 근친 갈 적에 엿하고, 인절미는 했다...옛날에는 엿 과가지고 엿을 동그렇게 맨글어서 콩고물을 묻혀서 그렇게 보냈잖아.”(면접24)

근친 음식은 시댁에서 며느리가 친정 갈 때 준비해주는 음식으로 사돈 음식이다. 신부가 시댁 음식을 가지고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도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 올 때 정성들인 음식을 함께 보냈다. 그래서 면접1은 사돈음식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갚아야하므로 언제나 받으면 부담된다고 하였다. 면접1은 이 근친 음식을 모두 이바지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혼례 때 양가가 주고받는 모든 음식을 이바지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 2) 혼례음식의 특징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음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함을 주고받을 때 봉채떡 위에 올려 받은 일부 면접 대상자가 있고 찬물만 올리고 함을 받은 면접 대상자도 있다.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상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밤, 대추, 꽃감), 닭, 곡류 한 두 가지에 더러 전이 올려졌다. 혼례상에 올려진 곡류는 쌀, 콩, 팥, 달떡, 용떡, 국수, 시루떡 등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혼인집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었는데 일부 면접 대상자만 큰상을 받았다. 혼례 잔치에서 하객에게 대접하는 주음식은 떡국, 국수, 콩나물국 순서로 알아주었고 떡국과 국수가 귀해서 떡국에 국수를 넣어서 대접한 경우도 있다. 혼인집은 부조로 국수, 콩나물, 두부, 묵, 고기, 계란, 떡 등을 받았으며 묵은 잔칫집에서 빠지지 않았다. 묵을 먹으면 악귀가 물러간다는 의미가 있어 잔칫집에 가면 묵부터 먹었다. 현구고례 음식은 ‘폐백’ 또는 ‘피백’이라고 표현하였고 대부분 닭과 술이었다.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현구고례 음식으로 닭을 실에 꿰 밤과 대추로 장식을 해서 동굴이에 넣어서 시댁으로 가져갔고 근친을 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절미와 절편, 고기, 엿을 가지고 갔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의 혼례복식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1940~1960년의 충남지역은 신랑이 혼례복으로 남색단령을 입었고 신부가 혼례복으로 녹원삼과 홍원삼을 함께 입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김정자(2000)는 충남지역 1920~1950년의 혼례복 연구에서 신랑은 남색단령을 입었고 신부는 녹원삼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신부의 원삼의 색깔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한 김정자(2000)는 신랑 단령의 쌍학 흉배가 옆으로 뉘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당시에 사용하였던 신랑의 단령에서 단령의 앞과 뒤에 부착된 쌍학흉배가 옆으로 뉘어져 부착되어 있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는 관복을 혼례복으로 사용할 때 쌍학이 옆으로 마주 보고 있게 하여 부부가 평등하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

혼례음식에 관한 연구결과,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상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청실홍실, 초, 삼색실과(밤, 대추, 곶감), 닭, 곡류 한 두 가지가 올려졌고 모든 면접의 혼례상에 사철나무와 대나무가 쌀그릇이나 화병에 꽂혀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인 박혜인(1988)과 정승근(2003)은 충남지역 혼례상에 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충남지역의 혼례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부 다르게 나왔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충남지역 혼례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혼례복식과 혼례상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현구고례 시의 순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구고례 시에 일부 면접 대상자는 시부모부터 드렸고 일부 면접 대상자는 시조부모부터 드렸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신부가 이미 예를 행하고, 서쪽 층계로 내려와 동거인 중에 시부모 보다 어른이 계시면, 시부모는 신부를 데리고 그 방으로 가 뵙되, 시부모를 뵙던 예와 같이 하여 두 서열로 두루 존장에게 절한다. 관례 때의 예식처럼 하되, 폐백은 없다.”(우봉이씨대종회, 1992)고 하였다. 이는 시부모가 먼저 절을 받고 시부모 보다 어른에게는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절을 시켰는데 이 때는 폐백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 시부모 보다 어른에게 절을 하면서 폐백은 없다하였기 때문에 시조부모도 이 어른에 포함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시조부모와 시부모가 함께 계실 때 어느 순서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본다. 본 연구의 면접 대상 중에서 신랑을 낳은 부모가 먼저라고 하거나 부모 보다 어른인 시조부모가 먼저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더욱 필요하다.

## 2. 결론

본 논문은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를 혼인제도, 혼례절차, 혼례음식, 혼례복식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혼례문화연구는 문헌 연구, 설문지 조사 연구, 면접 조사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혼례 문화의 연구에서 면접 조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혼례문화 변천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 연구 대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대상자는 연령이 높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수가 줄어드는 70~90세 정도의 노인들이다. 이 연령의 연구 대상자들이 혼인한 시기가 평균적으로 1940~1960년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 시기의 혼례문화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 중에 부부가 6쌍이었는데 남편과 아내로서 기억하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 부부 면접조사가 혼례문화를 알기 위해서 더욱 효과적인 조사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절차에 대해서 더욱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아내는 복식이나 음식에 대해서 더욱 많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부부로서 서로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중요한 역할도 해주었다.

연구 대상지역은 ‘예학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충남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940~1960년은 1960년부터 시작한 산업화로 신식혼례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신식혼례가 일반화되기 직전이므로 전통혼례와 신식혼례가 가장 많이 공존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예학이 발달한 충남지역에서 서구문화의 유입이 심했던 이 시기에 전통혼례와 신식혼례가 얼마나 공존하였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형태는 전통혼례 중심이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서구문화의 유입이 심해지면서 이미 전국에서 신식혼례가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대상자 중에는 신식혼례로 예식을 행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당시의 충남지역 예식은 전통혼례가 일반적이었으며 ‘구혼식’이라고 표현하던 전통혼례로 모든 면접 대상자가 신부집이나 신랑집 마당에서 예식을 행하였다.

집안이 잘 살거나 학자 집안인 경우는 중국전통혼례인 유교적 가례

의 혼례절차를 따랐으며 집안이 가난하거나 학자 집안이 아닌 경우에는 유교적 가례를 따르지 않았다. 그 예로 집안이 잘 살거나 학자 집안의 혼례에서는 초자례, 초녀례, 홀기, 예식 후 재행, 현구고례 시 신부만 절을 드리는 것을 유교적 가례대로 행하였다. 하지만 그 외 가난하거나 학자 집안이 아닌 집의 혼례에서는 초자례와 초녀례를 행하지 않았고 예식을 홀기 없이 집안 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으며 재행을 우귀 후에 행했으며 현구고례 시 신랑 신부가 함께 절을 드렸다.

모든 면접의 예식 시간이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였는데 유교적 가례를 따르는 집안에서도 해지는 저녁에 예식을 행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유교적 가례에서 혼례를 婚禮가 아닌 昏禮라고 쓰는 것이 예식을 음과 양이 교차하는 저녁무렵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 예식의 시간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면접에서 재행은 우귀를 행한 후 행하였고 일반적으로 우귀 후 삼일 후에 행하였다. 유교적 가례의 친영에서는 신랑 집에서 예식을 행하므로 신부가 우귀를 한 후에 예식을 행하여서 재행이 없다. 반친영에서는 신부집에서 예식을 행하고 신랑이 본가로 돌아왔다가 삼일 만에 재행을 행하여 신부를 데리고 우귀를 행한다. 이 때 재행이 우귀 전인데 반해 1940~1960년의 혼례에서는 당일 우귀, 2일 우귀, 3일 우귀 후에 재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혼례의 절차가 친영이나 반친영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의 전통혼례가 유교적 가례를 따르기도 하였고 따르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한 고조선전통혼례와 중국 전통혼례의 문화접변현상으로 나타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의 모습들이라고 본다.

당시는 일제 말기 극심한 수탈과 6.25 전쟁으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혼례문화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혼인제도를 보면, 1940년대 초에서 중기까지 충남지역에서는 가장 심하게 조혼현상이 나타났다. 미혼남녀를 강제 징용과 강제 동원을 피하기 위해 나이가 어려도 혼인을 급하게 성사시켰다. 그래서 당시에 혼인한 면접 대상자의 혼인 나이가 적고 준비 기간도 짧았으며 혼례절차도 간소화 되었다.

통혼권은 교통수단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의 충남지역 통혼권은 일반적으로 도내 혼이나 군내혼으로 양가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양가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1940년대는 도보, 가마, 자전거, 말이었고 1950년대는 기차, 버스, 트럭, 택시였다.

충남지역 혼례복은 시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개인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종가나 일반 민가에서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는 마을의 단령과 원삼을 입었다. 또한 예단이나 혼수는 잘 사는 집 일부 면접 대상자 외에는 대부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생략하였다.

혼례음식에 있어서도 봉채떡의 사용이 적었고 혼례상의 닭은 살림이 어려워 잡은 닭을 쓰기보다 산 닭을 쓰고 예식 후에 풀어주었고 잔치 음식으로 잘 사는 집은 떡국이나 국수를 대접하였는데 콩나물국을 대접한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면접에서 신랑상과 신부상인 큰상은 없었고 근친을 갈 때 근친 음식인 이바지 음식도 없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면접 대상자의 혼례에서 혼례절차와 혼례잔치가 간소하게 행해진 것은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문화는 일제 말기 수탈과 6.25전쟁이라는

시대적 역경에서 온 경제적인 쇠퇴로 인하여 간소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940~1960년의 충남지역 혼례 문화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40~1960년은 개화기 이후부터 시작한 서구문화의 유입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빨라졌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통혼례와 신식혼례가 공존한 시기였다. 하지만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예학이 발달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당시의 충남지역에서는 전통혼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졌고 신식혼례나 서양식 혼례복식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혼례절차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한 고조선전통혼례와 중국전통혼례의 문화접변현상으로 당시의 전통혼례가 유교적 가례를 따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1940~1960년은 일제 말기 수탈과 6.25전쟁이라는 시대적 역경에서 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례를 행함에 있어 생략하고 간소화시키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남녀의 결합으로 한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을 중대한 결로 여기고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혼례의 모습을 잘 계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혼례문화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현존 연구 대상자 중에 가장 연령이 높은 70~90세의 노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령이 높은 연구 대상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면서 혼례문화에 관한 많은 기초 자료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한정해서 연구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1940~1960년에 혼인한 70~90세의 타지역 노인들에 대한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선미(1999). 한국 혼인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림(2001). 한국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1940년대~1990년대  
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원(2010). 계층과 혼례 음식 교환 방식-구 지례현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41.pp.287-326.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82). 한국민속대관 제1권.
- 고려대학교민속문화연구원(2001). 한국민속의세계. 고려대학교민속문화연구소.
- 국립중앙도서관(2011). 국역가례향의. 국립중앙도서관연구소.
- 권영한(1998). 사진으로 배우는 관혼상제. 전원문화사.
- 김득중(2007). 지향 가정의례. 중화서원.
- 김언희(2003). 조선 혼례와 중국 혼례의 다른 점.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옥(2008).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pp.1181-1196.
- 김인옥(2009). 근대화 이후 한국 혼례 산업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웨  
딩학회지 1. pp.29-43.
- 김인옥(2011). 한국의 혼인문화. 도서출판구상.
- 김인옥·노영미(2010). 혼인예식의 남녀 방위에 관한 사례연구-서천, 군산,  
전주예식장을 중심으로-. 한국웨딩학회지 2. pp.35-50.
- 김정자(2000). 20세기 중엽 충청지역의 혼례복과 혼례풍속에 관한 민  
속학적 연구. 한국민속학회 50(3). pp.105-116.
- 김종오(1981). 한국의 혼속연구. 대성문화사.

- 김주희(2003). 일제 후반기 결혼 예식과 혼수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가족과 문화 15(3). pp.87-110.
- 김주희(2005). 해방 후 혼수문화의 변천에 대한 사례연구: 부거제 의식과 가족주의의 지속. 가족과 문화 17(2). pp.127-154.
- 김진구·김순심(1993). 중국 조선족의 복식연구(Ⅰ) -혼례복에 관하여-. 한국복식학회 20. pp.191-210.
- 김필동(2000). 한국 종족집단의 형성과 변동-충청남도 당진군의 한 종족 마을의 사례. 농촌사회 10. pp. 261-292.
- 다니엘 기포드 저. 심현너 역(1995). 조선의 풍속과 선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박동철(2006).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1990). 한국 전통혼례의 창조적 계승과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政務長官(第2)室.
- 박혜인(1988). 한국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일(2004). 다시쓰는 택리지. 휴머니스트.
- 신혜성·홍나영(2007). 풍속화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pp.939-951.
- 안혜숙(2010).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혼례관행 변화에 관한 연구: 196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pp.87-108.
-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 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 여증동(2003). 혼례보감. 문음사.
- 우봉이씨대중회(1992). 국역사례편람. 이화문화출판사.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학연문화사.
- 유호근(1990). 2000년대를 향한 충청남도의 개발전략. 지방행정연구 5(1). pp.85-99.
- 윤서석(2008). 한국의 풍속 잔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윤숙경 외(1997). 혼례음식 규범의 의미와 모형제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4). pp.451-462.
- 이길표·최배영(2000). 조선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 -19세기전 반~20세기초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pp.177-191.
- 이중환 저. 이익성 역(1997). 택리지. 을유문화사
- 이춘자·김귀영·박혜원(1997). 통과 의례 음식. 대원사.
- 이필영 외(2009). 한국인의 일생의례.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향숙(2012).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효선(2008). 조선시대 민가 전통 혼례복에 대한 지역별 비교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재(1972). 한국여성사 제2권. 서울이대출판국.
- 이효지(1997). 서울 및 중부지방의 혼례음식 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2). pp.213-226.
- 이희재(2001). 醮禮의 종교적 의미. 동양예학 6. pp196.
-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pp.147-161.
- 전통예절연구회(1996). 관혼상제는 이렇게. 신나라.
- 정경희(2006). 한국의 조형미가 표현된 혼례복 연구-전통혼례복의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근(2003). 전통혼인음식에 관한 연구-폐백·이바지음식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순(1995). 복식. 대원사.
- 주영애(2010). 한국전통혼례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일 연구. 가족자원경영학회 14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집.
- 주영애·이향숙(2009). 학위논문을 통해 본 혼례 연구의 내용 분석과 전망. 한국웨딩학회지 1(1). pp.15-27.
- 충청남도. <http://www.chungnam.net>.
- 한국전통의례연구회(2005). 현대 가정의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상제. 고려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 한복려(1999). 쉽게 맛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떡. 궁중음식연구원.
- 한복진(1997). 전통음식. 대원사.
- 허경옥·배미경·김기옥·이승신·박선영(2003). 생활과학 연구방법과 통계 분석. 교문사.
- 현택수(1999). 결혼예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논문집. 통권 38호. 자연과학편(Ⅱ) pp.617-629.
- 홍나영(2000). 20세기 한국 혼례(폐백) 예복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 의료학회지 24(4). pp.594-604.
- 홍나영·이은진·박선희(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 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대정가정학회지 40(11). pp.141-156.
-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창연 외(2009).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A. 반겐넵 저. 김경수 역(1992). 아놀드 반겐넵. 을유문화사.

# ABSTRACT

A Study on Wedding Culture in Premodern South of  
Chungcheong Povince  
-from the 1940s to the 1960s\_

YoungMi Noh

Dept. of wedding industry & cultural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bout the wedding culture of the South of Chungcheong province from the 1940s to the 1960s and studied the system, the process, the costume and the food of the wedding in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the time.

The study of wedding culture consists of bibliographic reference, questionnaire research and interview but often lacks the interview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se studies.

To study the changes of the wedding culture, the most desirable interviewees are those who are in their 70s to 90s. It's because they are too old, as time goes by, we are losing them, at the same time, we also lose the precious data about the wedding culture in the times when they got married. Most of them got married around from the 1940s to the 1960s.. So we studied the marriage in those tim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region,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well-known as the area of the manners or "Yangban" helps understand how the western culture put effect on the wedding culture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from the 1940s to the 1960s, when lots of western culture was introduced extremely.

The thirty interviewees from the sixteen cities and towns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got married at the region, and are in their 70s to 90s. The interviewer met them in person, conducting both interviewing and recording, questionnaire research as well. The pictures of the related data were taken too. I believe these interviews really serve as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following studies on the changes of the wedding cultur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wedding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First of all,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were the most early marriages. Because intermarriag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most got married within the provinces or towns. The interviewees got married through matchmakers, and generally started to live together in the house of the groom after marriage.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process of the wedding, the traditional Korean wedding was general. Every interviewee married in the traditional wedding, which was almost held from 10 to 11 in the morning. In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contrary to the Chinyoung and Banchinyoung, Woogee was held on the very day or on the second day, Jaehang after Woogee.

In the system of Chinyoung, the wedding was held in the house of the groom after Woogee, and there's no Jaehang. In Banchinyoung, the wedding was held in the house of the bride, and there's Woogee after Jaehang. But in those days, the wedding was held in the house of the bride and there's Woogee at the very day or within three days, and the next three days there's Jaehang.

It means that the order of the ceremony, Woogee and Jaehang was quite important, suggesting it was neither Chinyoung nor Banchinyoung. It was the result of the cultural fusion between the

ancient Choseon traditional wedding originated from the Choseon dynasty and the Chinese traditional wedding.

Thirdly, as to the wedding costume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groom put on the specific cap hemmed in navy and the special coat and the bride put on the ceremonial cap and the green or red dress. These costumes are not individual but managed by the community.

But there were a few who wore the personal costume, which was resulted from the custom that it's good that the dress is used as the shroud after three wearing. They all were poor back then, so there were few brides who could afford the Yedan for the relatives.

Fourthly, concerning the wedding table, a couple of things were arranged on the table among the blue and red thread, candles, three different color fruit such as chestnuts, jujubes and dried persimmons, chicken and cereals. The representative cereals were rice, beans, adzuki beans, some kinds of rice cake and noodle. Food served for the wedding guest was rice-cake soup if wealthy, noodle if normal, and the rice with bean sprout soup if poor. Few interviewees were treated with the great wedding table. After wedding, the bride gave a visit to their parents with the chicken and alcohol if wealthy, but most brides visited their parents either with rice-cake and taffy or none if not economically affordable.

Lastly, the characteristic of the wedding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from the 1940s to the 1960s was that no western weddings were held even though the western culture was introduced greatly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from the 1940s and the 1960s suffered from the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of the Korean war and the Japanese colonial rule, leading simplified wedding food and process. But the traditional wedding culture was kept in this region which is known as the region of manners.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4월 19일  
주요(연구동위원): 홍윤석  
연락처: \_\_\_\_\_  
성명: 박선영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4월 19일  
주요(연구동위원): 홍윤석  
연락처: \_\_\_\_\_  
성명: 이필우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4월 20일  
주요(연구동위원): 홍윤석  
연락처: \_\_\_\_\_  
성명: 시인석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4월 29일  
주요(연구동위원): 김정환, 조준호, 최현미  
연락처: 916-0131  
성명: 송희희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4월 29일  
주요(연구동위원): 김정환, 조준호  
연락처: 041-353-7613  
성명: 이우용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4월 30일  
주요(연구동위원): 김정환, 조준호  
연락처: 041-353-7620  
성명: 부유근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5월 11일  
주요(연구동위원): 공유진, 송현우, 최현미, 조준호  
연락처: \_\_\_\_\_  
성명: 이영남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5월 21일  
주요(연구동위원): 이영남  
연락처: 041-353-3088  
성명: 이영남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연구동위원**  
연구과제: 송남지역 토목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요구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며  
본인 이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촬영 장비가 그 내용은 녹화하여 원본자료로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명문서로, 이미지, 복소자료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5월 21일  
주요(연구동위원): 이영남  
연락처: 041-353-0126  
성명: 이영남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노영미  
소속: 성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직명: 노영미



##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충남지역 혼례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취하여 원본사료를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연구 및 여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저작권리를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영상, 사진, 이미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년                      월                      일

주소(간략하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_\_\_\_\_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_\_\_\_\_

소속: \_\_\_\_\_

서명: \_\_\_\_\_

## 면접 질문지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웨딩문화산업학과 석사논문으로 “충남지역 혼례문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질문지입니다.

귀하의 혼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십시오.

2012년 4월

연구자: 성신여자대학교 웨딩문화산업학과 석사과정 노영미  
지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김인옥

I. 면접자의 개인적 특성과 혼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본인	성함		나이	
	배우자	성함		나이	
2	현재거주지역				
3	혼인 지역				
4	예식 날짜				
5	출생지	본인			
		배우자			
6	혼인나이	본인			
		배우자			
7	혼인당시의 직업	본인			
		배우자			
8	혼인유형 (만남)	중매			
		연애			
9	혼례형태	전통			
		신식			
10	예식 장소				
11	신혼집				
12	혼인신고 시기				

## II. 혼례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의혼

- 1) 중매인은 누구입니까?
- 2) 간선이 있었습니까?
- 3) 혼사 말이 오고가고 얼마 만에 혼례를 행하였습니까?
- 4) 배우자를 처음 본 것은 언제입니까?

### 2. 납채

- 1) 청혼서•사주•허혼서•연길서(택일지)는 오고 갔습니까?
- 2) 청혼서•사주•허혼서•연길서(택일지)는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 3) 주고받을 때 어떤 의식이나 음식이 있었습니까?
- 4) 예식 날짜를 어느 데에서 정했습니까?

### 3. 납폐

- 1)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서지를 보냈습니까?
- 2)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함을 보냈습니까?
- 3) 혼서지와 함은 언제 전해졌습니까?
- 4) 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 5) 함을 주고받을 때 양가에서 어떤 의식이나 음식이 있었습니까?
- 6) 신부가 예단을 준비했습니까?
- 7) 예단의 품목은 무엇이었습니까?

8) 예단을 어느 범위까지 했습니까?

#### 4. 초행

- 1) 초례(초자례, 초녀례)를 행하였습니까?
- 2)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교통편)
- 3) 신랑은 누구와 함께 신부집으로 갔습니까?

#### 5. 예식

- 1) 예식은 하루 중 언제 올렸습니까?
- 2) 예식에 참석한 사돈댁의 하객은 누구입니까?
- 3) 예식에 흥기가 있었습니까?
- 4) 예식을 도와주는 수모는 누가 해주었습니까?
- 5) 혼례청에 주로 쓰인 물건을 무엇입니까?
- 6) 혼례복으로 무엇을 입었습니까?
- 7) 혼례상차림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 8) 신랑은 큰상을 받았습니까?
- 9) 예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 10) 하객에게 축의금을 받았습니까?
- 11) 예식 때 사진을 찍었습니까?

#### 6. 합방례

- 1) 첫날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신방옛보기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 7. 재행

1) 재행을 얼마 만에 행하였습니까?

2) 신랑은 누구와 함께 신부집으로 갔습니까?

3) 동상례(신랑다루기)가 있었습니까?

## 8. 우귀

1) 신부는 시댁에 언제 들어갔습니까?(몇 일 우귀)

2) 시댁으로 들어갈 때 혼수로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3) 신부는 시댁으로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갔습니까?

4) 우귀를 행할 때 어떻게 갔습니까?(교통편)

5) 신부는 큰상을 받았습니까?

## 9. 현구고례

1) 현구고례를 받은 분은 누구입니까?

2) 현구고례는 신부 혼자 드렸습니까?

3) 현구고례 음식으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4) 현구고례를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5) 조석문안은 얼마간 드렸습니까?

## 10. 근친

- 1) 근친은 얼마 만에 갔습니까?
- 2) 근친을 누구랑 함께 갔습니까?
- 3) 근친을 행할 때 준비한 음식이 있었습니까?

## 11. 기타

당시 주변에서 신식예식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또는 당시 지인 중에 신식예식으로 예식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